발 간 등 록 번 호
인천교육-2023-0162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2023

학생생활지도 꿀팁!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학생생활지도 비법소개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CONTENTS

차례

교육감님 격려 말씀 ····· i

Ⅰ. 전문가 가이드

1. 갈등해결 레시피 ····· 3
2. 회복적 교육과 실천 ····· 6

Ⅱ. 학생생활지도 꿀팁!(학급/학년단위)

1. 학년초 학급 운영 ····· 21
2. 학급의 특성에 따른 운영 ····· 35
   (1) 초등학교 ····· 35
   (2) 중 · 고등학교 ····· 48
3. 학년·학교 전체 운영 ····· 67

Ⅲ. 학생생활지도 꿀팁!(유형별)

1. 초등학교 유형별 사례 ····· 73
   (1) 친구들 사이에서 분란을 만드는 학생 ① ~ ⑥ ····· 73
   (7) 폭력성 있는 운동선수 학생 ····· 84
   (8) 예민한 성격으로 사소한 일도 신고하는 학생 ····· 86
   (9) 나만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학생 ····· 88
   (10) SNS상에서 거친 말을 사용하는 학생 ····· 89
   (11) 과잉 반응 및 과잉 행동을 하는 학생 ····· 91
   (12) 우리반 넘버원 금쪽이 심층 상담 ····· 93
   (13) 갑자기 화를 표출하는 학생 ····· 97
   (14)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학생 ① ~ ② ····· 99
   (16) 규칙과 약속이 필요한 학생 ····· 104
   (17) 교사를 화나게 하는 학생들의 소소한 행동들 ····· 106
   (18) 무기력하여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는 학생 ····· 108
   (19) 자해를 하며 잘 우는 학생 ····· 113
   (20)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학생 ····· 115
   (21) 교사에게 반항하고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 ····· 117
   (22) 또래와의 관계 변화로 혼란을 겪는 학생 ····· 119
2. 중 · 고등학교 유형별 사례 ····· 121
   (1) 지각이 일상인 학생 ① ~ ② ····· 121
   (3) 세상 관심을 모두 받고 싶은 학생 ····· 125
   (4) 책임감이 없어서 친한 친구가 없는 학생 ····· 127
   (5) 억울하다는 불평이 많은 학생 ····· 129
   (6) 공부에 흥미가 없는 학생 ····· 131
   (7) 거짓말하는 학생 ····· 133
   (8) 여교사에게 무례한 학생 ····· 135
   (9) 학업에 무관심, 학교에서 소외됨, 문제행동 반복 학생 ····· 137
   (10)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갈등 조정 대화모임) ····· 140
   (11) 가족간 갈등-가족 대화모임 ····· 142

교육감님 격려 말씀

「2023학년도 학생생활지도 꿀팁!」 발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권과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고 있는 이 시기에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학생생활지도 비법 모음집 발간은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어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올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이 완료되었으며, 2023.9.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공포·시행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었지만, 교실에서 매일 맞닥뜨리는 다양한 학생들과 상황들은 여전히 우리 선생님들을 당황스럽게 하기에 현장 지원 방안 중 하나로 「학생생활지도 꿀팁!」 제작이 기획되었습니다.

학생 문제행동 유형에 따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학교 현장에 도움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어려운 시기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의 열정과, 학생생활교육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 결과를 현장에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학교생활교육과 회복적 생활교육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선생님들과 손잡고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공교육이 바로서는 학교', '안전한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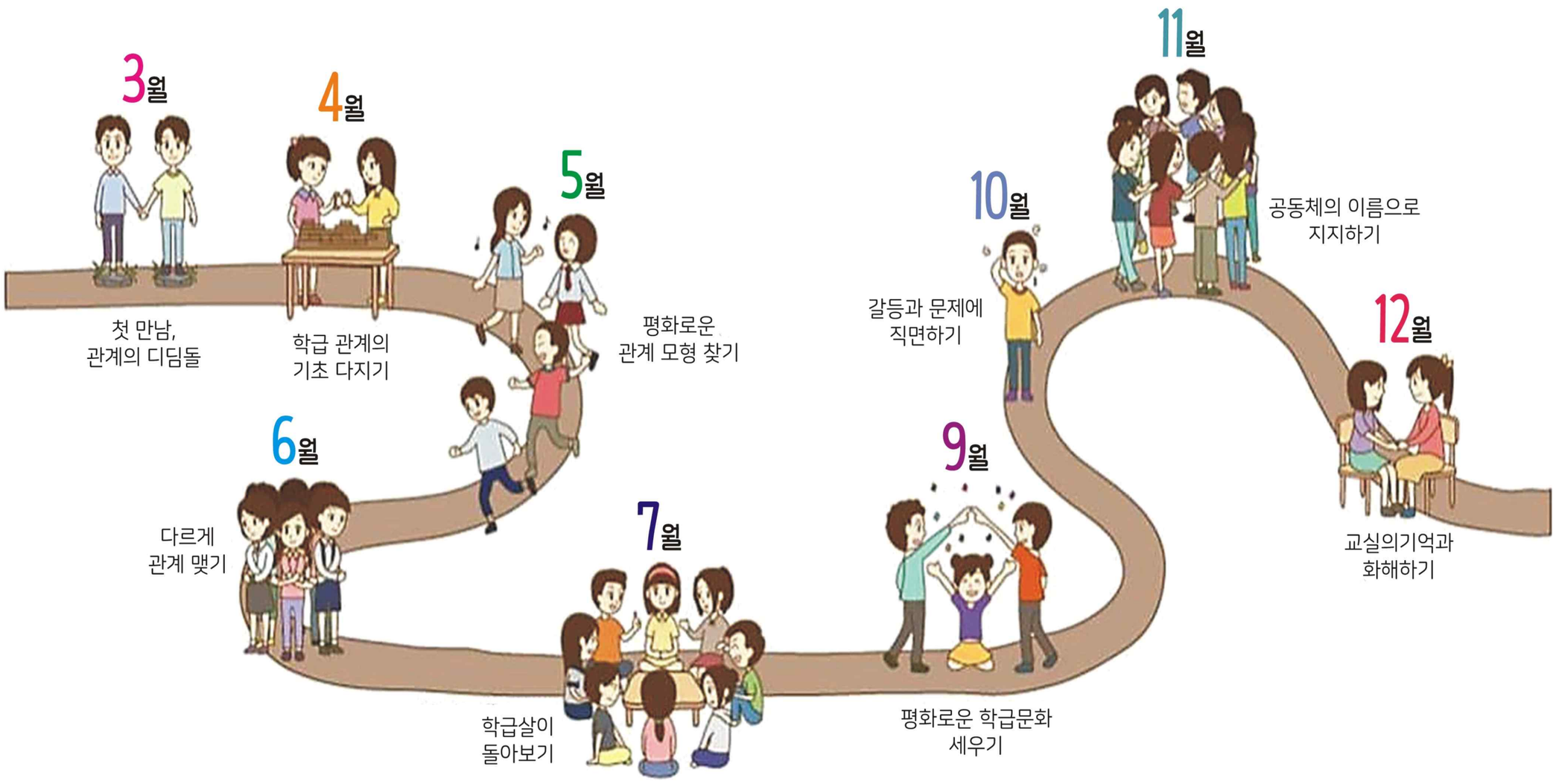
전문가 가이드

1. 갈등해결 레시피
2. 회복적 교육과 실천

01 갈등해결 레시피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장 | 정 진

■ 갈등전환 레시피 : 환대의 교실 만들기



출처 : 회복적생활교육학급운영가이드북

월	내용	Circle day 주제	신뢰서클 적용 프로그램	지속 프로그램	담임교사
3월 첫 만남, 관계의 '디딤돌'	• 첫 만남 '의식' 프로그램 • '마음의 신호등' 운영하기 • 교실에서 내 역할(캐릭터) 만들기 • 달콤 우체국 개설 • 관계 이미지를 바꾸는 몸 + 맘 놀이 • 피스 존(peace zone) 만들기	"나를 소개합니다." "친구 사귀기"	• 공동체 서클로 둥글게 만나기 (첫 만남 의식) • 체크인, 체크아웃 서클	• 체크인, 체크아웃 서클 • 마음의 신호등 • 달콤 우체국 • 서클 데이(Circle Day) • 피스 존(Peace Zone) 만들기 • 평화의 책상 운영 • 고민상담일지 코너 • 또래조정자 • 서클 코디네이터	• 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 • 학부모에게 회복적 생활교육 동의서 발송 • 회복적 정의와 생활교육 소개 • 회복적 학급 가꾸기 기록(지속) • 회복적생활교육 흐름도 적용(지속) • 학부모들과의 다모임 서클 준비
4월 학급 관계의 기초 '다지기'	• 존중의 약속 만들기(3월 말~4월 초) • 내 마음의 관계도 그리기 • 감정이 로드맵 • 사회적 관계 질문지 활용하기	"존중" "공부"	• 존중의 약속을 위한 주제 서클 • 관계 형성의 깊이를 더하는 '어항서클'		• 학급 관계유형 파악 + 회복적 상담(지속) • 또래조정자 신청 안내문(학교 단위)
5월 평화로운 관계 모형 '찾기'	• 연극적 퍼포먼스를 통한 관계 맺기 훈련 • 북 크로싱은 '생각 크로싱'	"다름과 차이" "의사소통"	• 사랑의 나눔, '평화의 식탁'		• 학급 또래조정자, 피스메이커 세우기
6월 다르게 관계 '맺기'	• 의사소통 훈련 Listen Project • 평화로운 의사소통을 위한 훈련 • 갈등전환 훈련	"꿈 & 비전" "가족"	• '지지서클' 로 치유 공간 만들기		**지속적인 회복적 실천(1,2학기 공통)** • 또래 압력과 학급 관계 선호도 파악하기 • 정기적인 신뢰서클과 존중의 약속 확인 • 개별화 작업으로 특별화 아이 만나기 • 공동체의 평화적 하부구조 안에서 갈등과 문제상황 다루기
7월 학급살이 '돌아보기'	• 세상을 바꾸는 5분(조회)	"1학기 돌아보기" "여름방학"	• 1학기 '배움 나눔' 이야기 서클		
9월 평화로운 학급 문화 '세우기'	• 즉흥극이 만드는 우리들의 이야기 • 회복의 나무 심기 • 평화감수성을 위한 몸 + 맘 놀이	"2학기를 열며" "배려"	• 신뢰서클로 평화수업하기 1	• 체크인, 체크아웃 서클 • 정기적인 '평화의 식탁' • 달콤 우체국 • 서클 데이(Circle Day) • 피스 존(Peace Zone) 운영 • 고민상담일지 코너 • 학부모들과의 다모임 서클 • 또래조정자 & 서클 코디네이터	• 2학기 서클데이 준비 • 평화수업 기획 • 학급 관계유형 파악+회복적 상당(지속)
10월 갈등과 문제에 '직면하기'	• 갈등상황 역할극 • 영화로 말 걸기 • 피스캠프	"갈등" "축제 & 소풍"	• 갈등가 관계 문제에 대한 주제 서클		• 또래관계 유형 변화에 따른 회복적 조치 • 1박 2일 피스캠프 기획, 진행 • 갈등과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자율적인 해결과정 확인(존중의 약속, 평화의 책상, 또래조정자 등 활용) • 평화수업 기획
11월 공동체의 이름으로 '지지하기'	• 북 크로싱은 '생각 크로싱' • 긍정의 책 만들기 • 교실로 보내는 편지	"상처" "감사"	• 신뢰서클로 평화수업하기 2		
12월 교실의 기억과 '화해하기'	• 화해 프로젝트 • 회복적 학급 돌아보기(성찰적 글쓰기)	"교실의 기억" "1년을 마무리하며"	• 화해 프로젝트 이야기 서클 • 회복적 학급 주제 서클		• 회복적 생활교육 성찰적 글쓰기 공유하기 • 회복적 실천 자료 데이터화 • 학생들의 회복적 참여를 다음 학년으로 연계하기

갈등과 문제해결 유형

문제 상황	교사의 접근 방식
아이 한 명이 문제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교사가 학생에게 존중의 약속을 확인하도록 하고 회복적 상담을 진행하거나, 피해를 입은 상황을 현장에서 바로 직면해야 하는 경우다. 일반적인 학생들의 경우, 교사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적절하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역할을 바꾸려 하지만, 때에 따라 특별한 성향을 지닌 학생들이 만드는 반복적 상황이 있으므로 분명한 개입 방향의 선택이 필요하다.
학생들 사이의 말다툼이 이후 몸싸움으로 이어진 경우	교실에서 흔히 맞는 상황 중 하나로 교사는 사건의 당사자인 두 학생을 따로 따로 불러 각각이 말하는 맥락을 듣고, 양쪽 아이들과 교사가 참여하는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한다. 만약 사건이 중하지 않다면, 교사가 두 친구에게 동일하게 회복적 질문을 하고 서로의 맥락을 경청하도록 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 동맹 그룹 간의 '파워게임'이 진행되면서 발생되는 갈등이 개별적 혹은 집단 간의 문제행동으로 이어진 경우	두 동맹 그룹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사는 문제를 일으킨 핵심 당사자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서클이나 회복적 대화모임을 기획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모임에 당사자와 연관된 그룹원들이 참여하여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까지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한 친구의 문제행동에 대항하여 나타난 집단적 행동이 폭력적인 경우	한 학생이 개인적으로 문제행동을 지속하여 집단적으로 공격을 당한 상황일 경우, 개인의 책임과 집단을 통해 생긴 개인의 피해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 집단적 행동을 벌인 친구들이 문제행동을 지속한 친구로 인해 받은 지속적인 피해와 영향을 표현하게 하고, 집단화 되기까지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문제를 대하면서 서로에게 정당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피스메이킹서클을 통해 대화한다.
무기력한 친구 한 명, 혹은 몇 몇에 대해 학급 전체가 암묵적 분위기로 따돌리는 경우	무기력한 친구를 드러내거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보다, 먼저 따돌림과 관련된 이슈와 주제로 공동체서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평소 활기가 없고 따돌림 분위기에 익숙한 학생이 가질 심적 부담감과 드러냈을 경우 생겨날 2차 피해를 예측한다면, '밖의 문제'에서 '안의 문제'로 들어오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제를 갖고 나누는 이야기를 자신의 학급과 연결해 가는 것이다.
몇몇 학생들이 그룹으로 몰려다니며 큰 목소리와 과잉행동으로 교실의 분위기를 주도할 경우	집단으로 묶여 있을 경우 그 안에서 연대된 감정들이 사실을 다르게 인식하게 하고, 집단 안의 개인은 집단적 에너지 뒤로 숨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교사가 집단을 하나로 묶지 말고 개개인을 상대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을상담할 때는 먼저 상담한 친구를 통해 그룹으로 전파가 되지 않도록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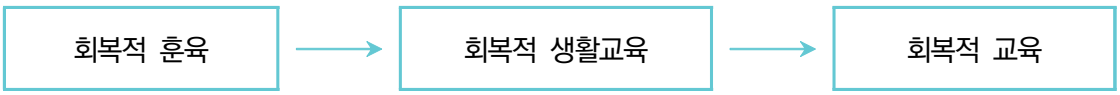
02 회복적 정의와 교육

평화비추는숲 대표 | 박 숙 영

■ 회복적 생활교육의 진화

한국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은 권위적인 훈육의 대안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회복적 생활교육은 '회복중심 생활교육', '관계중심 생활교육'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으며, 훈육과 생활교육 영역을 넘어 교육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즉 회복적 정의의 가치에 기반한 '회복적 교육'으로 확장되고 있다.

〈교육영역에서 회복적 정의 실천의 진화〉



(1) 회복적 교육이란?

교육에서 회복적 정의의 실천이 '회복적 교육'으로 명명되면서, 회복적 교육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되는 과제가 생겼다. 회복적 교육이라는 학문 영역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전히 진화과정에 있는데 그 실체에 대해 언급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적 정의의 가치가 현재의 교육을 어떻게 재조명하고 있는지, 회복적 교육의 1) 인간에 대한 이해, 2) 교육의 의미, 3) 교육의 가치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인간에 대한 이해

① 존엄한 존재

회복적 정의는 잘못이란 규칙·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규칙·법을 어김으로써 인간존엄과 관계를 훼손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회복적 정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간은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존재일 뿐 아니라 존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 존재 자체에 위계란 없다.

② 공동체적 존재(상호의존적 존재)

회복적 정의에서 개인 문제란 없다. 모든 문제는 공동의 문제다. 그래서 공동체는 발생한 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진다.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공동체적 존재이며, 생존을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호의존적 존재다.

③ 영적 존재

인간은 몸, 정서, 정신을 지닌 영적 존재다. 영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교에서는 불성으로, 그 외의 영역에서는 참자아, 내면의 빛, 최선의 자아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빅터 프랭클린은 인간의 영은 아프거나 상처받지 않는다고 했다. 인간은 영에 의해 몸과 정서, 정신이 통합되며 조화를 이룬다.

④ 아동·청소년은 발달과 통합의 과정에 있는 열린 존재

아동·청소년은 통제가 필요한 미성숙한 존재라기보다는 발달과 통합의 과정에 있는 열린 존재다. 발달과정에 있기때문에 미성숙하지만, 존재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으로 열려있다. 지식 습득 측면에서도 주어진 지식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존재가 아닌, 지적 경험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앎을 구성해가는 존재다.

2) 회복적 교육의 의미

캐서린 에반스와 도로시 반더링은 '회복적 교육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로 관계맺는 능력이 성장하는 배움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과정.[1]'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교육은 인간의 생득권인 존엄성을 존중하고, 관계적 존재로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장하게 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3) 회복적 교육의 가치

① 존중

모든 인간은 강점과 취약성을 지닌 존재다. 인간의 존엄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강점뿐 아니라 취약성도 수용하면서, 있는 그대의 존재로서 소중하게 대우한다는 의미다. 교육은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최선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② 공동체 (상호책임, 상호돌봄)

우리의 생명은 서로에게 속해있고,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한다. 나를 돌보는 것이 너를 돌보는 것이고, 너를 돌보는 것이 나를 돌보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는 자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공동체 안에서부터,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다.[2] 우리는

1) 캐서린 에반스 & 도로시 반더링. 〈회복적 교육〉. 대장간. 2020.

개인적 웰빙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지역사회와 지구 전체의 웰빙에 책임감을 갖고 이를 고양하기 위한 실천이 중요하다.

③ 정의

사회적 불평등은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불평등은 산술적이고 기계적인 차이를 뜻하는 게 아니라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격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불평등은 곧 부정의(injustice)의 문제다.[3] 경제적 불평등뿐 아니라 젠더, 인종, 장애, 지역 등 특정 요인의 다양한 불평등이 존재하며, 이는 교육·고용·소득·주거·건강 등 총체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학교교육은 능력주의에 기반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시켰다. 학교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에 편승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구조와 신념체계들을 해체시키고 사회 정의와 평화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회복적 교육에서 진정한 평화는 정의에 기반한다. 평화없이는 정의를 이룰 수 없으며 정의없이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4]

④ 소통(대화)

'진리는 중요한 사물에 대한 영원한 대화이며, 그것은 열정과 질서 속에서 수행된다.'[5]는 파커 J. 파머의 통찰과 같이 우리는 진리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끝임없는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대화는 객체를 주체로 만들어 주는데, 회복적 교육은 대화를 통해 만들어 가게 된다. 솔직한 자기표현과 편견없는 경청은 집단지성을 창출시킨다.

2) 스캇 펙
3) 프레시안 2021.11.18
4) 엘리자베스 엘리엇
5) 파커 파머.,〈가르칠 수 있는 용기〉

(2) 회복적 훈육과 응보적 훈육 / 회복적 교육과 응보적 교육

1) 회복적 훈육과 응보적 훈육

회복적 훈육과 응보적 훈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응보적 훈육	관점의 차이	회복적 훈육
잘못은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잘못	잘못이란 존엄과 관계에 대한 침해다.
잘못하면 처벌받는다.	잘못의 결과	잘못하면 피해가 발생하고, 책임질 의무가 발생한다.
정의는 비난(유죄 확정)과 고통 부여(처벌)로 성취된다.	정의의 과정	정의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의 노력으로 성취된다.
통제가 필요한 미성숙한 존재	학생상	통합과 발달과정에 있는 열린 존재
개인	책임	개인, 공동체
어떤 규칙을 위반했는가?	주요 질문	누가 피해를 입었는가?
누가 범인인가?		피해자의 요구는 무엇인가?
어떤 처벌이 합당한가?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

2) 회복적 교육과 응보적 교육

회복적 관점으로 교육을 바라볼 때, 회복적 교육과 응보적 관점의 교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응보적 관점	회복적 관점
무엇이 옳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규칙	관계
능력 평가	잠재력
지식쌓기	의미탐구
지시하기	물어보기
성공	행복
사회 통제	**사회 참여**

회복적 교육은 사회 정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교실은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며,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사회적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실은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변혁이 시작되는 성숙한 배움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교실은 모두의 목소리, 이야기, 관점이 동등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공간이 되어야 하고, 교실은 불평등과 차별을 낳는 구조를 해체하고 사회적 정의를 이루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3) 회복적 교육의 배움 틀, 서클 프로세스

1) 서클 프로세스

회복적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배움의 틀로써 서클의 방식을 사용한다. 서클은 인류의 오래된 모임의 형태로,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이해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공동체 대화다. 서클은 특별히 북아메리카 선주민들의 토킹피스 전통에서 영향을 받았다. 북아메리카 선주민들은 지식(지혜)을 원형이나 바퀴의 형태로 표현했다. 그들은 삼라만상이 원형이고 시작과 끝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기때문에 모든 주제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고 받아들였다. 지혜에 닿기 위해서 그들은 둥글게 둘러 앉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경청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오늘날 서클은 대표적 집단지성 프로세스이며,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이고, 주제 중심의 교육으로 적용·발전하고 있다.

2) 서클의 기본 철학

①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돕는 것과 같다.
② 서클 참여자들은 서클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만든 공동의 지혜로부터 유익을 얻는다.
③ 참여자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주는 동시에 받는다.
④ 서클은 문제를 새롭게 이해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인생 경험과 지혜에 의지한다.

3) 서클의 종류

서클의 종류는 그 목적과 주제에 따라 다양하다.

이야기 서클, 이해서클, 치유서클, 지원서클, 공동체 형성 서클, 축하서클, 신뢰서클(파커 파머), 회복적 서클, 문제해결 서클, 양형 서클, 스터디 서클… 다양하다.

(4) 학교폭력과 회복적 대화모임

학교폭력이 심각해지면서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학교폭력문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늘어나고 있다. 학교폭력은 그 대상이 학생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와 결과는 교육적이어야 한다.

1) 학교폭력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

첫째, 발생한 피해와 상처의 회복 부재다.

연구에 의하면, '가해자의 44%가 피해경험이 있고, 피해자의 54%가 가해 경험[6]'이 있다. 학교폭력이 반복되는 이유는, 폭력으로 발생한 피해와 상처를 방치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학교폭력 대책은 가해자 처벌에 집중되어있다. 반면에 학교폭력으로 상처를 입은 학생과 공동체의 피해 회복에는 관심과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

가해 학생들을 만나보면, 그들도 따돌림이나 배제, 혐오 등 다양한 폭력피해 경험이 있다. 피해의 경험으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연스럽게 방어적·공격적 처세술을 가지게 된다. 학생들의 피해와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아물지 않은 상처와 트라우마는 다시 자기 자신과 공동체로 돌아오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둘째, 구조적 접근의 부재다.

학교폭력의 원인에는 개인·가정·학교·사회문화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들의 폭력적 행동은 개인적 차원보다는 사회적·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학교폭력조치 과정에서는 학생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폭력'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직접적 폭력(구타, 욕설, 혐오 발언, 테러, 강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구조적 폭력(폭력을 정당화하는 전통, 신념, 차별과 배제, 선입견, 부정부패와 사회 불평등, 빈곤)이 있다. 문화적·구조적 폭력은 가시적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폭력의 근본적인 뿌리인 문화적·구조적 폭력이 해소되지 않은 채, 학교폭력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지금의 학교폭력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동·청소년 개인들이 아니다.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폭력적인 문화와 불평등한 사회구조다. 학교폭력 문제해결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를 다루지 않는 한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

셋째, 창의적 접근의 부재다.

아인슈타인은 '제정신이 아님이란 유사한 일을 반복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라 말했다. 문제해결 방법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봐야 한다. 그러나 2004년 학폭법 공포 이후로 학교폭력은 일관되게 엄벌주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될

6) 박순진(2009) '청소년 폭력에 있어서 피-가해 경험의 발전' 형사정책연구원

때마다 '가해자 처벌 강화'의 여론이 형성되고, 정부와 교육부는 이에 반응하여 더 강한 엄벌정책을 발표해왔다. '과정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유사한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 문제해결의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처벌에 초점을 둔 지금의 학교폭력해결은 승패 방식으로 상호공격을 불러와서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는 구조다. 학교폭력은 서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창의력과 유연성이 필요하면서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의 모든 해결 과정은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교육적 접근이어야 한다.

그러면 학교폭력의 교육적 접근은 무엇인가?

2) 학교폭력의 교육적 접근

첫째, 성장 지향적 접근

그동안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통제가 필요한 미성숙한 존재'로 통제의 대상이었다. 교육은 미성숙한 학생의 부정적 행동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려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미성숙함이란 생물학적 발단단계로서의 미성숙함을 의미할 뿐이다. 즉, 학생들은 발달과 성장의 과정에 있는,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열린 존재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교육은 학생들의 성장을 단정지어서는 안되며, 그들의 내적 강점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도 학교폭력의 해법은 학생이 실수와 잘못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타인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배울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장지향적 접근되어야 한다.

둘째,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접근

회복적 정의는 처벌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응보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회복에 방점을 둔 접근이다. 회복적 정의는 잘못을 규칙 위반에 한정하지 않고, 존엄과 관계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집중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책임있는 구체적 실천에 주목한다. 피해회복의 과정에 개인 당사자와 공동체가 참여하는데, 이는 모든 문제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문화적·구조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당사자와 공동체가 해결의 주체가 되는 회복적 과정은, 최근 학교폭력문제를 법률 전문가에게 의존하면서 정작 당사자들은 소외되고 있는 현상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접근은, 침해된 존엄과 관계 · 피해와 책임 · 공동체와 정의의 회복을 의미한다. 회복적 정의는 대화를 통해 만들어 가는 과정이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회복적 대화모임(서클)이 있다.

3) 회복적 대화모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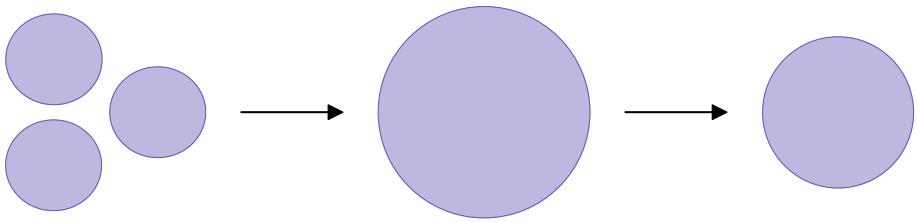
회복적 대화모임은, '공동체가 겪고 있는 갈등에 대해 서로를 비난·공격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이

아닌, 오히려 갈등을 환영하고 지원하고 직면하여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기 위한 것'이다. 회복적 대화모임의 절차는 '사전 모임 → 본 모임 → 사후 모임'으로 진행된다.

사전 모임이란, 진행자와 당사자 간의 일대일 대화모임이다. 발생한 사실과 갈등의 핵심 내용을 확인하면서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시간이다. 대화말미에 본 모임의 참여 동의를 확인한다.

본 모임은, 회복적 대화모임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람들의 대화모임이다. 회복적 질문을 통해 발생한 피해로 인한 고통과 책임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 대화 말미에 책임과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한 약속을 합의한다.

사후 모임은, 본 모임 이후 일정한 모니터링 시간을 가진 뒤에 다시 만나는 것으로 대화모임 이후의 상호 복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사전 서클	본 서클	사후 서클
* 갈등을 상징하는 행위 확인	* 상호 이해	* 참가자 복지 조사하기
* 갈등의 의미 이해하기	* 자기-책임	* 새로운 행동들 축하하기
* 참여 동의를 확인하기	* 동의된 행동	혹은 탐구하기

회복적 대화모임 예시문

환영과 안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회복적 서클 진행자인 ○○○입니다. 회복적 서클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공감으로 듣는 대화모임입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들은 대로 반복해주는 방식으로 대화합니다. 저의 역할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이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서로의 말이 잘 연결되게 하여 참여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대화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이 있다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럼 대화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상호 이해하기	발생한 일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어떤지**,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나요?
자기-책임을 지기	그때 당신이 선택한 **행동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나요?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나요?
동의된 행동계획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나요? 피해 회복(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약속할 수 있나요? 상대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사후 모임 약속 정하기	서로 약속한 것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후 모임을 언제,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소감과 감사	대화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마음이 어떤가요?

(5) 회복적 실천가로서의 교사 역할

회복적 교육은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교육철학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회복적 교육을 통해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적 실천가인 교사의 진정성과 성실성이다. 그런데 전통적 교사 역할과 회복적 교육에서의 교사 역할은 다르다. 새롭게 요구되는 회복적 교육의 교사 역할은 무엇인가?

1) 학생들의 필요 묻기

회복적 교육은 학생을 통제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학생들은 내면의 빛을 지닌 독립된 주체다. 학생을 통제 대상으로 여겼던 전통적 훈육에서 교사의 주된 질문은 “어떻게 학생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사의 말을 잘 따르게 할 것인가?"였다. 반면 회복적 실천교사에게는 "학생의 필요는 무엇인가?", "학생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주된 질문이 된다. 학교는 마음이 떠난 아이들로 가득하다. 엘리엇 워셔[7]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근본 이유는 방치, 어긋남, 재능과 흥미의 간과, 지나친 규제 등으로 인한 '마음 떠남'이며 이는 학생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학생들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는 학교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회복적 실천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알고, 그 필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그러한 노력은 학생들로 하여금 배움의 생기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2) 배움의 공간을 창조하기

파커 파머는 '가르침은 진리의 커뮤니티를 실천하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교사는 진리의 공동체가 실천되는 배움의 공간을 창조하는 자이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하지만, 교사는 변화의 공간을 창조할 수 있다. 배움을 위한 안전한 공간, 소통과 대화의 공간, 평화의 공간에서 학생들은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자발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3) 힘을 공유하는 협력적 리더십

모든 사람에게는 건강한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근원적인 욕구가 있으며, 동시에 사람들은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근본적 욕구가 있다. 이러한 두 욕구는 자신들이 남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힘(power over)의 욕구를 버리고 남들과 공유하는 힘(power with)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공동체는 소수가 힘을 독점하지 않으며, 공동체 구성원이 힘을 공유한다. 교실에서의 힘의 질서는 power over가 아닌 power with가 되어야 한다. 한편 교사는 권위를 갖는다. 이 권위는 학생들이 보다 큰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는 힘이다. 합법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거기에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제다. 만일 각 개인들이 그 권위가 합법적이고 공정하다고 느낀다면 그 힘을 수용하고 존중할 것이다. 반면에 그것이 power over로 느끼면 그 힘에 대해 분개하고 저항할 것이다. 교사의 권위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들이 교사로부터 존중받고 있음을 느껴야 한다.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교사들의 권위적인 시도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역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학생 개개인의 힘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8]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주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공동체를 이끌고 책임질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7) 빅피처러닝을 설립해 운영 중이며, 학교개혁 활동과 참여적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혁신학교를 설계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8) 케이 프라니스 & 캐롤린 보이스 왓슨(2018), 서클로 나아가기, 대장간

4) 질문하고 대화하기

‘대화는 객체를 주체로 변화시키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의식화의 수단이다.’라고 파울로 프레이리는 말한다. 파울로 프레이리 말에 비춰본다면 교실현장의 대화부재는 학생들을 주체화시키지 못하고, 계속 수동적 삶의 형태를 강화한다. “노예는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인식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질문하게 함으로써 대화의 장으로 초대해야 한다. 지식전달식 배움에서 벗어나서 상호작용적 배움, 관계적 배움, 의사소통을 통한 배움이 되어야 한다.

5) 갈등을 평화적으로 전환하기

갈등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역설의 문제이며, 공동체로 하여금 변화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이때 교사는 갈등을 이분법적을 다루지 않고, 오히려 복잡하게 얽혀있는 갈등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구성원들 간의 대화를 연결해줌으로써 갈등을 변화 동력으로 삼는다. 회복적 실천가로서 교사는 갈등의 역동을 평화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6) 회복적 교육 시스템 구축

회복적 교육을 학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회복적 교육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전히 응보적 문화와 시스템이 잔재해있는 학교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성공시키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우리는 변혁의 과도기에 살고 있는데, 과도기의 특징은 “옛것도 작동하지 않고 새것도 작동하지 않는다.” 즉 과거의 처벌중심 훈육도 작동하지 않지만, 새로운 회복적 훈육도 뚜렷한 효과와 놀랄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않는다. 때때로 회복적 실천과 관련한 비난과 냉소를 듣게 된다. “존중해주니까 아이들이 이기적으로 변하고 버릇만 나빠졌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학교현실에 맞지 않는다.”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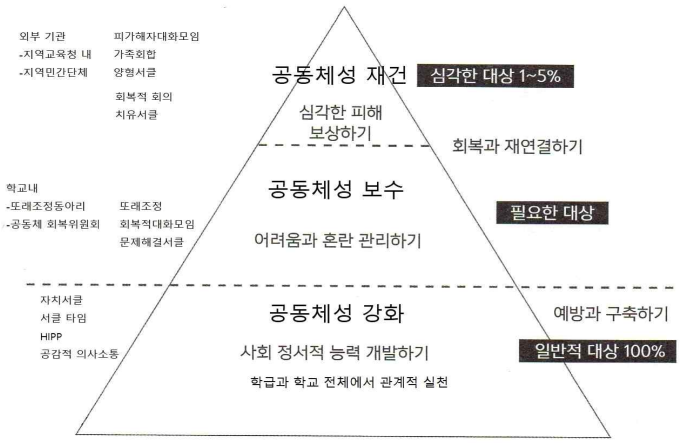
회복적 교육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시스템 구축은 외적 시스템 뿐 아니라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적 시스템도 중요하다.

1) 외적 시스템 ‘회복적 학교’ 구축하기

회복적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의 통합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회복적 교육은 전통적 훈육에 기반 한 현 학교문화시스템과 자주 충돌하기 때문에, 회복적 가치와 내용을 담아내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 도표는 회복적 학교 시스템 구축을 이해하기 위한 그림이다. 가장 아래 단계는 공동체성 강화단계로 예방단계이며 사회적·정서적 프로그램 적용이 효과적이다. 두 중간 단계는 공동체에 약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공동체를 보수하는 단계로 또래조정 · 회복적 대화모임, 문제해결 서클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맨 위의 공동체성 재건 단계는 심각한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과 같은 사건 발생이 여기에 해당된다. 회복적 대화모임의 몇 가지 모델들(가족집단 회의, 양형서클, 피·가해자 대화모임)이 있다.



2) 내적 시스템 '회복적 실천가의 내면' 구축하기

회복적 실천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는다. 외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회복적 학교가 되지 않는다.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가치 공유와 동의, 협력과 같은 구성원들 간의 내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결국 회복적 학교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회복적 실천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교사는 시간이 오래지 않아 많은 장벽들을 만나게 된다. 이때 회복적 가치에 대한 확신과 경험이 부족하면 실패한다. 또한 체득이 되지 않거나 미숙하여도 마찬가지다. 배워가는 과정에서 실패는 당연하다. 그러나 지지공동체가 있다면 지속할 수 있다.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실패와 실망할 때마다 찾아오는 회의와 무기력, 자책감이 문제다.

외부 세계는 내적 세계의 투사다.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내적 시스템이 외적 시스템을 해체할 수도, 구축할 수도 있다. 사람 내면의 시스템 구축이 외부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실천가들은 1) 지속적인 훈련과 깨어 있는 의식, 2) 성공과 실패를 나눌 수 있는 지지공동체, 3) 지지공동체가 없어도 당당히 걸어 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워야 한다.

(7) 회복적 학교로 가는 지름길, 벌새 떼의 물 한 방울 연대

그러나 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은, 한 가지 실천과 한 사람을 구하는 일뿐이다. 반면에 우리가 겪고 있는 교육의 문제는 학교뿐 아니라 사회·문화·정치적 문제와 얽혀있다.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노력을 넘어서 연대가 필요하다.

북아메리카에서 전해져 오는 벌새 이야기가 있다. 동물들이 사는 숲속에 불이 났는데 모든 동물들이 도망가고 있지만 새 중에 가장 작은 벌새만이 호수에서 물 한 방울씩 가져와 떨어뜨렸다. 도망가던 동물들이 소용없는 짓을 한다고 비난했지만, 벌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라고 말한다.

교사는 벌새다. 벌새처럼 할 수 있는 최선은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교사들이 벌새가 되어 물 한 방울씩 떨어뜨린다면, 비로소 교육에 난 불을 끌 수 있을 것이다. '벌새 떼의 물 한 방울 연대'가 우리가 원하는 회복적 학교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참고문헌

도나 힉스(2013). 관계를 치유하는 힘, 존엄. 검둥소
케이 프라니스 & 캐롤린 보이스 왓슨 (2018). 서클로 나아가기. 대장간
케이 프라니스(2018). 서클 프로세스. 대장간
손성현(2012). 사회적 감성적 학습. 신학연구 61.
마거릿 소스본 & 페타 블러드 (2017). 회복적 생활교육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에듀니티
Crick & Grotpeter, 한영경 역(2008),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내적 요인, 아주대 석사논문 재인용.
김대군(2013), 관계적 폭력과 소수자 배려 윤리, 윤리교육연구 제32집 한국윤리교육학회.
엘리엇 워셔, 찰스 모즈카우스키(2014). 넘나들며 배우기. 민들레
알피콘(2005). 훈육의 새로운 이해. 시그마프레스.
파커 J. 파머(2013). 가르칠 수 있는 용기. 한문화
박숙영(2014). 회복적 생활교육을 만나다. 좋은교사
이근영, 박숙영, 윤소민, 최보라(2018).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대응 방향 및 실천 과제. 경기도교육연구원.

Ⅱ

학생생활지도 꿀팁!

1. 학년초 학급 운영
2. 학급의 특성에 따른 운영
3. 학년 / 학교 전체 운영

01 학년초 학급 운영

1. 새 학년 첫날, 어색한 교실

학급

네 눈과 귀, 마음에 번역기가 있어!

학생 특성 & 상황

- 대상 : 학급 전체 학생
- 상황 : 새 학년 첫날, 학생들이 등교하기 시작하는 낯선 교실, 교사가 등교하는 학생을 바라보고 일일이 인사를 건네는데 시큰둥하게 대부분 고개만 끄덕이거나 못본 척 지나쳐 자리로 가는 등 어색한 상황

교사 바람

- 평화로운 교실을 위해 소통하기, 상호연결을 위한 공동체 소속감 키우기
-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교사의 자세 보여주기, 전문성 발휘하기, 정서적 안전 제공하기

선택 방법

- 비폭력대화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새 학년이 된 첫 날!
선생님도 학생도 누구는 설렘을, 누구는 두려움을 마음 한 가득 채우고 학교로 온다. 여덟 번째 학교를 옮겼지만 어색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친구처럼 데리고 다녀야 하는 일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늘 그러하듯이 제일 먼저 교실 문을 열고, 불을 환히 밝히고는 아침에 듣기 좋은 잔잔한 명상 음악을 교실 가득 스며들도록 적당한 음량으로 흘려 보내면서 아이들을 기다렸다.

칠판에는 **"반갑습니다." 다섯 글자가 거꾸로** 붙여져 있고, TV 모니터에는 **"마음이 가는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안내**되어 있다. 드디어 교실로 들어서는 아이들이 멋쩍게 인사하는 둥 마는 둥 자리를 찾아 앉았다. 드디어 자리가 채워지고 "첨단 꿈별 1기"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자신이 공동체에 소속되었다고 느낄 때 자존감이 큰다. {남다른 인격클라스 3다 꿈별반}에 소속되기 시작한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지금 현재 {꿈별! 하이 클라스}를 스스로 외치고 있는 아이들과의 그 때 그 대화의 희미한 기억!

"칠판에서 **무엇을 보았나요**?"(관찰)
그것도 모르냐는 듯이 너도나도 손을 든다.
"반갑습니다. 하트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보았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느낌)
소칠판에 미리 붙여둔 자석 느낌카드를 스르륵 뽑아내어 보여주며 유도하였다.
"당황스러웠어요. 어색했어요....."

"**무엇이 필요하고 중요했나요**? 선생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욕구)
"글씨를 똑바로 붙여 주시면 안돼요?"
"네, 표현해 줘서 고마워요. 바로 붙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글씨가 바로 붙는다면 뭐가 좋을까요?"
"이상하지 않을 거 같아요. 더 잘 알 수 있어요.. 더 편해요.....등등."
"네. 훨씬 마음이 편안하겠지요?"

하고는 '반갑습니다(하트)'를 바로 붙였다. 그리고는 부탁을 했다.(부탁)
"앞으로 우리 반에서는 혹시라도 이상한 말을 하거나,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비난하고 화 내기 보다 오늘처럼 올바로 보고 듣는 자신의 힘을 믿기 **바라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번역기가 있어서 거친 말을 듣거나, 미운 행동을 보아도 똑바로 볼 수 있는 커다란 따듯한 심장이 있거든요. **선생님 말 듣고 어때요**?"

"네에~~좋아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한층 밝아지고 살아났었던 기억이 나서 지금도 미소가 흐른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자리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 볼게요."

"마음이 가는 자리에 앉으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앉은 것은 무엇 때문인지 들어볼까요? **분단별로 줄줄이 발표**할게요. 쑥스러운 친구는 패스할 권리가 있어요. '패스'라고 말해 주세요."

이렇게 **돌아가며 말하기**로 아이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된 이유를 들어보면서 자리는 어떻게 앉으면 좋을지 토론도 하고, 선생님이 이름을 외울 동안 번호대로 앉을 것에 대하여 양해를 구한 후 마지막으로는 지금의 **감정을 다섯 손가락으로 표현하기**를 해 보았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안심되고 편안하고 밝은 편이면 5, 중간정도이면 3~4, 아직 어색하고 걱정되고 힘들면 1~2 또는 주먹(0)으로 표현해 보세요. 하나둘셋!"

손가락을 하나 또는 둘로 표현한 친구의 이야기를 먼저 **궁금함으로 다가가 물어**보았다. "손가락을 요렇게 둘로 표현했는데 무엇 때문인지 말해 줄 수 있니? 원하지 않는다면 패스해도 돼."

하였더니 아이는 그날의 기분 상태를 이유와 함께 말을 해 준다. 고마웠다.

"**표현해 줘서 고마워요**."

손가락을 적게 표현한 한 두 친구를 더 들어 보고, 활짝 펼쳐준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과 격려를 선생님의 마음을 담아 표현하고는 소중한 나에 대하여 소개하기 위하여 "너는 어떤 씨앗이니?"그림책으로 자기소개하기 활동을 진행하고 활동지로 마무리하였다.

늘 감사를 표현해 주는 것이 일상인데, 잘못할 때나 더 잘하라고 지적과 강요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에게 **감사 표현 그것은 변화의 시초를 제공하고 아이들 내면에 큰 힘**이 된다. **비폭력대화는 교사인 나 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말의 모습을 바꾸게 했고 나아가 행동을 변화하게 했으며 교실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새 학년 새 학기 거꾸로 환영 인사 부착〉

〈자료모음 Padlet 중 음악 별도 운영〉

교육 후기 & 소감

지난 30여년 동안 지켜지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이들보다 먼저 교실에 가서 불을 밝히고 맞이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원칙을 지키는 데에는 제 아이들을 곁에서 돌봐주던 언니의 도움이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아침 저녁으로 따듯한 환대를 받지 못하는 상처 받은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교실에 들어서는 아이는 따뜻하게 머물다 가라는 의미로 첫 번째 아이가 등교하는 그 순간부터 아침 업무 중단하고 눈 마주치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집에 잘 다녀 왔어요? 집에서 별 일 없었어요? 아픈 건 어때요?"

거꾸로 인사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먼저 인사하고, 학교가 편안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좋다고 합니다. 각자의 마음에, 눈과 귀에 기린말 번역기가 생겼기 때문이지요.

2. 학기초 신뢰의 울타리 학급세우기

학급

삼!박!자의 합을 맞춰 학급 규칙을 세워볼까요?

학생 특성 & 상황

- 학기 초 3월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
- 서로 익숙한 학생들끼리 시끌벅적 이야기를 나누는 학급 또는 어색함에 침묵이 감도는 학급 등

교사 바람

- 신뢰 가득한 학급은 선생님과 학생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생각 갖기
- 학생 스스로 학급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소속감 키우기
- 학생·교사·학부모 삼박자 맞춰 나가기

선택 방법

- 학급긍정훈육법을 바탕으로 미덕 울타리 안에서 우리 반 학급 규칙 만들기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3월은 교사와 학생 모두 긴장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등교하는 학생들과 눈 맞춤하며 우리는 일 년 동안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하는 동고동락한 사이라는 것을 서로 느끼며 인사하고는 합니다.
때로는 같은 6학년을 하더라도 해마다 학생들의 성향과 환경 그리고 교사와의 교감에 따라 학급 분위기가 180도 바뀌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서로 익숙한 학생들끼리 시끌벅적 이야기를 나누는 학급이나 어색함에 침묵이 감도는 학급이더라도 3월 첫걸음 시작의 방향성에 따라 신뢰의 학급이 될 수 있는 열쇠(key)를 얻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되돌아보면, 신규교사 때에는 교사 주도로 우리 반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맞춰 학급 규칙을 정해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처음에는 3월 그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으나 3,4,5월.. 그리고 2학기 되니 "그 규칙 왜 지켜야 하는 건가요?" "우리가 정한 규칙이 아닌데요?" 라는 반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규칙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학생 스스로 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찰나 그 다음 해에는 아이들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보도록 학급 운영의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손으로 학급규칙을 만들어보니,
교사 주도로 만들었던 학급 규칙과 학생 손으로 만든 학급 규칙이 일!맥!상!통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학급긍정훈육법을 바탕으로 미덕 울타리는 세우고 그 안에서 학급규칙을 학생들이 만들어나가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으며,
'큰 틀에서 만들어진 학급규칙을 가정에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 해부터는 학생 스스로 규칙 만들고, 교사도 학급 구성원으로서 도움이 되는 규칙을 추가하며 학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칙을 적어 보내주시면, 학급회의를 통해 규칙을 보완하여 학급을 세웠으며, 지금도 이렇게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뢰의 울타리 학급을 세우기 위해서는 3월이 중요하며, 그 첫 단추를 학생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교사의 도움과 가정의 협조로 함께 꿰어나가고자 합니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신뢰의 울타리 학급세우기 〈미덕 울타리 안에서 학급 규칙 만들기〉

❶

〈우리 반 미덕 울타리 세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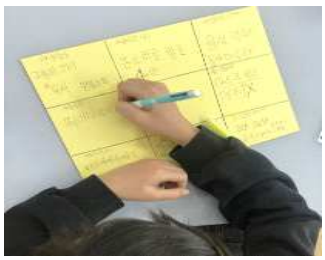
- 우리가 꿈꾸는 반은 어떤 미덕으로 가득 차 있나요?
- 우리 반에 가장 필요한 미덕은 무엇인가요?

육각 씽킹보드 활용

패들렛 활용

〈미덕 울타리 안에서 학급 규칙 만들기〉

브레인스토밍으로 우리가 원하는 미덕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반에 필요한 규칙 떠올리기



교육활동 장소 및 시간을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규칙이 무엇인지 적기

우리 반 친구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규칙 살펴보며, 동의하는 규칙에 하트♥ 달기

❷

- 가장 많은 하트♥가 달린 규칙을 모아 우리 반 학급 규칙으로 정리하기
- 교실에 게시하여 학기 또는 일년동안 규칙 지켜나가기
  - 아래에 학급 구성원 동의 서명
- 학급 규칙을 만드는 과정과 옆의 규칙을 학급안내서로 정리하여 가정에도 발송
  - 학생·교사·학부모 함께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 나눠 수정하고 또는 응원의 메시지 댓글 받기

교육 후기 & 소감

학기 초 학급 운영 활동 속에서 학급을 세우고 다듬는 과정을 통해 교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사 주도로 학급을 운영하였지만, 학급훈육법을 바탕으로 학급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반영된 결과로 학급 규칙을 만들어보니 학생들 스스로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규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학급 규칙을 알림장(학급안내서)을 통해 발송하고 가정에서의 협조도 부탁드리며 학생·교사·학부모 삼박자를 합을 맞춰가는데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3. 학기초 평화로운 학급 만들기

학급

격려하는 말로 평화로운 학급 만들어요

학생 특성 & 상황

- 대상 : 학급 전체 학생
- 상황 : 학기 초 학생들끼리 친해지면서 점점 장난스러운 말, 유튜브에 나온 은어, 비속어들을 쓰기 시작함. 그리고 서로 외모 관련 비하 및 비난하는 말을 하는 상황.

교사 바람

- 교실 안에서 학생들 간에 비난, 폭력이 없고 서로 격려하는 말을 자주 쓰는 반 만들기
- 매일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사하기, 매주 학급 회의를 통해 서로 마음 나누기

선택 방법

- 학급긍정훈육법(격려하기, 학급 긍정회의 열기)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처음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친구들끼리 어색함이 풀리고 점점 장난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인사를 하지도 않고 들어오는 아이, 친구들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는 아이들도 보인다. 오늘은 인사의 중요성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애들아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학기 초에 어떤 자세로 인사하는지 보고 여러분들의 처음 이미지를 결정한단다" 오늘 보니 "점점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지 않고 교실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매일 아침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리고 나는 칠판에 5H라고 쓰고 아이들에게 5H가 무엇인지 추측해보게 한다. 그것은 바로 Hello(안녕?), How are you(잘 지냈어?), Hi-five(하이파이브), Handshake(악수), Hug(포옹)이다.

매일 아침 5가지 중에 인사하는 방법을 골라서 선생님 친구들에게 인사하도록 한다. 그 후로 빠짐없이 나는 아이들과 인사를 나눈다. 그리고 모둠 친구들한테 인사를 하며 서로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

"오늘은 서로 인사를 하면서 격려하는 말을 해보자." 우리 교실 게시판 곳곳에는 격려하는 말이 부착되어 있다.

격려하는 말 예시 : 만나서 반가워, 사랑합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아름다운 사람이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괜찮아, 앞으로 더 좋아질거야 등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누며 격려하는 말을 한다. 서로 웃음을 지으며 자칫 피곤할 수 있는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한다.

"오늘은 격려의 말 카드를 무작위로 나누어줄 테니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이 뽑은 격려의 말을 해줍시다". 아이들은 카드 뽑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한다. 격려의 말이 담긴 카드를 구입하여 뽑게 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준다. 격려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기쁘게 해주는 힘이 있다. 그래서 반 분위기가 더욱 좋아진다.

그러나 학급살이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하게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 때 나는 학급회의를 열고 반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안건을 받고 브레인스토밍을 거쳐 해결방안을 함께 세우는 과정을 가르쳤다. **학급긍정훈육법에서 제시된 학급회의 과정 중 마음 나누기 과정을 거치면 회의 전 따뜻한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마음 나누기 과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학급 회의 하기 전 ㄷ자 모양으로 책상을 배치해주세요." "이번 주 월요일~금요일 동안 학급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고마운 점, 미안한 점, 격려의 말을 생각해주세요. 아까 교실놀이에서 이긴 OO이부터 돌아가며 말해주세요. 패스는 1번만 할 수 있어요."

"저는 OO이에게 고맙습니다. 제가 지우개가 없을 때 흔쾌히 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OO에게 미안합니다. 오늘 아침에 학교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제가 늦어서 같이 못가주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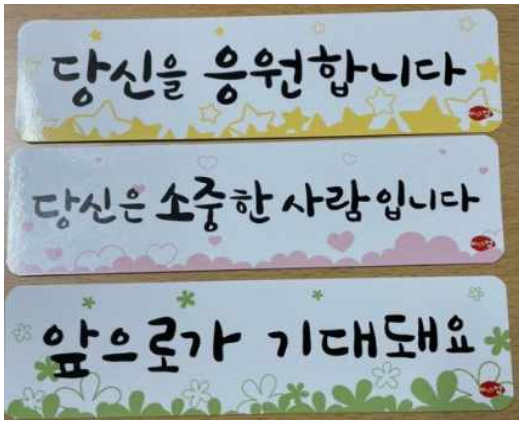
"저는 OO이를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단원평가 공부를 열심히 해온걸 보았기 때문에 다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하지만 계속 연습을 시키고, 교사가 끝까지 들어주려고 노력하면 말을 또박또박 잘하게 된다.

위와 같이 나는 격려의 말 서로 해주기, 인사하기, 학급회의 전 마음나누기를 학급에서 실천하여 평화로운 학급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격려의 말 배너〉
학토재 사이트 : 마인드업 배너 검색



〈격려의 말 카드〉
학토재 사이트 : 마인드업 카드 검색

〈학급긍정회의 과정 중 마음 나누기 활동〉
서로 돌아가면서 친구들에게 고마운 점, 미안한 점, 격려의 말을 합니다.

교육 후기 & 소감

학급에서 대부분의 갈등 상황은 친구들끼리 비난하는 말과 행동에 의해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많아지면 제대로된 배움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감시와 비난을 하게 됩니다. 학급긍정훈육법에 따라 친구들에게 격려하는 말을 서로 자연스럽게 해 주도록 하니 학급에서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식으로, 가식적으로 격려를 하면 어쩌지하면서 말입니다. 교사가 처음 분위기를 잘 잡아주시면 아이들 스스로 격려를 합니다. 격려를 받았을 때의 기쁨을 서로 알게 되면서부터 말이죠.

주1회 학급회의를 통해 마음 나누기 활동을 꼭 열어보시길 추천합니다. 평소 교사가 몰랐던 아이들끼리의 상황을 알 수 있고, 친구들에게 격려를 듣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을 보고 흐뭇해 할 것입니다. 학급 분위기를 바꾸는 '격려' 꼭 실천해보세요^^

4. 학기 초 자존감 서로 높여주기

학급

마음의 모포덮기 활동으로 자존감 높이기

학생 특성 & 상황

- 대상 : 학급 전체 학생
- 상황 : 학기 초 학생들 간 서로 익숙하지 않는 상황, 서로 갈등이 생기기 전 이기 때문에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는 상태임.

교사 바람

- 친구들의 이름을 알기도 전에 먼저 친구에게 칭찬을 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임
-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칭찬을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음

선택 방법

- "넌 소중한 사람이야 네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해 주는 감정 모포덮기 활동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학기 초 서먹서먹한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칭찬할 거리가 많이 없는 상태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모포덮기 활동의 취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원래 모포덮기 활동은 희망하는 학생이 한꺼번에 나와서 한 친구를 칭찬하는 것인데 학급당 학생 수가 많고 학생들의 차분하고 안정적인 지도를 위해서 한 명 씩 나와서 칭찬하는 방법으로 변형하였습니다. 만약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 이하일 경우 희망하는 학생이 모두 한꺼번에 나와서 칭찬하는 방법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모포덮기 취지 안내 : 여러분은 모두 '사람' 이기 때문에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키의 크기나 얼굴의 생김새 지식의 깊이 등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 만으로도 존중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를 칭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보람을 느끼며 칭찬받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칭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조건을 모두 내려놓고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칠판에 예시를 적어두겠습니다. 이걸 보고 한 가지 골라서 친구에게 진심으로 눈을 바라보며 칭찬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 :
1. 넌 소중한 사람이야.
2. 네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3. 네가 우리 반 친구가 되어서 좋아.
4. 넌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여러분은 모두 칭찬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선생님이 지명하는 학생부터 앞으로 나와 칠판 앞에 있는 의자에 앉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의자에 앉은 친구 앞에 한 줄로 서서 칭찬의 말을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단 주의점이 있는데요. 친구에게 칭찬을 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진심이 전달되지 않으므로 눈을 꼭 마주보고 말해주고 진심이 전달될 수 있는 말투로 말해주세요. 장난으로 말하면 오히려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칭찬하기가 끝나면 칭찬받은 사람은 친구들에게 소감이나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 이하일 경우 칭찬 받는 학생을 희망학생 순으로 받고 칭찬 하는 학생 또한 순서와 상관없이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한꺼번에 나와서 친구를 칭찬해 주도록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이 칭찬을 해 주는 것도 칭찬받는 학생에게 더 좋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요하지 않고 자발성을 강조하되 먼저 용기를 낸 친구들에게 교사가 무한한 칭찬을 해 준다면 학생들이 하나 둘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처음 보는 친구에게 칭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칭찬 받는 학생도 부끄러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다른 친구들에게 먼저 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 활동이 아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한 다음 나중에 부끄러워 했던 친구들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학생의 경우 칭찬의 경험을 처음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로부터 칭찬을 처음 받아봤다고 말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렇게 누구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다는 이 활동의 장점에 대해 반 친구들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교육 후기 & 소감

매년 학기 초에 이 활동을 5년 째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았고 부끄러워하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친구들을 칭찬해주기 싫다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나중에 그 친구가 칭찬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의 예상과는 달리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를 칭찬해주러 나왔고 그 친구는 고마워서 그런지 그 다음 부터는 모든 다른 친구들을 칭찬해줬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칭찬을 받고 나서 갑자기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걱정되서 무슨일 때문에 우느냐고 물어봤더니 그친구 말이 자신은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로부터 칭찬받은게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물론 그 학생은 1년 내 친구들과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켰고 연말에는 짧게나마 가출소동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친구의 평생 기억속에 많은 친구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경험을 심어주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5. 서먹서먹 낯선 학기 초 신뢰서클

학급

서로 다른 내가 만나서 어울림

학생 특성 & 상황

- 대상 : 학급 전체 학생
- 상황 : 새 학년 첫날, 같은 반으로 처음 만나서 낯설고 기대감이 있는 교실,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학생들이 한 교실에 모여서 함께 한해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작의 상황

교사 바람

- 함께 배려하고 이해하는 진정한 사랑이 있는 교실을 만들고 싶음
-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어울러지면 더 좋은 상황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싶음.
-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실이 되기를 바람.

선택 방법

- 회복적서클(신뢰)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새 학년이 되고 처음 낯선 교실에 들어서는 아이들을 한명 한명 눈을 마주치고 "안녕 반가워." 인사를 하고 자리로 안내해주었다. 모든 아이들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다같이 인사를 시작했다.

칠판에 인성덕목 카드를 제시해 두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하나하나 읽어보았다. 그중 이번달에 인사로 선정할 카드 3장을 3번의 거수권을 주어 결정했다. 처음 결정된 덕목은 존중, 배려, 경청이었다. 여기에 선생님과 가위바위보로 인사를 하고 이기면 존중, 비기면 배려, 지면 경청하겠습니다를 했다. 아침인사는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통해 변경하기로 약속했다.

학교 행사로 간단히 시업식을 화면으로 진행했다. 잠시 흐름이 끊겼지만 아이들과 어울림에 대한 서클을 구상했기에 잠시 책상을 밀고 의자만 원으로 만들고 앉았다.

본격적으로 원을 그리고 서클을 시작했다. 원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이미 궁금해 했다. 서클에 대해 간단한 규칙을 이야기 했다. 토킹스틱이 있는 친구만 이야기 할 수 있으며 비난하지 않기를 약속했다.

- 체크인 : 간단하게 오늘 아침 기분, 자기소개를 했다.

기분에 대해 제법 잘 표현하는 아이들이 대견하였으며 첫느낌이 좋았다. 자신의 차례에 유달리 말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보인 반면 자기말만 길게 하려는 친구도 눈에 들어왔다. 어울림교육 하기에 딱인 상태라고 생각됐다.

자기소개와 함께 새학년이 되어서 선생님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이있는지 이야기 하였다.

체크인으로 간단한 기분과 욕구를 나누었으니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야 했다.

- 동화책 읽어주기

그림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길아저씨 손아저씨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이야기를 읽고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두 아저씨가 가진 불편함은 무엇이었나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우리도 함께 0반으로 이렇게 1년을 지냈으면 좋겠어요."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 장점 찾기

"길아저씨 손아저씨처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좋은 장점이 하나씩은 있어요. 각자 자신이 우리반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있을까요? 또한 자신이 부족해서 나른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장점 단점 퍼즐이라고 합니다. 각자 자신의 퍼즐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맞춰 볼까요?"
아이들이 자신을 나타내는 퍼즐 한조각을 색연필을 이용하여 꾸미는 시간을 제공한다. 학급 전체 퍼즐을 완성하고 소감을 나눈다.
"서로 다른 친구들의 장점과 단점을 알 수 있었어요."라는 아이의 이야기에 더 해서 "그래서 길아저씨 손아저씨처럼 서로 도울 수 있어요."

- **체크아웃**

오늘 나눈 활동들에 대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활동과 느낌을 나눠주세요." "퍼즐 맞추면서 서로 장점 단점을 알 수 있었어요." 등 서로 다른 우리 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1년을 지내야 한다. 그래서 서로 좋은 점을 찾고 부족한 점은 도와주며 지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길아저씨 손아저씨』 권정생 글, 국민서관

체크인 감정나누기(이미지 프리즘, 학토재)

어울림퍼즐 파일
(『그림책으로 회복하는 회복적 생활교육』, 황진희, 교육과실천)

그림책으로 회복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에 나온 사례를 각 학급에 맞게 적용해 보는 것이 학생 생활지도에 유용합니다.

교육 후기 & 소감

첫 시작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교사에게 3월 2일은 그 해 농사를 판가름하는 씨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것입니다. 매일 매일 강조하고 약속들을 만들어가야 하지만 첫 기억이 중요한 만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돕기를 약속하는 신뢰서클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만들어가는 중이지만 그래도 처음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면서 서로 다르니까 서로 도와야 한다는 예쁜 사랑나누미반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비록 온전한 회복적 서클의 형태는 아니지만 신뢰쌓기를 위해 그림책을 이용한 활동은 의미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른 덕목에 관련된 그림책을 직접 교사의 육성으로 읽어주는 독서교육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6. 학기초 생활지도가 필요한 상황

학급

학교(학급) 규칙 준수 선언 및 서약식

학생 특성 & 상황

- 학생 특성 : 학급 또는 학교 전체 학생
- 상황 : 학기 초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필요한 상황

교사 바람

- 규칙 준수, 책임 의식

선택 방법

- 규칙 준수 선언 및 서약식, 규칙 만들기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학생 자치회의 역할은 때로는 교사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할 때가 있다.

학기 초,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규칙 준수 선언 및 서약식을 하였다. 학생회장이 학생 생활 규범 중 중요 사항과 변경된 사항을 설명하였다. 학생들은 본인들과 관련된 사항이라 매우 자세히 들었으며 관심도도 매우 높았다. 규칙 준수 선언을 따라 하고 서약식을 하자 매우 진지한 태도로 임했으며 학교 규칙을 게시하여 학생들이 관련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식적인 서약식은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게 인식되었다. 학생 생활 규범이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만들어짐을 이해한 학생들은 학교나 교사의 일방적 규칙이 아닌 학생 스스로 정비한 학교 규칙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고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규칙을 지키지 않은 학생을 제재할 때도 학교생활 규범을 이야기하였으며 교사들도 생활지도 시에 학교생활 규범을 공유할 수 있어 정당함을 바탕으로 한 생활지도가 가능하였다.

이러한 규칙 정하기를 통한 방법은 학급 생활지도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학교생활 규범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 반의 특성을 고려한 우리 반 학급 생활 규범을 만들고 학생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였다. 학급 스스로 정한 규칙이라 학생들이 더 잘 따르고 문제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하였다. 우리 모두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자부심과 더불어 우리 반의 특성을 고려하였기에 규칙들이 학급 생활지도에 최적화 되어 있었다. 물론 문제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거나 새로운 상황에 대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학급 회의를 통해 규칙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였다. 문제 상황에 대한 규칙이 만들어졌음에도 반복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면 다른 해결 방법으로 규칙을 정하였다. 교사는 이 과정에서 자문위원으로의 역할을 하여 회의가 졸속하게 처리되거나 허무맹랑한 규칙들이 난무하지 않도록 중재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했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대화와 타협, 존중과 배려의 생활지도를 지원해야 한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생각 1. 학급 회의를 통한 학급 규칙 지키기를 위해서는 학급 회의와 민주시민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 학급 회의의 과정과 의견 제시의 방법에 대해 미리 학습하여야 하므로 고학년 학생들에게 적합한 방법이다.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교사의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 학생들의 동의를 끌어내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선택한 일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민주시민 교육이 동반된다면 학급 규칙은 구성원들의 동의 속에서 잘 이행될 것이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생각 2. 학생들은 의견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집중하여 마치 모든 의견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학급 규칙은 개인의 문제보다는 학급 전체의 문제(학급 학생들의 몸과 마음의 안전, 무질서로 인한 혼란 방지 등)와 관련지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개인적 관계를 학급 규칙으로 끌어들여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편협한 규칙을 만들지 않도록 규칙을 만들 때 왜 그 규칙이 필요하며 전체를 위한 것인지 생각하도록 지도한다.

생각 3. 학급 규칙을 정하기 전에 회복적 정의에 관해 설명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학생들이 학교 규칙을 만들 때 잘못한 학생을 벌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큰 벌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회복적 정의는 피해가 복구되는 것에 목표를 가진다. 벌을 주는 것은 피해를 준 행동에 대한 반성보다는 억울함과 반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규칙을 정할 때 피해를 준 해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한다. 자기 행동이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깨닫고 문제 상황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는 과정이 선행하였을 때 실천할 수 있는 규칙들이 만들어졌다.

생각 4. 교사는 이 과정에서 교사가 자문위원으로 의견을 낼 수 있으며 학급 회의가 과열되거나 존중과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회의를 중단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학급은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니다. 교사도 역시 학급의 공동체이며 학생을 바르게 안내하는 생활 지도자이다.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주지만, 학생들이 서투르고 거칠게 자율성을 발휘할 때는 이를 정당하게 제지할 수 있는 존재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교육 후기 & 소감

몇 년간 민주시민교육과 더불어 학생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학생자치회의 긍정적 효과가 드러나고 학생의 자율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학생자치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학생들은 회의도 낯설고 문제 상황을 인식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생 자치를 통한 효과적 생활지도가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교사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일 것이다. 교사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7. 우리반 아이들과의 첫 만남

학급

만나서 반가워, 너를 알고싶어!

학생 특성 & 상황

- 학생 특성 : 새로운 학년을 맞이한 학급 구성원들. 오며 가며 마주치기는 했지만 서로가 어색한 모습들.
- 상황 : 새로운 학년을 맞이한 우리 아이들과의 첫 만남. 너희도 어색하지? 사실 나도 그래..

교사 바람

- 학급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 호기심 유도
- 학급 구성원에 대한 이해 높이기

선택 방법

- 서클, 호기심 마인드맵을 통한 구성원 알기

소! 확! 행! 생활교육 스토리

학급을 시작하는 첫날.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한다. 두근거림이 어느 쪽인지는 만나봐야 알겠지. 아침 조회와 담임 시간으로 구성된 1교시. 어떤 만남을 준비해야 할까? 학급에서 이루어져야 할 혹은 구성해야 하는 학급회 조직은 매년 하는 것이라 익숙해졌지만 새로운 1년을 함께 보낼 아이들과의 시작은 늘 긴장이 된다. 처음을 잘 시작하고 싶은 욕심은 담임을 맡는 교사라면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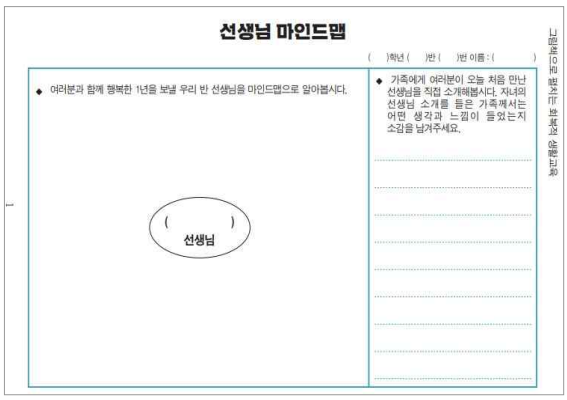
언젠가부터 일방적인 나의 소개와 학교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학기의 시작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형식적인 시작 말고 진짜로 학기 초에 필요한 활동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일 년을 함께 보낼 학급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다. 또한 우리 개개인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로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생활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상호간의 이해라고 생각하기에 이해를 위한 사전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이해하는데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사로잡혔다. '이해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이해는 누군가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하는 생각과 함께 호기심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첫 만남을 준비하며 떠올리게 된 것이 회복적 서클이었다. 책상을 모두 빼버리고 의자만 가지고 동그랗게 모여 앉는 형태를 빌려왔다. 원으로 둘러앉으면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보이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는데 효과적이고 서로의 표정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어색한 상황에서 책상 없이 앉아있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다 보니 아이들도 참을성 있게 상황을 받아들여 주었다. 거기에 더한 것이 개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혹은 친구에 대한 호기심을 보여주는 활동이었다.

우리 아이들에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게 하는 힘이 있다.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호기심 넘치는 이해의 시작을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은 서툴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이해해보려고 한다. 처음부터 능숙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작을 준비하는 나도 능숙하지 않을 테지만 이런 나를 이해해줄 아이들을 위해서! 모두를 이해할 순 없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일 테니까!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출처 : 그림책으로 펼치는 회복적 생활교육

Tip 1. 교사에 관한 선생님 마인드맵을 먼저 진행하여 룰을 익힐 수 있게 해주세요.
(저의 경우, 선생님 마인드맵을 통하여 학생들이 가정에서 선생님에 대해 설명할 수도 있어 학부모 상담 시 아이스브레이킹으로도 유용했습니다.)

Tip 2. 우리 반 마인드맵을 시작할때는 위의 양식을 변형하여 사용했습니다.
(가족에게 소개하기 대신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등으로 바꾸었습니다.)

Tip 3. 학기 초에 시간이 있다면 한 시간에 여러 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충분한 시간이 없다면 하루 한 명, 아침 조회 시간을 이용하여 학급 구성원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아이들도, 저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종례의 생명은 Speed! 빠를수록 좋습니다..)

Tip 4. 불편한 질문은 패스하되,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 또는 관심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Tip 5. 학급 구성원 모두에 대한 마인드맵이 완성되었을 때,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게시했습니다.(우려와 달리 게시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교육 후기 & 소감

처음은 늘 어색하지만 서투름이 주는 무언의 유대감과 관대함이 있다. (나만 어색하진 않을 것이라는!, 처음이라 그래!) 제일 먼저 내가 나서본다. 처음엔 늘 '샘! 남자친구 있어요?', '몇 살이세요?' 등의 신상을 캐는 질문을 해왔다. 이러한 질문은 가볍게 다른 질문으로 유도했다.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 생각보다 빠르게 어색함을 털어버릴 수 있었다. 먼저 제물이 되어서였을까?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로 전이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들에 대한 마인드맵을 뒤에다가 전시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직 친구에 대한 정보가 익숙하지 않으니 보면서 그 친구를 생각하고 싶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조회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인드맵이 완성되면 뒤에 가지런히 게시해두었다. 학급 아이들은 쉬는 시간 종종 게시물을 자세히 보며 우리반 구성원에 대한 호기심을 이해로 바꾸어 나가고 있었다. 간혹 생기는 오해들에 '△△는 축구를 한 경험이 있어서 축구 규칙을 잘 알아'라는 식의 누군가를 대변하는 일도 하는 아이들이 생겨났다.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가는 변화들을 보며 오늘도 긍정적인 학급을 꿈꿔본다.

02 학급의 특성에 따른 운영

■ 초등학교

1. 자폐 학생이 학급에 있을 때

학급

우리와 다른 친구의 다름을 인정해주기

학생 특성 & 상황

- 학생 특성 : 같은 말과 행동을 반복하고 전담시간 및 다른 선생님과의 수업시간에 적응을 못함. 영어, 수학 및 주요 과목 시간에만 교실에 있고 다른 시간은 특수학급에 내려가서 수업함. 작년 담임 선생님을 발로 차고 때리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함.
- 상황 : 전담시간이라 자리를 비운 사이 쉬는 시간이 되어 교무실에 내려갔는데 교사 책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닥으로 던지고 학급 친구들과 싸움이 벌어진 상황, 옆 반 남자, 여자 선생님께서 이 학생을 교실에서 말리고 있는 상황

교사 바람

- 수업시간 이상한 말과 행동하지 않기
- 친구들과 부딪혀서 충돌되는 상황 만들지 않기
- 선생님을 때리지 않기

선택 방법

- '보이지 않는 아이' 그림책 활용,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학급의 한 친구로 대해주기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전교에 난폭한 행동으로 모두가 아는 △△이, 한 학년에 9개 반이나 있는 상황에서 △△이 반을 뽑게 된 나, 이걸 어쩌나 난감한 상황이었다. 새 학기 시작 전, 전체 교사가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작년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이가 어떤 친구인지, 제가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 여쭤보았는데 돌아온 대답은 너무 황당하였다. "선생님이 직접 경험해 보세요." 나보다 선배 선생님이셨는데 주의할 점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밖에 이야기를 못 해 주시지 많이 아쉬운 마음이었다. 그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찾으러 다녔다. 전담시간으로 학년 협의실에 있으면 쉬는 시간 어김없이 찾아왔다. 아이의 모습이나 행동이 좋지 않았기에 △△이가 자주 찾아오는 게 싫으셨는지, 어느 날 동학년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급적 ○○○ 선생님은 학년 협의실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상처 되는 이야기였다. 동학년이었다면 누구든 이 아이의 담임이 될 수 있는 데 힘든 상황을 서로 보듬고 이해해주기보다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그 분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거의 나의 교실에서만 생활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전담시간이라 다른 곳에 있다가 쉬는 시간 교무실에 내려간 사이, 일이 터지고 말았다. 다른 때보다 조금 늦게 교실에 들어갔더니 내 책상 위에 있던 모든 물건들은 바닥에 다 던져져 있고, △△이는 난리를 치고 있고, 옆에 반 두 분의 선생님이 △△이를 잡고 말리는 상황이었다. 너무나 희한한 상황은 나를 본 △△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에게 와서 "사탕 주세요."라고 말하고는 사탕을 받고는 특수학급으로 내려갔다.

아이들과 상황을 확인해보니, △△이가 선생님 책상을 뒤지고 있어서 안경 쓴 남자 친구가 선생님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경 쓴 친구의 눈을 바로 주먹으로 친 것이다. 아주 얌전하고 말

소! 확!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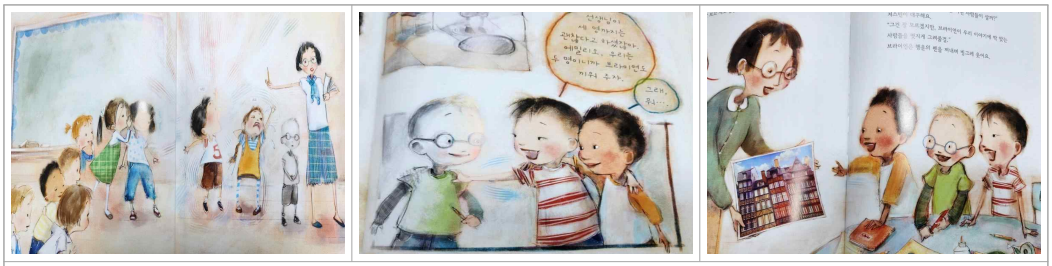
생활 교육 스토리

없는 조용한 친구였는데 안경 쓴 친구가 눈을 맞다 보니 이 친구도 △△이를 방어한 것이다. 둘이 치고받고 하니 친구들은 말리려고 달려들었고 △△이는 말리려는 친구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해 교사 책상 위에 있는 물건들을 이 친구들에게 던지고 교실은 난리가 난 상황이 되었다. 결국, 교실에 남아있던 학생들은 도움을 청하러 옆에 반 선생님을 부르고 남자 선생님이 계셔도 제지되지 않았던 △△이의 행동이 담임 선생님인 나를 보고 행동을 멈춘 것이다. 아이의 목적은 '사탕'이었다. 사탕을 먹고 싶었던 △△이는 사탕을 찾기 위해 내 책상을 뒤진 것이고, 아이의 목적을 모르는 다른 친구는 이 행동을 말리다가 큰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자폐아동의 특징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해결이 된다. △△이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아이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나의 노력을 알아주었는지 내가 담임을 한 1년 동안은 담임 선생님을 때리거나 발로 차고 무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학급 친구들의 마찰은 계속되고 아이들과 부모님은 자기 자녀가 다른 반으로 가기를 원하셨다.(그건 사실 불가능한 것인데도 자꾸 원하셨다.)

결국, 특수학급 선생님이 투입되셨다. 어떻게 하면 △△와 우리 반 친구들이 지금보다 잘 지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학급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셨다. 방법은 △△이에게 학급의 한 임무를 주는 것이었다. 친구들과 잘 지내면 그 임무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임무를 다른 친구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는 컴퓨터 관련 학급 홈페이지에 관심이 많았다. 우리 반 학급 홈페이지 관리자가 되어 여러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문제 행동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보이지 않는 아이' 그림책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각자의 능력과 재능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잘 드러나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학급에는 더 많이 있다. '보이지 않는 아이' 그림책에서 브라이언은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친구이다. 그래서 책 처음에는 흑백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그런 브라이언이 저스틴이라는 친구를 사귀며 점차 자신의 색을 찾게 되는 자존감을 느끼게 되는 내용이다.

우리 반 친구들도 처음에는 △△이를 우리와 같은 친구로 바라봐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는 더욱 외로웠던 것 같다. 본인의 마음을 몰라주고 피하려고만 하는 아이들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건 이상한 말고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학급의 한 친구로 바라봐주고 학급에 있어 나도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면서 조금씩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우리 학급에서 흑백이었던 △△이도 조금씩 자신의 색을 입게 되어 나중에는 컬러의 모습으로 학급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교육 후기 & 소감

처음에 아이들은 자폐 아동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상한 아이로만 바라보았다. 학급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와 모습과 행동이 다른 △△이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학급에서 가장 예쁘고 얌전한 여학생과 짝이 되었는데 △△이는 그 여학생에게 잘 보이고 싶어 잘하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다. 그 예쁜 여학생과 짝이 된 동안에는 아주 참한 남자 친구로 잘 지냈다. △△이에게 학급의 한 구성원으로서 뭔가 자신의 역할을 부여해주니 그 임무를 잘 해내려고 애썼고 예쁜 여학생으로 인해 더 열심히 생활하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의 장점을 찾고 학급에서 자신의 역할을 통해 뭔가 본인도 만족감과 즐거움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웃픈 이야기이지만 1년 동안 한 번도 선생님을 때리지 않은 유일한 한 해였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2. 중증장애 학생이 포함된 통합학급

학급

생태전환교육을 통한 배움의 장 넓히기

학생 특성 & 상황

- 학급 특성 : 통합학급
- 상황 : 중증장애 특수학생 1명, 수업 시간에 비명에 가까운 큰 소리와 잦은 울음에 수업 진행이 어려울 때가 많음. 약 부작용 탓인지 공격성도 높아지고 있음

교사 바람

- 학생 모두의 학습권이 존중받는 것, 개인으로만 살아갈 수 없고 생명이 있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기

선택 방법

- 생태전환교육, 연결게임 등의 놀이 활동

소! 확! 행! 생활교육 스토리

통합학급을 맡으면 내가 ★이에게 무슨 도움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늘 고민한다.

이번 ★이는 공격성이 있는 편이다. 내 안경이 멀리 날아간 적도 있다. 1,2교시는 특수학급에서 공부를 하고 3교시에 우리 교실에 온다. ★이가 오기 전, ★이를 자극할 만한 것이 있는 건 아닌지 빠르게 교실을 스캔한다. 수업 시간에 엉뚱한 말을 큰 목소리로 반복하는 것은 나와 아이들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간혹 울음이 터지면 교실 바닥을 구르거나 눕기도 해서 난감할 때가 종종 있다. 어느 날은 약 부작용 때문인지 봉사자 선생님을 깨문 적이 있어 그 다음 번 깨물려는 동작할 때 내가 ★이 어깨를 잡았더니 그대로 나에게 달려들어 내 입을 깨물었다.

★이의 울음이 심하게 터진 어느 날, 친구들 몇 명은 귀를 막았다. 우리는 모두 멈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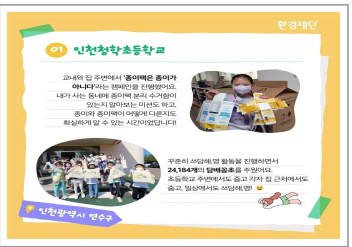
그 날은 도저히 통제가 안 되어 특수학급 선생님이 ★이를 번쩍 안아서 데리고 가셨다.

뜬금없는 이야기 전개지만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나는 '생태전환교육'에 진심이 되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녹색 안경'을 쓰기만 해도 성공이라는 생각에 우리 교실에서는 물티슈가 아닌 손수건 사용하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활용한 만들기 활동은 다른 수업으로 재구성하는 등 제로웨이스트 수업에 열심이었다. 그렇게 3년 정도를 생태전환교육에 빠져 있으면서 제일 먼저 변한 것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살아 있는 모든 생명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 "나는 우리다"라는 남아프리카의 '우분투 정신'! 우분투 정신이란 우리의 삶은 혼자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남의 불행은 결국 나의 불행이 되고 남의 행복은 결국 나의 행복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에게로 돌아오면, ★이의 어머니께서는 ★이가 특수학급에서 두 시간을 보내고 우리 교실에 들어왔을 때에도 국어 수학 등 기초교과 학습이 이루어지길 원하셨다. 조심스럽게 ★ 어머님께 말씀드렸다. 이 교실에서는 국어와 수학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배우게 될 거라고. (물론 국어와 수학도 가르쳤다!) ★는 친구들과 함께 달리기를 했고 , 근처 공원에서 숲체험을 했으며 커피 가루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샴푸바를 만들며 즐거워했다.

그리고 ★ 뿐 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변화가 있었다. ★가 울음이 터지면 조심스레 다가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내민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table>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시스템사고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플레이북〉을 읽고 다양한 놀이 활동을 했다. 사진은 '연결게임'</td>
<td>트리플 A형인 내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목소리를 낼 줄이야. 반 아이들이 '대박!'이라고 외쳤던 일화.</td>
<td>전교학생회 담당인 인성부장님이 함께 하자며 진행했던 쓰담해, 영! 학생회가 함께 하니 시너지 업!</td>
</tr>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인천시교육청 기후위기 대응 교사실천단 겸 가족실천단 활동</td>
<td>"선생님, 우리가 나무 몇 그루 살린 거예요?" 뭉클한 아이의 말.</td>
<td>옷 쓰레기 강 동영상을 보고 더 열심이었던 옷 되살림 운동</td>
</tr>
</table>

★이는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정서 표현을 다듬고 부정적 감정도 새로운 상황에 맞게 다루어 갔다. 그 과정에서 ★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제일 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생태전환교육'이 있었다. 현재는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생.꿈.시** – **생**태전환을 **꿈**꾸는 교사들의 **시**선〉을 통해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더 깊~이 생태전환교육에 대해 알아가고 있다.

교육 후기 & 소감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대로 피어도
이름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물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나와 다른 친구를 이해하고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
이런 능력은 어릴 때부터 '생명이 있는' 자연을 통해
제일 먼저 배울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오늘 날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훨씬 많아진 이유를
'망가진 생태계'에서 찾는 이들도 많다.

지금 내가 밟고 있는 흙과 풀, 그 안에서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돌봄'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들은 결코 친구를 때릴 수 없다. 밟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고 세계 곳곳에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아이들은 알기 때문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목소리는 낼 수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다.

3. 다문화 학생이 포함된 학급

학급

저학년 맞춤형 성품수업(feat. 다문화 학생)

학생 특성 & 상황

- 학급 특성 : 1학년 20명 중 다문화 학생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3명, 한글 미해득 학생 1명을 포함한 통합학급
- 상황 : 다문화 학생 1명과 다른 학생들과의 갈등이 3월부터 지속되던 상황, 3학년 담임일 때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했던 〈미덕 수업〉이 1학년에게는 적용이 쉽지 않았음.

교사 바람

- 학생들과 함께 학급 '규칙'이 아닌 '약속'을 세우고 (이를 '학급 울타리'라고 표현) 울타리가 튼튼히 지켜지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을 때의 유익을 경험하길 바람.
- 비폭력 대화를 꾸준히 연습하며 말의 변화가 가져오는 마음의 연결을 느끼길 바람.

선택 방법

- 비폭력 대화, 성품 수업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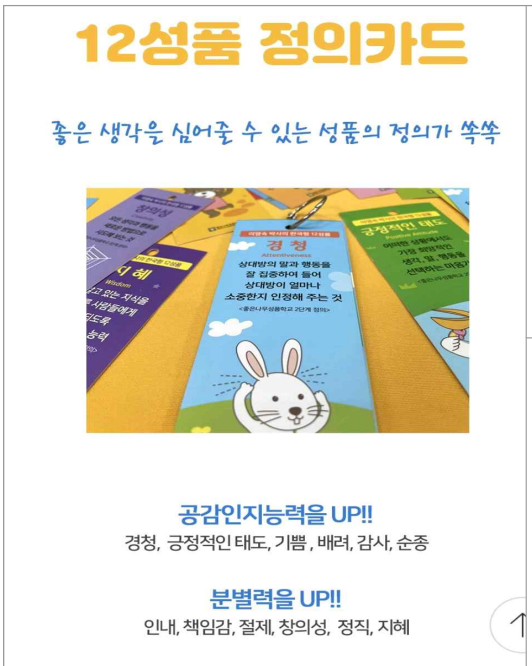
1학년을 연속으로 2년을 맡게 된 해, 아이들을 맞이하기 전 고민을 한 것이 바로 미덕 수업이었다. 3학년 담임일 때 아이들과 비폭력 대화를 연습하고 52개 미덕 수업을 하면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었다. 1학년 학생들과도 미덕 수업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기존 자료로는 1학년에게 적용이 쉽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학토재에서 나온 씨앗덕목 자석카드(35개)를 활용하여 학급 울타리를 세우는 과정을 거쳤고 (아래 예시 사진) 다음 해에도 1학년을 맡게 됐을 때 이 소중한 가치 덕목들을 아이들 삶에 어떻게 더 잘 녹여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것이다.

<table>
<tr>
<td>2. 오늘 아이들과 <학급 울타리 세우기> 활동을 하였어요. 우리 학급이 평화롭기 위해 필요한 약속들을 각자 1가지씩 이야기 해 보았답니다. 다 적은 후 이 내용들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보았어요.
1) 친구의 몸을 아프게 하지 않기
2) 교실, 복도, 급식실에서 걸어다니기
3) 내 물건과 친구 물건 소중히 여기기
4)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 구별하기

내일은 이 약속들과 관련된 미덕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 학급 울타리 세우려고 합니다. ^^
아래 내용은 아이들이 모두 발표한 내용이예요 ^^</td>
<td>2. 오늘 어제에 이어 아이들과 <학급 울타리 세우기> 활동을 하였어요.
삼각 이름표를 만들고 뒷 면에 미덕 2가지를 적어보았습니다.
절제: 내 마음과 행동을 조절하는 것
배려: 친구와 선생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
가정에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봐주세요~ ^^</td>
</tr>
<tr>
<td colspan="2">* 1학년 학생들과 미덕 수업을 했던 첫 해의 알림장 내용
'규칙'은 약속보다 강제성이 있어 처벌과 연결되지만, '약속'은 양심(내 마음 속 CCTV)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비폭력 대화 (부탁을 통한 마음의 연결) 연습에 효과적이다.</td>
</tr>
</table>

그러던 중 5년 전 들었던 연수 〈이영숙 박사님의 한국형 12성품 교육〉이 생각나면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았다. 저학년에게 친숙한 용어로 성품 가치(딱 12개!)들에 대해 정의했을 뿐 아니라 (연령과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정의 중 선택) 노래와 동화, 챈트 등 다양한 동영상과 수업 자료들이 있어 실제 1학년 학생들과 성품 교육을 진행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즐거워했다!! 학급 내 다문화 학생들도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노래와 챈트를 통해 성품교육에 소외되지 않는 것도 큰 장점이었다. 특히, 지속적으로 다른 학생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다문화 학생 1명이 있었는데 상담 중에 자신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이 상처가 되어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쁨〉성품 정의 –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을 함께 읽으며 너의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고 말했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끄덕이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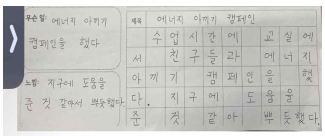


* 굿트리몰 12성품 정의 카드
  - 학급자치운영비로 구입하여 학생들 모두에게 1개씩 선물했다.
    매일 아침, 우리는 함께 성품의 정의를 외우며 학급울타리를 세운다.

* 좋은나무 성품학교 유튜브 채널
  - 각 성품별 정의를 가사로 한 노래와 챈트, 주제 관련 동화 영상이 다양하여 저학년 성품 교육에 활용하기 좋다.

* 가정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좋은나무 성품학교 틈날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최근에 배운 성품은 "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는 것
가정에서도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역할들을 정하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내 물통에 물은 스스로 담기, 신발 정리 하기 등)

⑤ 친구 몸이나 물건에 허락 없이 손대지 않기
⑥ **친구가 속상한 행동을 할 때에는 단호하게 기린 말로 말하기**
(네가 ~~~게 했을 때 나는 ~~~했어. 앞으로는 ~~~해줬으면 좋겠어)
예: 네가 내 앞에서 손가락을 그렇게 들어서 나는 내게 욕을 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 앞으로는 내가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 지난 며칠동안 손가락 욕 관련해서 우리 감사랑반에서 자꾸 속상한 일들이 있어서 오늘 아이들과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었습니다. 어른도 실수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더 그럴 수 있지요? 그래도 단호하게 가르쳐야 할 부분들에 대해 하나하나 알려주며 이야기 나눈 뒤, 아이들과 한명씩 주먹 인사를 하며 " 우리 **~~ 파이팅! " 기분 좋게 교실을 내보냈습니다. 방학 전까지 우리 감사랑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두 힘내세요!



* 우리 아이들 방학 첫 날, 잘 보내고 있나요? ^^ 방학식 날, 성품수업 <절제>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절제: 내 맘대로 하고 싶을 때 STOP! 멈추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

* 학급 sns 알림장을 활용 - 비폭력 대화, 성품 교육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함

교육 후기 & 소감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품교육이란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을 변화시켜 그를 행복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이영숙, 2005)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가정과 학교 사회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실에서는 교사를 좌절시키는 아이들, 일명 금쪽이 학생들이 있다. 신규 발령받은 첫 해, 우리 반 5학년 아이는 자신의 준비물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내 귀를 의심케 하는 욕설을 퍼부었다. 어머니에게 그게 무슨 태도냐고 야단쳤더니 나를 쳐다보며 숫자가 들어간 욕을 내뱉던 그 아이. 같은 학급에 있던 경계성 지능 장애 학생의 등을 연필로 여기 저기 찌르고, '저는 **이가 아파서 울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라고 말하며 웃던 그 아이. 음악 전담 선생님이 **이는 크면 분명 사이코패스가 될 거라며 몸서리쳤던 그 **는 지금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다보면 바로, 지금! 내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할지 정리가 된다.

학생들의 성품이 변화되는 기적! 아니, 교사인 나부터 성품이 변화되기를.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기에...!

4. 문제행동 학생이 포함된 학급

학급

용서와 화해, 학급의 주인은 우리!

학생 특성 & 상황

- 대상 : 학급 전체 학생
- 상황 : 난폭하고 거친 행동으로 다른 학생들을 위협하고, 교사의 제지에도 문제행동을 계속하는 학생과 계속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학생들의 마음의 안정과 회복이 필요한 상황

교사 바람

-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은 다른 학생들의 피해를 직면하여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마음의 회복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선택 방법

- 회복적생활교육(신뢰서클, 문제해결서클)

소! 확! 행! 생활교육 스토리

자신의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감정이 폭발하면 주위의 아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5학년 학생 ○○이가 있었다. ○○이는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켰다. 자신이 앉고 싶은 자리에 앉지 못했다는 이유, 다른 친구들은 모두 풀 수 있는 수학 문제를 본인은 풀지 못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학교 종소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 등등. 생각지도 못한 이유들로 본인의 감정을 폭발시켰고, ○○이의 감정 폭발은 폭력적인 행동과 무례한 행동을 동반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상담과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의 문제행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심해졌으며 결국 교사에게 수시로 욕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칼을 들고 위협하는 등 그 정도가 심해져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과로 출석정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행동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의 행동으로 인해 같은 반 학생들은 계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같은 반 학생들의 단체 심리 검사 결과, 많은 학생들의 공통된 심리 상태는 '나도 우리 선생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였다. 수시로 문제 행동을 하는 ○○이를 지도하기 위해 담임교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와 보내야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대로 그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것이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이의 행동을 교정하기 어려웠고, 반 친구들의 피해도 회복하기 어려웠다. 그 때 우리 반의 학생들의 평화를 위해, 용서와 화해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적용했던 것이 회복적생활교육이었다. 회복적정의를 바탕으로 폭력은 최소화하고 정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신뢰서클을 만들었다. 서클 구성을 위해 토킹스틱과 센터피스가 준비되었고, 아이들과 둥글게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어색해하던 아이들은 서클의 기본규칙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고, 회차가 거듭될수록 더욱 진지하게 참여하였다. 서클에서의 이야기가 우리만의 이야기라는 것에 대해 이해하게 될수록 교실은 안전한 공간이 되었고 교실의 주인은 학생들 스스로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실을 이용하여 모두를 이어주는 활동을 할 때에는 자신의 가치를 이야기 해주는 친구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는 학생도 있었다. 처음엔 서클활동에 대해 무관심하게 참여하려던 ○○이도 조금씩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며, 신뢰서클은 문제해결서클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문제해결서클에서는 ○○이가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학급에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변화가 필요한지 이야기하였다. ○○이의 잘못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가 아닌 ○○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다른 학생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였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다 같이 학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다시 학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들은 문제해결서클을 통해 이 문제가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 서클의 기본 규칙
1) 토킹스틱을 가진 사람만 이야기 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한다.
3) 서클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4) 서클에서 나온 이야기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 신뢰서클의 진행 순서
1) 환영과 소개 : 자리 배치 후 참가자들을 환영하고 소개하는 시간이다.
2) 여는 의식 : 서클의 의미를 담은 의식으로 서로의 마음을 모은다.
3) 토킹스틱 소개 : 진행자가 준비한 토킹스틱의 의미와 상징을 소개한다.
4) 기본규칙 나누기 :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5) 서클의 목적 나누기 : 서클의 주제와 목적을 설명한다.
6) 이야기 나누기 : 진행자의 질문에 따라 참가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7) 감사하기 : 서클모임이 갖는 의미들을 되새기며 서로에게 감사한다.
8) 마무리하기 : 헤어짐의 인사, 허그, 축하로 신뢰서클을 마무리한다.

• 신뢰서클의 질문 구성
1) 여는 질문
- 가볍고 부담없는 즉시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 진행자는 여는 질문을 통해 참가자들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주제질문과는 별개로 참가자들이 안전한 공간임을 확인하도록 돕는 질문이다.
2) 주제 질문
- 열린 질문으로 참가자들이 적극적인 이야기를 펼쳐내도록 돕는 질문이다.
- 부정적 접근보다는 긍정적 가치를 중심으로 탐색하여 공동체의 역동을 경험한다.
- 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하나의 질문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실천 질문
- 주제에서 다룬 내용의 적용과 실천, 약속에 대한 질문이다.
-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후 과정에 대한 기대도 함께 담아 약속할 수 있다.
4) 배움 질문
- 신뢰서클을 통해 배운 점, 깨달음, 느낌을 나누는 질문이다.
- 개인의 배움 뿐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연결된 약속의 느낌들도 나눈다.

※ 회복적생활교육 가이드북, 정진(2016)

교육 후기 & 소감

신뢰서클, 문제해결서클을 통해 학급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당시 우리 반 아이들은 서클 활동을 통해 스스로 학급의 주인은 본인들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고,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갔다. 문제 학생은 다른 학생들의 피해를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변화를 시작할 수 있었고 6학년 시기를 잘 보내 무사히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평화적인 공동체 구조는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어떠한 공격도 방어할 수 있는 안전한 진지를 구축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나간다면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실, 그리고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5. 전체 학급 대상 감정 인식 활동, 격려 활동

학급

감정 맞추기 놀이 / 격려 샤워 / 격려 스노우볼

학생 특성 & 상황

- 학생 특성 : 전체 학생
- 활동 목표 : 감정 낱말을 알고,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감정 이해하기
  격려의 말을 주고 받으며 학급 구성원과 친밀감 및 유대감 형성하기

교사 바람

- 다양한 감정 인식하기, 올바른 자기표현력 기르기
- 상호 배려심 키우기, 학급 유대감 강화하기, 따뜻한 학급 문화 만들기

선택 방법

- 상황에 따른 감정 파악하기, 공감 대화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 **감정 맞추기 놀이**

1) 둥글게 둘러 앉아서 가운데 한 사람이 선다.
2) 술래가 감정 낱말을 하나 선택하여 어떤 상황에서 그런 감정이 드는지 설명하거나 몸으로 표현한다.
   (예) 신나는 : 이번 주 일요일에 가족들과 캠핑을 가기로 했어.
   놀란 :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린 모습. 등
3) 제일 먼저 맞추는 아이에게 술래가 손하트를 보낸다.
4) 맞춘 아이가 가운데로 나와서 감정 맞추기를 계속한다.

▸ **격려 샤워**

1) 둥글게 둘러 앉아서 가운데 한 사람이 선다.
2) 격려받고 싶은 사람을 술래로 정한다.
3) 술래는 스케치북에 격려받고 싶은 말을 쓴다.
   (또는 듣고 싶은 격려카드 한 장을 뽑는다.)
4) 술래는 자기가 격려받고 싶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친구들에게 설명한다.
5) 돌아가며 한 사람씩 친구가 받고 싶은 격려를 짐작해서 말한다.
6) 술래는 격려를 받으면 '고마워!'하고 인사를 한다.
7) 술래는 마지막에 정답을 알려주고, 친구들에게 감사를 표현한다.

▸ **격려 스노우볼**

1) 전체 학생이 둥글게 둘러 앉는다.
2) 격려 카드를 보고, 각자 자신이 받고 싶은 격려를 종이에 적는다.
3) 종이를 구겨서 스노우볼을 만든다.
4) 다함께 동시에 격려 스노우볼을 가운데로 던진다.
5) 바닥에 떨어진 스노우볼을 각자 하나씩 줍는다.
6) 모든 사람이 번갈아가며 스노우볼에 적힌 격려 문구를 읽는다.
7) 활동 소감을 나눈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감정 낱말〉

기분 좋은	평화로운	서러운	삐친	걱정되는	놀란	간절한
신나는	해맑은	슬픈	질투하는	고단한, 지친	무서운	미안한
안도하는	행복한	외로운	심통나는	고민하는	답답한	반성하는
여유로운	흐뭇한	의기소침한	짜증나는	변명하는	귀찮은	수줍은
보람찬	희망찬	후회되는	절망적인	억울한	괴로운	위축된
다정한	가슴 뭉클한	우울한	화난	용기있는	찜찜한	서러운

〈격려 카드〉

걱정마! 잘 될거야.	나는 그래도 네 편이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더 노력하고 있잖아. 힘내!	심심하면 언제든 이야기해. 내가 놀아줄게
많이 힘들었지?	넌 사랑받는 사람이 될거야	너랑 함께 있으면 참 좋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넌 할 수 있어!	너랑 함께하면 기분이 좋아
고마워	넌 소중한 사람이야	괜찮아. 다음 기회에 하면 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을거야.	너만 그런게 아니란다. 누구나 어려움이 찾아온단다.
너는 내 친구야	항상 널 응원할게	네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	네가 노력한 결과야. 축하해!	너는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하고 사랑받을 만해.
같이 놀자	최선을 다했잖아	네가 하는 선택을 응원할게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네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여서 사랑하는 거야.
같이 하자	스스로 뿌듯하겠다. 그치?	많이 속상했지?	네가 OO해서 나도 기뻐. 축하해!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줄게

※ 격려 메시지 내용 출처 : 감격해 카드

교육 후기 & 소감

아이들에게 처음 자신에 감정을 낱말로 표현해보자고 이야기하면 보통 감정과 생각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감정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을 말한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마음이다. 생각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이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 대한 자신의 사고작용을 거쳐서 나타난다. 감정 맞추기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다양한 감정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생각과 감정을 구분하며 자신의 감정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더불어 격려 활동을 통해 학급의 문화를 좀 더 따뜻하고 수용적으로 만들 수 있다. 격려에 대해 배우고 난 후, 서로 격려를 하고 싶어도 격려 표현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격려카드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격려 표현을 익히고 사용할 수 있었다. 격려 메시지를 직접 말하며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의 활동들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학급 회의 및 공동체 활동을 하며 시작, 마무리 시간에 꾸준히 활용한다면 학생의 감정 인식 능력을 발달시키고 학급 구성원의 친밀감 형성 및 유대감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6. 고학년, 학급 학년 규칙 세우기

학급

다모임을 통한 학급/학년 울타리 함께 세우기

학생 특성 & 상황

- 학생 특성 : 사춘기가 시작되는 고학년 학생
- 상황 : 담임 선생님 혼자서 꼼꼼하게 규칙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지키라고 할 경우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칙이 아니기에 지켜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지 못 함.

교사 바람

- 학생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지켜나가는 따뜻한 교실 및 학년, 학생 상호간 약속 지키기, 학생들의 의견 존중 및 바람직한 의사표현 방식 깨닫기, 인간 대 인간으로 좋은 관계 유지하기

선택 방법

- 다모임, 공동체 놀이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어느 학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3월이 되면 선생님들은 늘상 고민에 빠진다.

올해 만나게 될 우리 아이들과 1년 동안 평화롭고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3월 한 달간 학급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말이다.

교사에게 있어 3월은 매우 중요한 달이다. 3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1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교사가 만나게 될 학생이 고학년인 경우 학급 및 학년의 울타리 세우기 방법은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된다. 학생들과의 소통 없이 담임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세운 규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우리 아이들이 잘 깨닫고 1년간 그 규칙이란 테두리 안에서 올바르게 생활하게 될지는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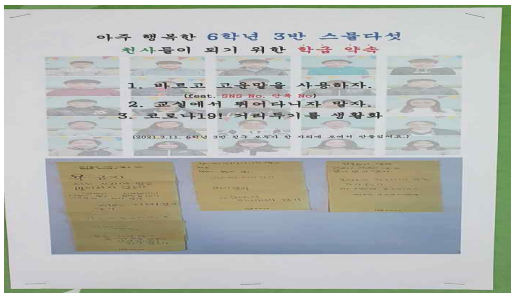
그렇기에 규칙을 만들고 실천해가는 과정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다면 좀 더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된다.

좀 더 가까이에서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학급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교실 바닥을 깨끗하게 치우고 동그랗게 모여 앉았다. 그리고 우리 학급이 1년간 행복하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한 우리 학급의 규칙(테두리)을 함께 이야기해보고 정하자고 하였다. 먼저 작년 한 해 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급 내 힘들었던 일을 자유롭게 이야기하여 보았다. 그리고 올 한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우리 교실에서 꼭 세웠으면 하는 규칙들을각자 2가지씩만 포스트잇에 적어 보자고 하였다. 규칙을 적을 때는 3R1H에 대해 안내한 후에 여기에 준하여 규칙을 적어보게 하였다. 학생들 각자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칙을 포스트잇 2장에 각각 적은 후 동그랗게 앉은 자리 가운데 바닥에 붙였다. 어떠한 규칙들이 나왔는지 함께 살펴본 후 비슷한 것끼리 유목화를 하였다. 유목화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적은 규칙 3~4개를 학급 규칙으로 선정하였으며 여기서 정해진 규칙을 교실 게시판에 한 학기 동안 붙여두고 학생들이 스스로 정한 규칙을 시각적으로 보게 하였다. 더 나아가 미술 시간에 학생들이 스스로 정한 규칙을 광고하는 공익광고 포스터를 만들게 한 후 학급 규칙과 학급 규칙을 그림으로 표현한 공익광고를 게시판에 함께 한 학기동안 게시하여 스스로가 만든 규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게 하였다. 학급에서 더 나아가 쉬는 시간 다른 학급과의 교류가 잦은 고학년의 특성을 바탕으로 학년 세우기를 하였다. 강당 바닥에 전체 학급이 동그랗게 앉아서 작년 한 해 다른 학급 학생들과의 생활에서 힘들었던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년에 필요한 규칙을 1~2가지씩만 포스트잇에 적도록 하였다. 규칙을 적은 포스트잇은 학급 앞에 놓인 4절 우드락판 주변에 붙이도록 하였으며 학급의 대표들이 다 적은 규칙들을 유목화하도록 하였다. 유목화 후에 학급에서 나온 규칙들 중 가장 많이 나온 규칙3~4가지를 학급별로 돌아가며 발표한 후 학년에서 가장 많이 나온 규칙 3~4가지를 복도에 게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두가 함께 만들고 지키겠다는 의미로 라벨지에 각자의 이름을 적어 복도에 게시한 규칙에 붙이도록 하였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 학급 울타리 세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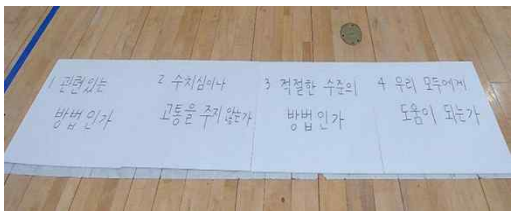
3R1H
문제상황에 대한 여러 해결 방법 중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3R1H기준에 맞게 추려내는 활동으로 이를 통해 긍정적인 해결 방법을 고를 수 있음.
3R : Related(연관성), Respectful(존중), Reasonable(합리성)
1H : Helpful(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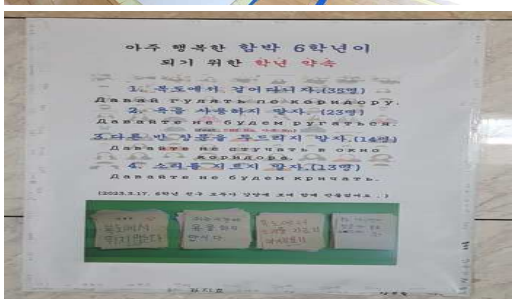
함께 만든 학급 약속을 게시

학급 약속을 공익광고로 표현

➜ 학년 울타리 세우기



4절 우드락판에 3R1H를 적은 후 학생들이 이를 들고 다니면서 안내 하고 여기에 준해 규칙을 적게 함.



함께 정한 규칙을 크게 뽑아 복도에 게시한 후 학생 사인을 적어 붙임.

교육 후기 & 소감

약 한달 간의 시간동안 학급 세우기와 학년 세우기를 진행하고 이 과정이 담긴 게시물을 학급 및 복도에 게시하여 시각적인 노출 기회를 높였다. 쉬는 시간이면 복도에 붙인 학년 규칙 앞에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었으며 될 수 있으면 스스로가 만든 규칙들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2학기 때 다시 한번 학급, 학년 다모임을 통해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규칙 만들기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면서 일방적인 규칙의 전달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울타리 세우기를 하며 학생 상호간 규칙을 준수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중·고등학교

1.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는 학급

학급

서로 존중하는 의사소통으로 행복한 학급 만들기

학생 특성 & 상황

- 대상 : 통합학급 전체 학생
- 상황 : 통합학급, 나와 다른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주장만 하며 특수학급 학생을 무시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학급에 참여할 기회가 적고 등교하기 힘들어하고 결석이 잦은 상황

교사 바람

- 모두가 행복한 교실을 위해 다름 존중하기, 서로 존중하는 의사소통 방법 키우기
- 친절하고 단호한 교사의 자세 보여주기, 서로 존중하는 말로 말하는 방법 키우기

선택 방법

- 학급긍정훈육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처음 통합학급을 맡게 되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또 다른 학생들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등

통합학급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선생님의 요청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다름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학생들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게 되었다.

1. 활동을 시작하면서 규칙을 정한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2. 티셔츠 활동을 통하여 자기소개서(이름, 자신의 특성, 고민, 격려받고 싶은 말)를 작성하고 모두가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였다.(개인활동 - 관찰)
   - 격려받고 싶은 말은 학급 모두가 이름을 부르고 격려의 말을 하도록 했다. 격려를 처음으로 받아본 학생들이 많다. 반 친구들 전체가 한목소리로 해주는 격려의 말은 학생들에게 많은 힘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격려)
3. 다름 존중 활동
   가. 하루동안 4가지 동물(거북이, 카멜레온, 독수리, 사자)중 한 가지 동물로 살아야 한다면 어떤 동물로 살고 싶은지 선택하도록 한다.
   나. 같은 동물을 선택한 학생들끼리 모여 그 동물을 선택한 이유와 3가지 동물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전지에 기록하고 동물별 발표를 하도록 한다.(모둠활동)
   다. 소감 나누기(느낌)
   - 선택하지 않는 동물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면을 기록하였고, 그것을 선택한 학생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다른 모둠에서는 좋아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소감을 나누었다
   라. 피드백
   -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정리한다.
4. 서로 존중하는 의사소통 방법(느낌)
   가. Telling 역할극 : 비난과 불평하는 언어로 말하는 방법
   1) 듣는 학생 1명을 정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말하도록 한다.
   2) 듣는 학생은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어떤 감정인지 느껴보도록 한다.
   3) 말하는 학생들은 말하는 예시 자료를 감정 이입을 하여 말하도록 한다.
   4) 듣는 학생의 소감과 말했던 학생들의 소감을 나눈다.
   - “친구의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 기분이 좋지 않았고, 미안한 감정이 들지 않았다고 했다.
   - 말을 전달했던 학생들에게 “말할 때의 느낌이 어땠나요?”
   : “보통 우리가 친구들과의 대화에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라고 대부분 대답했다.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5) 피드백
-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방법인 Telling으로 말했을 때 상대방은 기분 나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나. Asking 역할극 : 나-전달법 또는 질문법으로 상대방의 실수에 대하여 말하는 방법

1) ~3) 까지 Telling 역할극 순서대로 진행한다.

4) 듣는 학생의 소감과 말했던 학생들의 소감을 나눈다.
- 친구의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 말을 전달했던 학생들에게 "말할 때의 느낌이 어땠나요?"
  : "말할 때 화가 나지 않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5. 활동 소감 나누기

가. 오늘 활동하면서 느낀 소감을 모든 학생이 돌아가면서 얘기하도록 한다.

나. 소감 내용- 학생들이 말한 내용
- 티셔츠 활동을 통하여 알지 못했던 친구들의 특성과 고민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 다름 존중 활동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른 친구에게는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와 다르지만 모두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말을 할 때는 내 감정을 전달하고 말하는 목적에 맞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로 해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가지 활동으로 학생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상대방의 실수에 대하여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함으로 친구들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었고 좀 더 친구들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카멜레온, 거북이, 사자, 독수리〉

이 활동은 다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학급에서 서로 다르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서로 격려하고 축하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활동을 하기 전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 활동 방법**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모든 상황에서 정답이거나 오답인 것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 어떤 것에 대해 하나의 정답만 있다고 생각하나요?

하루 동안 한 가지 동물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동물처럼 되고 싶나요?

	( ) 되고 싶은 이유
☐ ☐ ☐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이유		

〈다름 존중 활동〉

교육 후기 & 소감

내가 경험하고 받아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에게 경험을 통하여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나누는 시간과 내가 주로 하던 말을 역할극을 통하여 직접 들어보며 어떤 말은 기분이 나쁘고 어떤 말은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는지 나누며 지나온 자신들의 말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소감을 듣게 되어 활동의 목적을 아이들 스스로 느끼는 뿌듯한 시간이었다. 간접적인 경험이지만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친구 관계 및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2. 산만한 분위기의 학급

학급

학생 중심의 민주적인 학급 만들기

학생 특성 & 상황

- 대상 : 학급 전체 학생
- 상황 : 교실 분위기가 규칙이 없어 수업 종이 울려도 자리에 앉지 않고 수업 시간 집중하지 못하고 떠들고 산만한 교실 분위기가 이어지고 선생님들의 지도는 지켜지지 않고 학급 반장 부반장은 있으나 리더십 발휘가 되지 않아 학급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

교사 바람

- 모두가 행복한 교실을 위해 학생 스스로 규칙을 잘 지키고 민주적인 분위기 조성
- 학급 규칙을 학생들 스스로 만들고 지키며, 학급 회의를 통해 학생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 키워주기

선택 방법

- 학급긍정훈육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학생들이 종이 울려도 자리에 앉지 않고 돌아다니고 급식할 때 질서를 지키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선생님께 학생들 스스로 규칙을 지키고 서로 배려하며 협력하는 학급 운영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었다.

1. Two List 활동

가. 지난 학교 생활에서 힘들었던 경우를 포스트잇에 기록하고 칠판에 붙이기
나. 반장이 아이들이 적은 내용을 모두 읽어준다.(들으며 생각하는 시간 갖기)

2. 학급가이드라인 만들기(학급 규칙)

가이드라인은 1년의 여행을 떠나기 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줄 나침반
가. 원하는 반을 포스트잇에 간단한 단어(예 : 협력을 잘하는 반)로 적기
  - 질문 : 우리반이 올해 어떤 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올 한해를 최고로 보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나. 내용끼리 분류하기 그리고 제목 정하기(비슷한 내용끼리 모둠만들기)
  예) 배려, 존중, 우정, 행복, 다정, 청결, 질서 등..
다. 템플릿 작성하기
  - 모둠별로 협의하여 작성한다.
라. 발표 및 동의하기
  - 모둠 대표가 발표하기
  - 혹시 지키기 어려운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수정 한다
  - 가능하면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기(~~하지 않기 보다는 ~~하기)
마. 동의 사인하기
  - 동의 절차가 끝나면 잘 지키겠다고 서약한 후 가이드라인에 사인을 한다.
바. 게시 및 돌아보기
  - 학생들이 잘 보이고, 선생님이 자주 짚어줄 수 있는 곳(칠판 옆쪽)에 게시하고, 자주 상기시키고 잘 지키고 있는지 학생들과 확인해 본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거쳐 수정 한다

가이드라인을 모두 잘 지킬수 있도록 하며 모둠별 담당자를 정하여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록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내용은 학급회의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1~2가지를 정하여 지키도록 하였다.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3. 민주적인 학급 회의 진행(반장이 진행하고 교사는 돕는 역할)

1단계 : 원 만들기 (빠르게 조용하게 안전하게 → 빠조안)
2단계 : 마음 나누기(격려와 감사/실수와 사과)_토킹 스틱 사용_pass는 한 번만
3단계 : 회의 역할 나누기(평화지킴이, 소음지킴이, 시간지킴이 등)
4단계 : 회의 목적 확인하기

> 우리는 서로 비난하거나 상대를 쉽게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며 발언은 돌아가며 공평하게 합니다.
> 회의의 목적은 서로 마음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5단계 : 결정 사항 확인하기
6단계 : 회의 안건 제시_안건 설명하기
7단계 : 해결책 브레인스토밍
8단계 : 해결책 결정하기 - 문제 해결 원칙 3R 1H

> 1. Related(연관성) : 해결방법이 문제행동과 연관이 있는가?
> 2. Respectful(존중) : 해결방법이 존중하는 방식인가?
> 3. Reasonable(합리성) : 합리적인가? 이중처벌, 가중처벌이 되지 않는가?
> 4. Helpful(도움) :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9단계 : 소감 나누기
학급회의 결과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한다.

두 가지 활동으로 학생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상대방의 실수에 대하여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함으로 친구들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었고 좀 더 친구들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학급가이드라인 양식〉

우리의 바람은 _____ 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행동해요
우리의 가이드라인 우리는 _____ 합니다. 왜냐하면 _____ 때문입니다.	

〈예시〉

우리의 바람은 즐거운 우리 반 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행동해요
재밌는데. 잘 했어. 같이 해보자. 내가 해도 될까? 어떻게 하는지도와줄까? 나도 좋아하는데 알려 줘서 고마워.	박수쳐주기. 호응해주기. 고개 끄덕여주기 나누어 쓰기 함께 연습하기 서로 돕기 함께 하기
우리의 가이드라인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즐거운 교실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즐거울 때 더 공부가 잘되기 때문입니다.	

교육 후기 & 소감

학급 자치활동 시간을 부담스러워하는 담임들이 많다. 학급 반장, 부반장 등 임원들은 있지만 특별히 학급에서 하는 일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일방적인 담임교사의 전달이 아닌 위의 두 가지 활동을 학기초에 실시하여 학급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내용별 담당자를 정하여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한다. 특별히 지켜지지 않는 내용들은 학급회의 시간 안건을 받고 반장, 부반장이 진행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브레인스토밍에서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항목 1~2가지 정도 정하여 다시 지켜나가도록 하였다.

반장, 부반장 학생들이 학급회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이 활동을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반장, 부반장의 소감을 들은 담임도 학생들에게 리더십을 키워주고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어 학급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학생들에게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고 담임에게는 학생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3. 학급의 특성에 따른 학급운영

학급

학생을 마음으로 존중하고 대접하기

학생 특성 & 상황

-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가 많음
- 자존감이 낮고 관심과 소통이 필요한 학생이 많음 .

교사 바람

-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생
- 편안하고 안심이 되는 교실
- 서로의 가족구성원이 되는 우리

선택 방법

- 좋은 글 피드백, 티타임, 쉬는 시간 상담, 학년말 편지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1. 매일 아침 8시 전에 교실에 들어가 찻물을 끓이고 다양한 종류의 차를 구해서 우려내어 아이들에게 권한다. 조금 일찍 오는 아이들은 더 마시기도 하고, 차 맛을 선택하여 원하는 아이도 있다. 차에 대해 설명도 하고 아이들끼리 나누는 이야기도 듣고 하며 조회 시간까지 차 마시는 시간을 서로 즐긴다.
2. 조회시간에는 매일 바꿔 게시하는 글을 읽고 피드백을 나눈다. 교사의 경험을 섞기도 하고 관련한 아이들의 경험을 듣기도 한다.
3. 쉬는 시간에는 교실에 가만히 가서 아이들을 살핀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나 행동을 보이는 아이는 즉시 복도로 데리고 나가 대화를 한다.
4.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린 아이가 있는 경우 모두와 적절하게 공유하여 이해하고 배려하고 돌본다.
5. 함께 들로 산으로 나가 자연을 경험하고 걷고 이야기하고 외식도 하고, 교사의 집에서 밥을 먹으며 밥상머리 교육을 한다.
6. 교사 제작 '꿈길'노트를 활용해 조회 및 학급협의 시간에 인성, 근로, 자존감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진행, 자기 성찰 활동
7. 다이아몬드, 비다기 선발 시상으로 성실, 봉사, 나눔을 경험하고 생활화한다.
8. 학년말 일 년을 돌아보며 아이들 각자에게 편지를 써서 전하고 일년간의 활동들을 피드백하며 존중받고 존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다람쥐의 정신 – 가치 있는 일을 한다.
(다람쥐들이 쉬지 않고 일하는 이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
목표를 이해하고 또 제대로 실행한다.
모든 계획과 행동은 가치로 결정된다.(가치 알기)

비버의 방식 –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일을 스스로 한다.
(우두머리 없이 자기 일을 스스로, 존중, 공유, 능력만큼, 인정)

임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팀원의 생각과 느낌, 욕구와 꿈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그것에 따라 행동한다.
목표는 달성 가능하지만 도전적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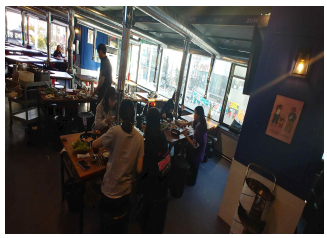
기러기의 선물 –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한다.
(요란한 울음소리, 이동 중 쉬지 않고 모두 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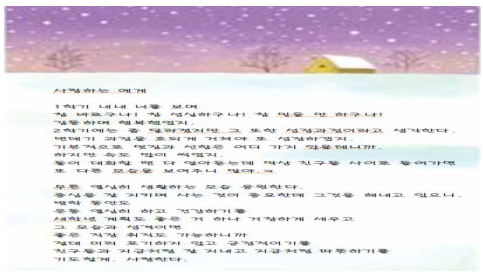
격려는 시기적절하고 즉각적이며, 무조건적이고 열성적이어야 한다.
일의 결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의 진행과정에서도 서로를 응원해야 한다.
열정은 임무와 금전적 보상, 그리고 격려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 켄 블랜차드 · 셀든 보울즈의 '경호'

〈진솔한 자기표현과 공감으로 듣기〉

솔직하게 말하기	비폭력대화 4단계	공감으로 듣기
내가 _____을 보았을 때(들었을 때)	**관찰** 있는 그대로 보고 듣기 (평가와 구별하기)	당신은 _____을 보았을 때(들었을 때)
나는 _____라고 느껴	**느낌**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생각과 구별하기)	당신은 _____라고 느껴?
왜냐하면 나는_____가(을) 중요하기(원하기) 때문에	**욕구** 수단/방법과 구별하기	왜냐하면 당신은_____가(을) 중요하기 때문에?(원하니?)
_____해 줄 수 있겠니?	**부탁** 구체적, 긍정적, 의문형으로 하기(강요와 구별하기)	당신은 내가_____하기를 원해?





4. 부정적 분위기의 학급

개인

나를 3인칭으로 바꾸기

학생 특성 & 상황

• 학급에서 부정적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부정적 에너지파를 보내고 있을 때

교사 바람

• 편안하고 따뜻한 학급 분위기를 찾아야 할 때

선택 방법

• 장점 찾기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1. 포스트 잇을 학생들에게 나누어준다.
2. 옆 친구의 장점을 3개씩 쓰라고 한다.

   주의! 장점을 말하면서 아이들이 비꼼을 넣지 않도로 조심하기
3. 가장 잘 찾은 학생에게는 간식 제공을 약속한다.
4. 포스트잇을 칠판에 붙이게 한다.
5. 한 개씩 한 개씩 읽는다.
6. 가장 좋은 장점 표현을 한 학생을 선생님이 뽑고, 아이들이 뽑는다.

   6-1. 알아듣기 좋게 설명을 잘한다.

   6-2. 힘들 때 도와주었다.

   6-3. 넌 존재 자체가 ..... 등등등
7.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을 쓴다.

   이때 나를 그녀 혹은 그로 3인칭으로 써봅니다.

   7-1 그녀는 노력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 증거로는 ( )

   7-2 그녀는 잘 웃어요.
8. 활동 이후에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수업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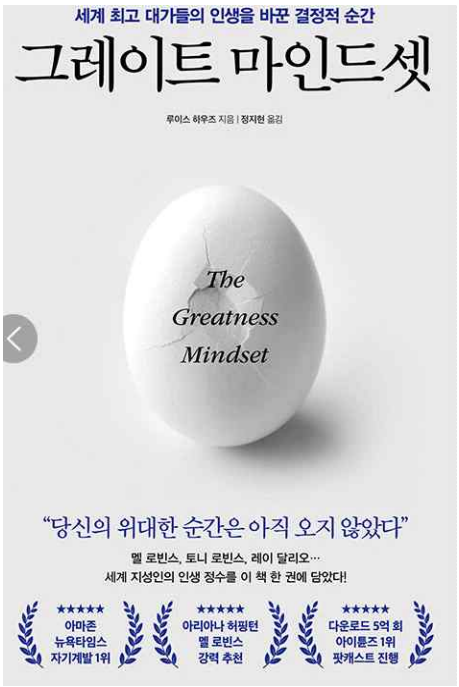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1. 장점 찾기를 통해 급우들과 친해지고 인정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2. 나의 장점 찾기를 통해 나와 대화하는 활동을 시작해봅니다.

주의! 나를 그와 그녀로 만들어서 3인칭으로 쓰면 훨씬 더 좋은 문구들이 나와요!!

〈추천합니다. 그레이트 마인드셋〉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들을 같이 읽어보고 그레이트 마인드 셋을 생각해봅니다.



교육 후기 & 소감

1. 장점을 찾기 수업을 하면 친구의 장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탐색 과정을 통해서 학급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2. 장점을 찾아서 직접 친구에게 여러 버전의 말하기 (기쁘게, 사랑스럽게) 를 시키면 말하는 학생도 듣는 학생도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 장점을 말하고 이 장점을 가진 학생이 누구인지 찾는 "guess who?"를 하는 것도 매우 즐겁고 수업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5. 자기 주장 강한 학생 많은 학급

학급

소단위 대화모임에서 경청과 존중을 경험

학생 특성 & 상황

- 학급 특성 : 늘 에너지가 넘치고, 자기 주장이 강한 학생들이 많음.
- 상황 : 교사의 말, 친구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성찰 과정 없이 자기 기준으로 친구를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잦아 친구 간 갈등 발생 횟수가 많음.

교사 바람

- 공감 대화를 통해 학급 구성원 모두의 힘으로 경청과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 긍정에너지가 넘치는 학급으로 성장하기

선택 방법

- 회복적 생활교육 기반 소단위 대화모임, 소단위 취미 활동 활성화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올해 만나는 아이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여 가르치는 교사가 될 것인가. 학생 스스로 자기가 속한 학급을 배움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행복한 학급을 만들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도록 격려하는 교사가 될 것인가."

새 학년, 새 학기를 열며 항상 하게 되는 고민이고, 내가 나에게 보내는 끊임없는 질문이며, 해마다 찾게 되는 답은 비슷하지만 언제나 작년 보다는 올해 찾은 답이 더 만족스럽다. 학생들과 함께 배움의 공동체에서 교사도 성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교사가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며 교사 기대와는 먼 곳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학생들을 그렇게 멀리서 바라보았다.

회복적 생활교육에서는 교사 1인이 가진 학급의 영향력을, 학생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주라고 한다. 자기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되고, 자기의 제안이 학급의 규칙이 되고, 자기의 실수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고 배움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여겨진다면, 교사에서 학생으로 '권력이양'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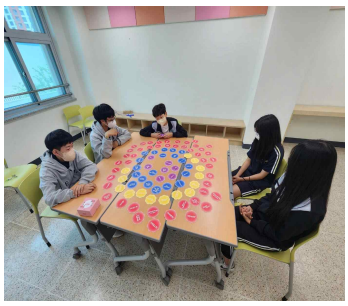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급 운영의 시작은 학급 구성원 전체가 큰 원을 만들어 대화모임을 운영하면 전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한 교시 내에 충분히 활동을 마칠 수 없기도 하고, 대화모임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면 산만하여 운영이 쉽지 않다. 5명 내외의 소단위로 운영하면,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단위 대화모임은 매일 점심시간, 학급의 급식 차례가 되기 전까지 진행하고 감정 말하기, 내게 소중하거나 의미있는 것에 대해 말하기, 욕구와 바람에 대해 말하기, 위로·칭찬·격려하기, 경청 연습하기 등을 통해 관계를 맺고 돈독히 하는 방법을 익히고, 소단위의 만남을 주제별 취미 활동으로 확장하여, 학생들끼리 모여 리더와 활동 내용을 정하고 주1회 점심시간에 운영한다.

갈등은 언제나 발생하지만, 관계 맺기를 배우고 마음의 거리를 좁힌 아이들은 갈등 상황 속에서 '평가와 비난'을 통해 '관계의 단절'을 선택하지 않고, '어떤 바람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럴까'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배움과 성장'의 길로 나아간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욕구와 바람 살펴보기〉


〈위로·칭찬·격려하기〉

〈주제별 취미활동〉

1. 소단위 대화모임 운영하기

1) 운영시간 : 월~금 / 점심시간 학급별 급식 대기시간 약 30분간
2) 운영방법 및 내용
   ① 진행자 : 학급 담임교사
   ② 학급 34명을 5~6명의 소그룹으로 편성하되, 학급 전체 인원이 대화모임을 마친 후, 새로운 소그룹을 계속 편성하여, 서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함.
   ③ 어제의 감정, 오늘의 감정, 내일의 기대하는 감정에 대해 묻고 답하기, 소중한 것 또는 의미있는 것에 말하기, 'NEED' 카드를 이용하여 욕구와 바람 살펴보기, '마인드 업 피다' 카드를 이용하여 위로·칭찬·격려하기, 경청 연습하기
   ④ 취미활동 소모임과 참여 인원이 중복되지 않게 조정함.
   ⑤ 각종 교구를 사용하면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지속적인 대화모임 운영으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함.
   ⑥ 효과 : 친구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며 관계를 만들고 쌓아 올림.

2. 대화모임을 취미활동 소모임으로 확장하기

1) 운영시간 : 월~금 / 점심시간 학급별 급식 대기시간 약 30분간
2) 운영방법 및 내용
   ① 진행자 : 각 소모임의 리더
   ② 주제 : 영어회화, 수학문제 풀이, 과학탐구, 그림그리기, 댄스 등
   ③ 인원 : 희망자 (주제별 5명 내외)
   ③ 같은 취미 또는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끼리 모여 리더와 활동 내용을 정하고 각 주제별로 실시 요일을 정하여 주1회 점심시간에 운영함.
   ④ 효과 : 대화모임을 통해 맺은 관계를 발전시키고 견고히 함.

교육 후기 & 소감

대화모임은 학생과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도 서로 경청하고 존중하는 소통과 배움의 장이다. 상대방에게 하려는 말을 '지시 또는 판단' 형태로 전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통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며 평화로운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일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 계속 이어가고 싶은 즐거움이다. '오늘 대화를 통해 친구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저의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아 본 일이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의 순수한 피드백을 듣고 있다 보면, '너희들의 그 모습이 나에게는 커다란 격려와 희망이야.'라고 외치듯, 나의 심장은 그들을 향해 다시 뛰기 시작한다.

6. 자유분방한 학급/수업 규칙 만들기

학급

나의 약속과 제안이 공동체의 규칙으로

학생 특성 & 상황

- 학급 특성 :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여과 없이 표현하는 자유분방한 중학교 1학년
- 상황 : 교과서를 준비하지 않거나,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잠을 자거나 장난을 치거나 다른 과목 공부, 학원 숙제 등을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함. 실수 또는 잘못을 한 학생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거나 놀리는 일이 잦음.

교사 바람

- 교사의 지적과 지시에 따라 학생들의 행동이 결정되는 수동적인 학급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배움의 공동체에 필요한 약속을 정하고 모두 함께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능동적이고 평화로운 학급이 되는 것

선택 방법

- 회복적 생활교육 기반 학급 단위 서클 활동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조용히 해', '교과서는 기본으로 챙겨와야지!', '수업 시간에 학원 숙제를 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지 마라' 등은 학생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듣고 싶지 않을 말이거나, 학생들의 내발적인 행동을 촉발하기 위해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야 할 말일 것이다.

특히 중학교 1학년은 새로운 배움의 6년(중1~고3)을 향해 토대를 만드는 시기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 중요한 것,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 선택하고, 행동하며 능동적인 태도를 길러야 한다.

새 학기를 여는 첫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담임 학급 또는 교과수업에서 학급의 규칙을 정해본다. 학급/수업 규칙에는 학생들이 행복한 학급/수업을 위해 자기의 마음속에서 꺼낸 핵심 단어(키워드)들이 먼저 등장한다. 자기가 먼저 말하게 되는 것도 있고, 친구가 말한 것에 동의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약속을 정하는데, 이 약속은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도 비난받지 않는다. 교사는 늘 약속을 상기시키며, '우리 약속한 게 있는데 기억하니? 같이 약속을 지켜볼까?' 라고 격려하므로 문제 행동을 일으킨 학생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교사나 친구들로부터 비난받아 부끄러움을 느끼기보다 '다음에는 꼭 잘 지켜야지'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기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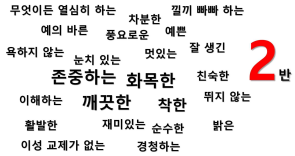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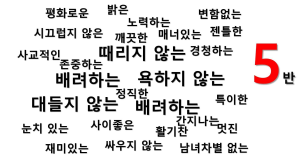
1. 학급/수업의 규칙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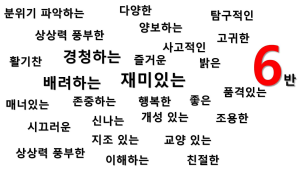
1) 운영 시간 : 새 학기 첫 만남/수업
2) 운영 방법 및 내용
   ① 진행자 : 담임교사 또는 교과교사
   ② 서클로 앉거나 기존 배열된 좌석 형태로 진행 가능함.
   ③ 우리 반/수업이 행복한 반/수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핵심 단어(키워드)'를 꺼내 보기로 함. 자기가 새로운 단어를 꺼내도 좋고,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기로 함.
   ④ 우리 반/수업에서 등장한 핵심 단어(키워드)가 현실이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약속을 꺼내어 보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음.
   ⑤ 핵심 단어(키워드)와 약속이 정해지면, 출력하여 칠판에 게시함.
   ⑥ 학급/수업에서 문제 행동이 발견되면, '~해라', '~하지 마라' 등의 지시를 하않고, '○○야, 우리 ○○하자고 약속한 적이 있어. 기억하지? 우리 같이 ○○해 보자. 어때?'라고 물으며, 약속 이행에 관해 긍정적인 대답을 유도하고 약속을 실천하게 격려함.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행복한 반을 위한 키워드







행복한 반을 만드는 나의 약속

나는 이렇게 해 볼 거야!

- 떠들지 않을 거야.
- 경청을 잘 할 거야.
- 말을 예쁘게 할 거야.
- 많이 도와 줄 거야.
- 나대지 않을 거야.
- 욕하지 않을 거야.
- 재미있게 지낼 거야.
- 좋은 행동을 할 거야.
- 수업 시간에 집중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해 볼 거야!

- 인사를 잘 할 거야.
- 이성 교재를 하지 않을 거야.
- 짜증을 내지 않을 거야.
-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장난을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해 볼 거야!

- 공감할 거야.
- 싸우지 않을 거야.
- 놀리지 않을 거야.
- 수업에 집중할 거야.
- 사이 좋게 지낼 거야.
- 입장 바꿔 생각할 거야.
- 경청할 거야.
- 수업에 잘 참여할 거야.
- 물은 쉬는 시간에 먹을 거야.

나는 이렇게 해 볼 거야!

- 때리지 않을 거야.
- 숙제를 잘 할 거야.
- 욕을 하지 않을 거야.
- 열심히 공부할 거야.
-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거야.
-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할 거야.
- 배려할 거야.
- 화 내지 않을 거야.
- 짜증 내지 않을 거야.
- 시비 걸지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해 볼 거야!

- 욕을 하지 않을 거야.
- 친구를 잘 챙겨줄 거야.
- 독서를 열심히 할 거야.
- 수업에 잘 참여할 거야.
- 재미있는 말을 해 줄 거야.
- 배경지식과 상식을 넓힐 거야.
- 조용히 할 거야.
- 친구의 강점을 찾을 거야.
- 상대방의 기분을 살필 거야.

나는 이렇게 해 볼 거야!

- 칭찬할 거야.
- 서로 도울 거야.
- 대화에 집중할 거야.
- 고운말을 사용할 거야.
- 착한 말을 사용할 거야.
-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할 거야.
- 경청할 거야.
- 연애는 나중에 할 거야.
- 화장을 하지 않을 거야.
- 청소에 잘 참여할 거야.

교육 후기 & 소감

학급에서 매 순간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난다. 학생들이 교사의 지시에 의해 일방적이고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면, 교사의 한 사람의 에너지로 감당하지 못할 수 있고, 문제 발생 후 뒷수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쓰게 되며, 교사는 지쳐가고 학생들의 성장은 더디기만 하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학급/수업 운영 규칙으로 하여, 학생들에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힘을 길러주자.

7. 서로 비방, 욕설하는 학생이 많은 학급

학급

학급 네비게이션 만들기

학생 특성 & 상황

- 수업 중 학급에서 친구들이 서로 비방하는 말이나 욕설을 자주 사용
- 친구의 실수를 발견했을 경우 놀리는 행동

교사 바람

- 서로가 배려하는 말과 행동하기
- 친구들에게 힘되는 말과 용기를 주는 말 하기

선택 방법

- 학급(수업) 네비게이션 설치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수학 교과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격차가 아주 큰 교과라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선행학습을 많이 한 아이와 학습 부진이 누적된 아이 모두를 수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다양한 성취수준의 학생들을 한 모둠으로 만들어 수업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둠 수업에 모두가 활발하게 잘 참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니 과제를 잘 해결하는 친구와 그렇지 못한 친구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모둠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서로를 원망하고 그 감정이 쌓여서 친구의 작은 실수도 그냥 넘기지 않고 놀리는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 교사로서 모둠수업 규칙을 만들어 붙이고 지도를 했지만 아이들의 행동은 별로 변하는 게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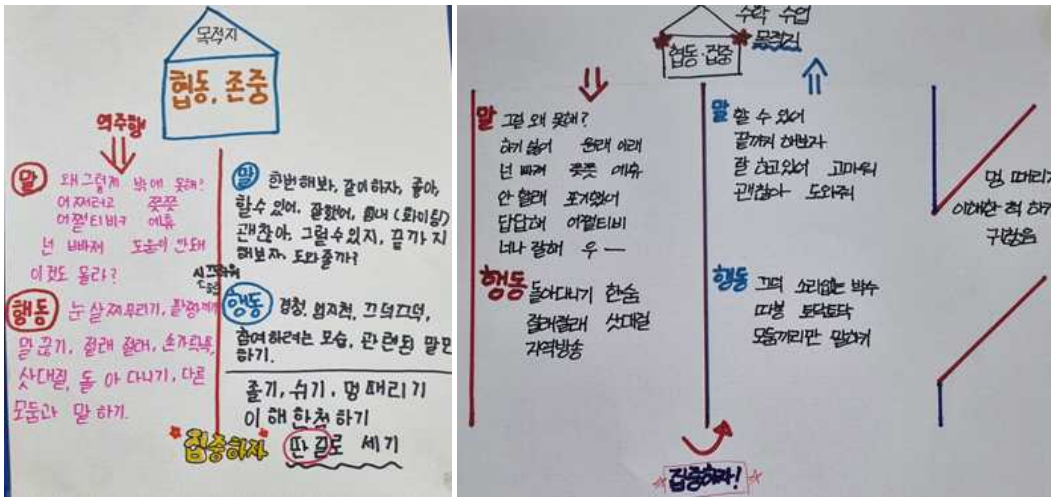
학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급긍정훈육법의 '가이드라인 만들기'의 신버젼으로 '학급 네비게이션' 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1. 학급 네비게이션 만들기
   네비게이션의 의미 : 우리 학급이 이루고 싶은 목적지를 정하고 그 길로 가는 방향 정하기
   1) 원하는 반(수업)을 포스트잇에 간단한 단어로 적기
      - 질문 : 우리반이 올해 어떤 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올 한해를 최고로 보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2) 같은 내용끼리 분류하기 그리고 제목(목적지) 정하기
      예) 협력, 배려, 존중, 우정, 행복, 다정, 청결, 질서 등..
   3) 가장 많이 나온 제목을 목적지로 정하고 순주행, 역주행의 폼을 그리기
      (목적지가 여러개가 있을 경우 모둠으로 나눠서 만들기)
   4) 순주행과 역주행의 말과 행동을 구체적 네비게이션에 쓰기
      (포스트잇 사용)
   5) 동의하는 항목을 선정하여 네비게이션 완성하기
   6) 실수로 역주행하는 경우 유턴 신호 함께 정하기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실제로 만든 학급 네베게이션 예시 〉



처음에는 귀찮다는 듯이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순주행과 역주행의 말을 대사로 쓰기 시작하니 아이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기 시작했다. 순주행의 말과 행동 보다 역주행의 말과 행동을 더 쉽게 써서 역주행을 먼저 쓰고 그와 반대되게 순주행을 써보라고 했더니 쉽게 완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역주행을 했을 경우 사고 발생전 순주행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만의 유턴신호도 정했다. 이렇게 완성된 네비게이션은 교실 앞에 게시하고 수시로 보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학급긍정훈육법 학급 가이드 라인 만들기〉

1. 가이드 라인의 의미 : 1년의 여행을 떠나기 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줄 나침반
   1) 원하는 반을 포스트잇에 간단한 단어(예 : 협력을 잘하는 반)로 적기
      - 질문 : 우리반이 올해 어떤 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올 한해를 최고로 보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2) 같은 내용끼리 분류하기 그리고 제목 정하기
      예) 배려, 존중, 우정, 행복, 다정, 청결, 질서 등..
   3) 템플릿 작성하기

우리의 바람은 _____ 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행동해요
우리의 가이드라인 우리는 _____ 합니다. 왜냐하면 _____ 때문입니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우리의 바람은 즐거운 우리 반 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행동해요
재밌는데. 잘 했어. 같이 해보자. 내가 해도 될까?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도와줄까? 나도 좋아하는데 알려줘서 고마워.	박수쳐주기. 호응해주기. 고개 끄덕여주기 나누어 쓰기 함께 연습하기 서로 돕기 함께 하기
우리의 가이드라인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즐거운 교실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즐거울 때 더 공부가 잘되기 때문입니다.	

4) 발표 및 동의하기
- 모둠 대표가 발표하기
- 혹시 지키기 어려운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수정 한다
- 가능하면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기(~~하지 않기 보다는 ~~하기)

5) 동의의 사인하기
- 동의 절차가 끝나면 잘 지키겠다고 서약한 후 앞에 나와 가이드라인에 사인을 한다.

6) 게시 및 돌아보기
- 학생들이 잘 보이고, 선생님이 자주 짚어줄 수 있는 곳(칠판 옆쪽)에 게시하고, 자주 상기시키고 잘 지키고 있는지 학생들과 확인해 본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거쳐 수정 한다

※ 출처 : 학급긍정훈육법 활동편

교육 후기 & 소감

학급 네비게이션을 만든 후 바로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의 말과 행동에 는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함께 정한 유턴 신호는 역주행의 말과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정말 효과가 좋았습니다. 긴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말과 행동이 잘 못 되었는지 즉시 알아차리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더 이상 “조용히해, 하지마, 안돼” 라는 단어는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교과 수업이나 학급 규칙을 정할 때 교사의 일방적인 규칙 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문제점과 바람을 생각해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회의를 통해 정하는 것은 학생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급 규칙이 아닌 학급 회의때도 네비게이션 모형을 적용하여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담임 교사의 훈육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 학부모님

학급

스스로 규칙 세우기

학생 특성 & 상황

- 대상 : 학급 전체
- 상황 :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로운 방향으로 학부모님께 상황을 전달하는 학생과 교사의 생활지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민원을 넣으시는 학부모님과 안전한 학급을 만들기 위한 규칙을 지키길 바라는 교사

교사 바람

- 학급안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긍정적인 학급을 만들기 위해 구성원으로서 노력하기
- 스스로 정한 것을 지키는 모습과 자기 조절능력 기르기
- 친절하지만 단호한 교사의 모습 보여주기

선택 방법

- 회복적 생활지도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바쁘고 정신없는 3, 4월이 지나 행사의 서막을 올리는 5월이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의 맑고 화창한 날씨를 놓칠 리 없는 우리 학교는 체육대회와 체험학습이 계획되어 있었다. 치열한 시작이었던 만큼 학급 아이들과 어느 정도의 규칙을 이룩했다고 생각했고 그 안에서 신뢰가 함께하고 있었다고 믿었다.

당시 나는 1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고, 문화 체험 및 대학교 탐방이라는 타이틀로 우리 아이들과 서울로 체험학습을 가게 되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체험학습이라 걱정이 많이 된 만큼 3, 4월의 생활태도를 보고 조를 편성하였다. 체험학습 당일, 선생님들 또한 시작점, 환승 지점, 도착점으로 조를 정해 아이들을 파악하였다. 나는 마지막 도착점에서 아이들을 파악하는 역할이었다. 아이들보다 먼저 도착해야 하기에 서둘러 장소로 이동하고 있을 때, 한 조로부터 연락이 왔다. 조원 중 △△가 연락이 되지 않아 30분째 이동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나 또한 △△에게, 학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으나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낸 후, 초조해할 아이들을 생각해 먼저 출발할 것을 권하였고 이 사실을 학년 톡방에 알렸다. 그런데 톡방에 한 선생님께서 △△가 다른 조와 함께 이동 중이라는 이야길 해주셨다. 그렇다. △△는 자신이 친한 친구들과 체험학습을 가고 싶어 단독으로 행동을 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와 다른 조원들이 도착지점에 이르렀을 때, 훈육을 했고 마무리되는 줄 알았다. 교장실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

학부모님에게 민원전화가 왔다고 했다. 아이들과 라포(Rapport)도 없는 담임이 우리 아이를 서울 한복판에서 훈육을 했다. 아이가 느꼈을 수치심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러한 방식을 취한 담임 교사를 언론사에 고발하고 교육청에 신고하겠다 등의 내용이었다.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우리 반 학생들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한 일들이 학부모님에겐 기본적인 신뢰 관계도 형성되지 않은 담임이 학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 고민되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무서워졌다. 내가 하는 교육 활동 들이 아동학대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생각해낸 것은 '스스로 규칙 세우기'였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학급에서 지켜지지 않는 자신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은 자신이 학급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었다. 각자 3개~5개 정도를 만들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담임이 정한 벌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실수로 피해를 입은 우리 학급의 회복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적기로 하였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스스로 규칙을 게시한 모습〉

Tip 1.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담임교사 모두를 위해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학부모님께 서면으로 상황을 전달해드렸고,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Tip 2. 모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합니다.

Tip 3. 학급의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초안을 작성합니다.
(학급회의를 통해 공통으로 지킬 규칙을 정하고 그 외의 개별적으로 1~2가지 추가합니다)

Tip 4. 작성한 초안을 학부모님과 검토 후 수정·보완합니다.

Tip 5. 원본은 학급 게시판에 게시하고 복사한 한 부는 학부모님께 보내드립니다.

Tip 6. 스스로 규칙에 따라 학급을 운영하며, 학기말에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를 토대로 2학기에 수정·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육 후기 & 소감

학급회의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규칙과 스스로를 생각하며 만든 규칙이었기 때문이었을까 아이들이 반발심을 갖기보다는 함께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규칙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때로는 반 친구들이 대부분은 스스로가 적은 규칙을 보며 반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이런 방식으로 학급을 운영하게 된 배경과 과정들을 지켜보며 많은 지지를 보여주신 학부모님들이 있어 이전에 겪었던 상황을 많이 위로받을 수 있었다.

9.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

학급

학부모, 교사, 학생은 서로의 연결 고리

학생 특성 & 상황

- 한부모 가정 또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많음
- 중학교 때 성실하지 못한 생활 습관으로 지각, 결석이 많은 학생이 일부 있음
- 보호자와 연락하는 상황을 대부분 좋아하지 않음

교사 바람

- 학부모, 교사, 학생 간 신뢰 형성
- 성실한 생활 습관 형성

선택 방법

- 신학기 학부모 서신 발송, 3월 중 모든 학부모 상담, 상황 발생 시 학부모 및 학생 상담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신학기 첫날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며 학급 경영 계획을 안내하고 피드백을 한다.

이때 교육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소통해야 함을 설명하고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를 나누어 준 후 3월 중에 유선 또는 무선으로 1회 이상 학부모 상담을 할 것임을 안내한다(학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내용이나 전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미리 개별적으로 이야기해 주기를 요청).

학부모 서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사 소개
- 성실한 생활 태도와 올바른 인격 형성의 중요성 설명
- 학급 경영 계획 안내
- 학부모, 학생, 교사의 소통과 신뢰의 필요성 설명
- 3월 중 상담 가능일 회신

학부모 상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동안 본 학생의 특장점을 설명
- 학생의 건강, 생활 특성 등에 대해 알아야 할 부분 문답
- 학생, 학부모, 교사 간 소통의 중요성 설명, 자주 연락드릴 수 있음을 안내
- 현장체험학습 및 지각, 결석 발생 시 연락 방법 안내

학기 중 상황 발생 시 상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황 발생 안내
- 학생의 생활 모습 중 장점 안내 및 피드백
- 학생의 생활 모습 중 개선점 안내 및 피드백
- 원만한 상황 해결과 학생 안정을 위한 피드백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학년 반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일 년 동안 귀댁의 자녀를 가르치고 지도할 ○학년 ○반 담임 ○○○입니다.

자녀를 고등학교에 입학시키고 여러 가지로 관심과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 저의 학급 교육 활동 계획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편지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용국어교과를 맡고 있으며, 교직에 들어선 지는 올해가 ○○년 째 입니다.

한국주얼리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각오가 새로울 것입니다. 아이들의 이런 첫 마음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춘기 시기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가정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자녀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과 여유를 길러주는 것입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신을 통제하기에 아직은 어린 나이입니다. 엉뚱한 일에 몰두하고 있지 않은 지, 말 못할 문제로 고민하거나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배려하고 살펴주십시오.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시어 자녀와 대화를 자주 나누시는 것도 아이들과 소통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반의 급훈은 '습관이 삶을 결정한다.' 입니다. 하여 올바른 습관을 들이고 항상 개개인의 특성을 살리며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교직생활을 통하여 제가 배운 것 중 하나는 성실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결석 학급을 목표로 학기를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의 도움과 학생 개개인의 노력이 없다면 결대 이룰 수 없는 일이기에 미리 부모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시기이기에 아이들에게 조퇴나 지각, 결석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또한 한 학생의 습관이 다른 학생에게 본보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하다 보면 간혹 아플 때도, 가정에 일이 생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저에게 꼭 미리 연락을 주십시오. 체험학습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적어도 7일 전에는 연락을 주셔야 학교에서 기안을 올려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은 가정과 학교가 힘을 합칠 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느끼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점이나, 상의할 점이 눈에 띄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 대해 담임교사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사항도 알려주시면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학교 문은 학부모님들에게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십시오.

올 한 해 동안 가정에 넉넉한 웃음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년 ○월 ○일 ○학년 ○반 담임교사 ○○○ 올림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바랍니다. (학교 ○○○-○○○○, 담임 연락처 010-○○○-○○○)

교육 후기 & 소감

- 학부모와의 연락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사라짐.
- 학부모와의 수시 연락으로 학생 생활 파악 및 피드백 수월
- 학부모, 학생, 교사 간 소통과 신뢰 문화 형성
- 성실한 생활 태도 형성
-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라는 문화 형성

03 학년·학교 전체 운영

1. 학년형 학생생활교육

학년

한 학년 모두가 한 가족 되기!

학생 특성 & 상황

- 담임교사별 생활교육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교육의 어려움
- 작은 학교의 이점을 살려 교육하는 방식 선택

교사 바람

- 학년 협의를 통한 학생 생활 교육 실시
- 능동적인 학생, 참여하는 학생 문화 형성
- 학생과 교사가 함께 즐거운 학교 문화 형성

선택 방법

- 주기적 학년 협의로 함께 하는 교육, 놀이 및 체험

소! 확! 행! 생활교육 스토리

1. 매주 1회 학년협의 실시

- 일주일 간 일상 나누기
- 일주일 계획 세우기
- 피드백

2. 좋은 글 나누기

- 매일 교실에 같은 글을 게시하여 조회 시간에 피드백

3. 다양한 활동 함께 하기

- 주먹밥 데이 : 교사가 준비하여 같이 아침 먹기
- 빅마우스 대화 : 입이 큰 친구 축하하기
- 림보 대회 : 몸이 유연한 친구 축하하기
- 찌질이 선발 대회 : 올바른 언어 습관 및 사과하는 문화 형성하기
- 자존감 킹왕짱 : 자존감 키우기
- 파워걸 : 팔씨름 잘하는 친구 축하하기
- 알깨기 : 자신의 고정 관념 및 고쳐야할 습관 깨기
- 내몸 점검 : 자신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관찰하기
- 나는 아나운서 : 고운 말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친구 축하하기
- 삼겹살 데이 : 모두 함께 준비하여 학교에서 삼겹살 파티

4. 꿈 상장 수여

- 다양한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을 응원하고 축하하는 내용의 상장 수여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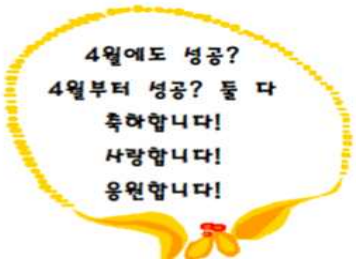
5. 학년 특색의 날 운영

교시	활동영역	행사명	행사 내용	장소
4교시	진로활동	특별 강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 위한 뇌 훈련법	과학실
5교시	자율활동	체육 행사	림보, 고리 걸기, 신발농구, 학급별 이어 빨리 걷기	운동장
6교시	봉사활동	교내외 환경 정돈	교실 및 학교 주변 청소	교사 내외

6. 선배와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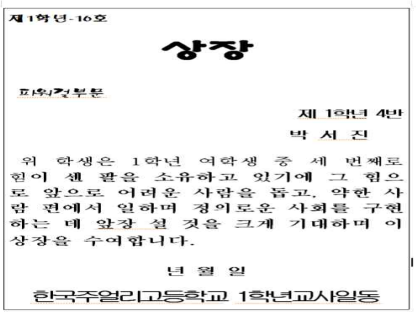
- 열심히 살아가는 선배 초청하여 대화하기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사랑하는 1학년^^
1학년만 함께 하는 특색활동을 안내합니다.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자구요.^^
- 언제 : 2018년 9월 7일(금요일) 12시부터
- 어디서 : 일단 교실에서
- 누가 : 1학년 학생과 선생님이
- 무엇을 : 삼겹살 구워 먹고, 게임도 하고
- 어떻게 : 푸짐한 상장과 상품을 걸고 모두가 참가해서
- 준비물은 : 체육복, 운동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 보아요~~~


제 1학년-10호

상장

피워컵부분

제 1학년 4반
박 시 진

위 학생은 1학년 여학생 중 세 번째로 힘이 센 팔을 소유하고 있기에 그 힘으로 앞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약한 사람 편에서 일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 설 것을 크게 기대하며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한국주얼리고등학교 1학년교사일동

교육 후기 & 소감

- 즐거워하는 교사와 학생의 발견
- 학생과 교사 간 신뢰 형성이 자연스럽게 생활교육으로 연결
- 여럿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 구성과 협의로 아이디어 창출 및 수월한 진행
- 함께 한 모든 교사의 만족과 감사

2. 학생생활교육은 모두 함께

학교

학생생활교육은 모두 함께

학생 특성 & 상황

- 대상 : 전교생
- 상황 : 학교생활규정을 따르지 않는 학생들을 개별지도 하다보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규정을 따르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남.

교사 바람

- 전교생이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바른 생활태도 가지기
- 학교 부적응 학생을 줄이기

선택 방법

- 월 1회 담임교사와 생활안전부 교사 모임, 학부모 내교 상담, 회복적 생활교육

소! 확! 행! 생활교육 스토리

1. 월1회 담임교사 모임
(교육자료 배부, 생활지도 방법, 학부모 내교 및 생활지도 학생 협의, 월간 생활지도 계획 등)

실천과제	세부추진내용	목표	시기
소통과 공감의 평화로운 교실 만들기	월별 관계중심 생활교육 계획 수립	월1회	연중
	사제동행 학교생활 우수학급 시상	월1회	연중
	사제동행동아리 운영	수시	연중
	전문적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수시	연중
	학생자치회 활동 연계	수시	연중
	회복적 상담교육 활성화	수시	연중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 시 생활교육	건전한 학생생활을 위한 온라인 생활지도	필요시	연중
	가정과 연계 협력체계 강화	필요시	연중
	학생비행 및 탈선 예방교육	필요시	연중
학생생활규정문화정착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및 개정안 작성	1회	4~5월
	학칙 공포·시행	필요시	연중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2022학년도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지침 및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운영	필요시	연중

2. 교사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회복적 생활교육 등)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 3월 : 연간 계획 수립 및 안내
- 4월 : 각종 예방교육(학교폭력 예방, 자살 예방, 가정폭력 예방), 생활교육 협의, 학업중단예방활동 안내, 등하교 안전교육, 미인정 결석학생 관리(내교 상담자 협의), 협의 필요사항
- 5월 : 학생생활규정 개정 관련 협의, 학업중단예방활동,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내교 상담자 협의), 따사로운 학교 만들기 협의(부모와 교사의 사랑 전하기), 생명존중 교육, 협의 필요사항
- 6월 : 학생생활교육 피드백, 학업중단예방활동,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내교 상담자 협의), 따사로운 학교 만들기 협의(교직원장학회장학금지급), 협의 필요사항
- 7,8월 : 학생생활교육 피드백,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내교 상담자 협의), 인성교육, 방학 중 생활교육, 협의 필요사항, 연수 안내
- 9월 : 학생생활교육 피드백, 학업중단예방활동,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내교 상담자 협의, 위탁 희망 학생 파악) 따사로운 학교 만들기 협의(마음통통 프로그램 실시 협의), 협의 필요사항
- 10월 : 학생생활교육 피드백, 학업중단예방활동,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내교 상담자 협의) 따사로운 학교 만들기 협의(동상동몽 프로그램 실시 협의), 협의 필요사항
- 11월 : 학생생활교육 피드백,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내교 상담자 협의,) 따사로운 학교 만들기 협의(자살 및 자해 시도 학생 지원), 미인정결석 학생 발생 시 업무 처리, 협의 필요사항
- 12월 : 학생생활교육 피드백,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내교 상담자 협의,) 따사로운 학교 만들기 협의(마음성장 기록 협의), 교통 안전 교육, 재난 대응 교육 피드백, 협의 필요사항
- 1월 : 연간 활동 피드백, 차년 계획

교육 후기 & 소감

- 담임교사와 생활안전부 교사의 협의로 학생 생활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구성원 전체가 함께 하는 생활교육이 이루어짐
- 공동체에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절제와 참여를 익힘
- 함께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담임교사의 부담이 줄었음.

Ⅲ

학생생활지도 꿀팁!

1. 초등학교 유형별 사례
2. 중 · 고등학교 유형별 사례

01 초등학교 유형별 사례

1. 친구들 사이에서 분란을 만드는 학생 ①

개인

가자, 기린말 대화 현수막 앞으로!

학생 특성 & 상황

- 학생 특성 : 친구들을 뒤에서 밀치거나 잡아당기고, 발로 툭툭 차고, 매사 돕는다면서 간섭하고 다니는 학생
- 상황 : 복도에서 여자아이 둘이 말하고 있는데, "우왕"하면서 확 밀치고 달아나 놀란 여자 아이가 선생님에게 와서 속상함을 토로한 상황

교사 바람

-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 상호 배려심 키우기, 우정 쌓기, 자기조절력과 올바른 자기표현력 기르기
-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교사의 자세 보여주기, 전문성 발휘하기, 공동체 질서 알리기

선택 방법

- 비폭력대화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우리 교실 전면 게시판에는 "비폭력 공감대화로 평화의 교실을"이라는 현수막이 일년 내내 게시되어 있다. 시각적으로 눈에 띄어야 아이들도 익숙하게 사용하고, 은연중에 마음에 녹아들기 때문이며, 교사도 보이는 곳에 생활교육의 기준과 대화의 패턴을 명시하여 놓을 때 활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1등으로 마쳐야 직성이 풀리고, 일일이 선생님에게 확인을 받아야만 안심을 하고 예쁜 행동만 하려고 하는 □□이는 유독 선생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이리저리 왔다갔다 부산스럽게 행동하거나 친구들을 건드리고 다니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심지어 앞자리에 앉은 여자 아이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른 일도 있어서 심장이 내려 앉은 채 일을 어찌 해결하였는지 하루하루가 살얼름판을 걷는 것만 같았다.

그 날도 화장실을 다녀오던 □□이가 복도에서 말하고 있던 두 여자 아이 중 한 명을 뒤에서 놀래킨다며 확 밀어버린 일이 생겼다. 평소 너 이쁘다거나 얼굴 가까이 대고 말해서 기분도 나빴는데 오늘은 정말 화가 난다고 더 이상 못참겠단다.

"♡♡이가 많이 속상했겠네. 선생님이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화도 나겠어. ♡♡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 선생님이 혼내주기 바라는 거야, 아니면 선생님의 위로를 받고 싶은거야? □□이의 진심어린 사과를 원하는 거야?"
"저는 선생님이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가 사과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여기로 불러서 같이 얘기해도 될까?"
"네~"
♡♡이에게 동의를 얻은 후 우리는 비폭력 기린말 현수막 앞으로 자리를 옮겨 □□이를 불렀다. 그리고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하여 비폭력 공감대화 중재를 시작하였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누가 말해 줄래?
(♡♡이-보통은 더 속상한 아이가 먼저 말한다.)
"그랬구나. ♡♡이 얘기 듣고 보니□□이는 어때? 혹시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니?
(□□이-♡♡이 이야기를 듣고 맞다던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다행스럽게도 □□이는 인정은 잘한다.)
"아, 그랬구나. 그 때 친구의 마음은 어땠을까?"
현수막의 느낌을 가리키며 질문하고, 그 친구 마음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질문하였다.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속상하고 화났을 것 같아요."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괴롭히지 않는 걸 바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약속해 줄래?"
"앞으로는 친구 안 밀고, 가까이 가지 않고....."
마치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지 학습이 잘 된 아이처럼 대답을 술술술 잘한다.

"잘 모르고 할 때는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알고도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잘못이야."
"지금 □□이는 뒤에서 친구를 밀었던 행동, 원하지 않는데 얼굴 가까이 대고 이쁘다고 말하는 일이 친구를 괴롭히는 일이라는 걸 스스로 알아차리고 말했어. 그리고 약속했어. 앞으로 할 일을! 그리고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하는데 그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거야.(강한 어조로) 앞으로 선생님은 널 지켜 볼거란다. 지금 너가 말한 걸 잘 실천하는 지!"
"선생님은 네 안에 지켜나갈 힘이 있다고 믿거든. 자 이제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린말로 해보자!"
단호함으로 깨우침을 되새겨주고, 약속이행을 부탁한 후 둘 사이 대화의 기회를 주었다.
"내가 너를 뒤에서 밀었을 때 깜짝 놀라고 속상했지. 정말 미안해."
"너는 안전하게 지내기를 바랐을텐데 앞으로는 친구를 밀거나 만지지 않을게."

스스로 말하기 힘들 때에는 교사가 비폭력 공감대화 현수막을 보면서 차례대로 리드해 주는 연습을 하면 어느 순간 비슷하게라도 아이들이 말의 모습을 그렇게 바꾸게 되고, 자기들 사이에서 '기린말로 해야지'라거나 '그건 기린말이 아니야'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자체적으로 말의 모습을 따듯하고 부드럽게 바꾸어 가는 태도가 형성되었음을 발견하게 되고 전체적인 교실 분위기가 평화적으로 바뀌고 아이들 품성이 성장함을 느끼게 되었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 학토재, 아이스크림몰, 티처몰 구매 가능

학생 생활교육을 위해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 공감대화연구회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직접 개발한 현수막을 교실 앞 전면게시판에 부착하여 갈등상황에서 수시로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교육 후기 & 소감

생활교육은 갈등을 일으키는 한 두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나머지 대다수의 학생들을 활용한 선한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그림책 맘봄대화처럼 학급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활교육을 밥 먹이듯이 수시로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리 학급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기린과 자칼" "기린말과 자칼말"에 대하여 알아보는 기회를 갖고 난 후 학생 사이 갈등이 생겼을 때나 수업시간중 교사에게 자극이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기린/자칼 머리띠 사용과 함께 현수막은 눈에 보이는 처방전과 수액 같아서 바로 연습하고 실행해 볼 수 있어서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매일 지속적으로 연습하듯 사용하면 교사를 지키며 더 평화롭게, 아이도 평화롭게 학부모도 평화롭게 하는 생활교육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비폭력 대화의 미러링교육은 꼭 필요하며, 교사의 시범적 교실 사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먼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교사 자신의 "자기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친구들 사이에서 분란을 만드는 학생 ②

개인

그림책 학급경영 및 소속감 심어주기

학생 특성 & 상황

- 학생 특성 : 자신보다 힘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
- 상황 : 3월 입학식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3월 4일. **이의 어머님께 긴 문자를 받았음. △△이가 **이의 뒤에 서는 친구인데 급식실이나 강당 등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밀고 발차기를 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우려가 가득한 내용이었음.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가 4~5번 정도가 있었고 학교폭력 사안 접수 직전 담임 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상황

교사 바람

- 학생 모두가 학교를 안전한 곳으로 여기고 정서적 편안함을 느끼길 바람.
  친구의 몸과 마음을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친구 간에 지켜야 할 가치 덕목들이 내면화되길 바람

선택 방법

- 그림책 학급경영, 가정과 지속적인 교육 방법 논의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이는 또래 학생들에 비해 체구가 그리 큰 편이 아니었다. 그런 △△이보다 더 체구가 작은 **이는 다소 발음이 부정확하고 소근육발달이 더딘 학생이었는데 소위 교사가 말하는 '너~무 착한' 아이였다. **이에게도 '싫어! 나에게 그러지마! " 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연습하였다.

△△이는 한 살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였다. 어느 날은 △△이와 상담을 하다가 이마에 작은 상처가 보여서 어디에서 다쳤냐고 물어보니 누나가 화를 내며 연필로 내리찍었다고 했다. △△이도 화가 나서 주체가 안 될 때 가위로 책상을 내리찍거나 빨간색 사인펜으로 책상과 의자를 모두 색칠한 적이 있었다. 친구가 맘에 들지 않을 때 친구를 향해 목을 긋는 행동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이는 지각도 잦았다. 1교시 안에 들어오면 일찍 들어오는 편이었고 그렇게 교실에 들어와서도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잘 때가 많았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돌봄교실에 가는 △△이는 돌봄교실에서 잘 때도 많았다. 하루는 돌봄 선생님께서 세수를 해서라도 잠을 깨워보자고 화장실에 데려갔더니 자기의 잠을 깨웠다며 일부러 화장실 바닥에 소변을 본 적도 있었다.

학생을 위해 교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한계가 있다. 학생의 긍정적인 변화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리 저리 교사가 애쓰더라도 학생의 양육자가 변하지 않으면, 학생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의 어머니는 △△이의 문제 행동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셨고 △△이의 아버지는 △△이를 과한 체벌로 훈육을 하시는 편이었다. △△이를 맡은 1년 동안 △△이의 부모님과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전화와 대면 상담을 했다. '내가 교사가 된 것이 어쩌면 이 때를 위함이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진행한 것이지만, 사실 더 솔직한 내 마음 속 동기를 꺼내본다면 나는 어쩌면 이러한 교육적 행동들로 나를 보호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의 담임을 맡기 바로 전 해에 학교폭력업무를 포함한 안전생활부장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그 때의 시간들을 떠올리며 △△이로 인해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 올까봐, 담임교사는 어떻게 지도했냐고 확인받을까봐 나는 그렇게 애썼던 것일까? 그 동기가 어떠하였든 △△이의 부모님도 함께 걸음을 맞춰 주셨고 △△이 양육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 스마트폰을 새벽 4시까지 하던 △△이. '눈이 바쁜 아이'를 부모님과 함께 읽으며 스마트폰 사용 절제를 위해 온 가족이 노력했다. △△이 부모님 뿐 만이 아니라 3월 첫 날 담임편지에서 부탁드린 것처럼 △△이도 내 아이처럼 바라봐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학부모님들과 내 학급 일처럼 여기고 함께 마음 모아 주셨던 동학년 선생님들께 참 감사하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이를 맡은 해 동학년 전체가 〈그림책 학급경영으로 마음 근육 키우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다. 우리 반만 하는 것이 아닌 동학년 안에서 함께 그림책 학급경영을 했던 것이 시너지 효과가 컸다. △△이가 친구와 다퉈서 분을 참지 못하고 다른 학교 전학가고 싶다고, 뛰쳐나가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학년부장님께서 △△이를 그림책 공감대화로 상담해주시기도 하셨다. 소속감이 채워지지 않은 학생은 자아존중감 형성도 어렵다. △△이는 잦은 지각, 문제 행동들로 인해 학급 친구들에게 '우리 반 문제아'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고 △△이도 분명 이것을 느꼈을 것이다. △△이에게는 소속감을 심어주기, 다른 친구들에게는 우리 모두가 같은 반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아래의 그림책을 포함한 여러 그림책들을 일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읽어 주며 대화를 나눴다.

세상에 필요한 건 너의 모습 그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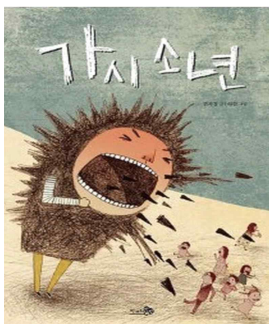
| 저자 조안나 게인즈
| 출판 템북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지 말고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라는 작가의 머리말이 뭉클하다.

왜 아무도 고슴도치를 쓰다듬어 주지 않을까

| 안드레이 쿠르코프, 타니아 고리시나
| 송민영 옮김 / 템북

정체성과 자존감 찾기, 친구의 소중함을 발견하기, 다름의 차이를 받아들이기 등 보물이 가득한 책!



△△이는 함께 읽은 책 중에서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그림책이 〈가시 소년〉이라고 했다. 아마도 △△이는 친구들에게 가시를 뱉어내는 가시 소년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 같다. '저도 가시를 없애고 싶어요' 말하는 △△이를 꼬옥 안아주었다. (학년 말 헤어질 때 이 그림책을 △△이에게 선물함.)

또래활동 운영비로 샌드아트 공연과 체험을 계획하고 있던 중, 작가님께 그림책 '가시소년'으로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해주셨다. 1학년 모든 학생들이 공연 내내 얼마나 몰입했는지 작가님이 그동안 다녀 본 학교 중에서 관람태도가 최고였다고 공연 후 따로 문자를 주시기도 하셨다.

교육 후기 & 소감

일 년 내내 우리는 그림책과 함께 했다. 때로는 그림책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자신이 아프게 했던 친구들을 떠올리게 하는 등장인물들을 만나기도 했다. 그림책 한 권의 힘이 참 놀랍다. 그림책을 통해 재미와 의미 둘 다 만나는 멋진 경험은 각자의 마음 밭에 소중한 씨앗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3. 친구들 사이에서 분란을 만드는 학생 ③

개인

그림책으로 맘봄! "기린의 날개"

학생 특성 & 상황

- 학생 특성 : 다른 반 학생을 자주 때리고 욕하고 다니는 학생
- 상황 : 학년부장을 맡고 있을 때, 옆반 △△이가 다른 반 아이들을 툭툭 치고 다니며, 거친 말과 욕설을 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학생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어 학교폭력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었음.

교사 바람

- 학생 상호간 친밀한 관계, 평화로운 교실, 학생들의 정서 및 신체적 안전, 따뜻한 연결, 교사로서 전문성 발휘, 바람직한 자기표현 방식 깨달음,

선택 방법

- 그림책 공감 대화, 좋은 세계 상상해보기, 교사의 지속적 관심과 응원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우리 교실로 잠깐 가서 선생님하고 그림책 볼까?' 하니 느닷없이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이 더 편하고 좋아요. 학교 오면 좋아요."
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따지듯이 묻지 않았습니다.

방과후 학교폭력 민원이 들어온 옆반 아이를 데려와서 무릎담요 창가에 펼쳐놓고 둘이 벽에 기대어 앉았답니다. 그저 평소 가정적으로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 아이의 삶을 알기에 의지할 데 없는 어린 꼬마에게 "기린의 날개" 그림책을 읽어주고 싶었어요.

그림책 속에서 꿈을 찾으러 이곳저곳 다니는 주인공 기린을 보며, 너는 꿈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물으니 행복한 가정을 갖는 거라네요. 고작 10살 밖에 안되었는데.....마음이 아팠어요.
"행복한 가정을 갖는 게 네 꿈이구나. 꼭 이루어질 거야. 선생님이 같이 바랄게"
"음.....그럼 친구들에게 너가 한 일이 행복한 가정을 갖는 꿈을 이루는데 도움 되는 일일까?"
당연히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두 눈이 동그래져서 두렵고 슬픈 듯이 '아니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시간을 다시 뒤로 돌린다면 그때 친구랑 어떻게 하고 싶어?"
했더니 꼬마는 생각이 다 있었어요. 친구랑 사이가 나빠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동이 친구를 속상하게 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답니다. 다만 부정적 행동이 습관화 되어서 고치기 어려운 것이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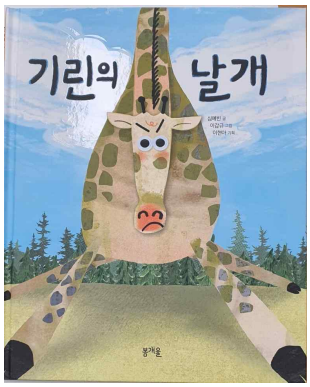
그림책 속에서 기린이 자기에게 어울리는 날개를 얻게 되었을 때에는 제일 잘 어울린다고 환하게 웃으며 자기 일처럼 좋아했습니다. 가게 안의 다른 날개가 갖고 싶었을 텐데, 그걸 달았다면 어땠을까 했더니 너무너무 안 어울려서 못 날을 거라고 말합니다.

"너에게도 딱 어울리는 날개가 있단다. 그런데 학폭신고 당하는 일처럼 친구 사이 속상한 일 자꾸 생기면 꿈날개가 꺾여 안펴질 수도 있어서 선생님은 그게 걱정이야."
했더니 이제 조심하고 친구한테 좋은 말을 하겠답니다. 물론 한 번의 만남으로 이 꼬마가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기대는 교사를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한 방울의 물이 가슴을 적시지는 않았을까, 꾸중과 지적이 난무하던 아이에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본 선생님이 자신의 곁에 있었다는 걸 무의식 속에 심었다면 최악의 길로 들어서지는 않을 테지요. 오늘도 따뜻한 햇살 드는 창가에서 읽은 그림책 한 권이 마음에 상처 입은 꼬마와 소통하게 하는 연결 통로가 되었습니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교육미술관 통로〉

어린이작가 심예빈이
5학년때 만든 창작그림책



어린이작가 심예빈과
그림작가의 협업으로 탄생한 그림책

그림책으로 맘봄! 그림책 공감대화 이렇게!

1. 먼저 표지를 감상해 보아요.
   -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등
2. 제목을 바꾸어 보기도 해요.
   - ( )이의 날개
3. 기린의 날개? 궁금함을 자극하면서 표지를 넘겨요
4. 면지(속지)를 보며 예상해 보아요.
   - 면지는 내용을 추측, 상상하도록 암시해요.
5. 상담 상황에서 머물고 싶은 부분에서 대화 나누면서 그림책을 보아요.
   - 기린의 마음과 바람을 들여다보기
   - 확장 및 적용 질문하기
6. 주인공과 동일시하여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아를 격려해 주세요.
   - 책임 이행 부탁과 약속하기
   - 희망적인 응원과 격려하기
7. 읽은 책 잘 보이는 곳에 전시하여 주세요.
   - 아이들이 다시 읽고, 집에서도 사서 읽는 아이도 있어요.

〈학급운영 원칙〉

〈그림책으로 맘봄! 질문〉

교육 후기 & 소감

직접 강하게 지적하여 말하면 정서적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는 세상 두렵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하고 싶은 이야기 다할 수 있는 생활교육, 인성교육 매체 그림책!

두렵다고 아무것도 안하자니 교사로서 우리는 교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지요. 교직경력 긴 세월 속에서 교사가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생활교육 하면서도 꽤나 효과적인 적절한 방법이라고 찾아낸 것이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은 아이들의 삶을 반영한 경우가 많아서 잘 고른다면 마음을 흡족하게 토닥이고, 선생님을 존중하면서 학교생활을 즐겁고 평온하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로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한 권의 그림책으로 아이들과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권 부모교육 그림책으로 알림장 추천-소통합니다. 이 또한 가정연계 생활교육으로 효과적입니다.

4. 친구들 사이에서 분란을 만드는 학생 ④

개인

정서행동 위기학생은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학생 특성 & 상황

- 학생 특성 : 가정에서의 돌봄이 살뜰하지 못함, 학교폭력 관련학생
- 상황 : 빈번한 학교폭력 신고 대상자(피해,가해 양쪽 다 관련됨)

교사 바람

- 갈등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기
  "갈등은 아주 뛰어난 교육적 소재다"
  * 박숙영 저「회복적 생활교육을 만나다」121P

선택 방법

- 회복적 생활교육,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소! 확! 행! 생활교육 스토리

새 학교로 옮긴 후 학교폭력업무를 포함한 안전생활부장을 맡았다.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었다. 관련학생 둘 다 외국인 학생이었고 더군다나 한 학생은 타학교 학생이었다. 새 학교에서의 3월.. 그 자체만으로도 적응하기 버거웠던 나에게 교무실로 온 지구대의 전화 한 통은 학교폭력업무의 전쟁 같은 여정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 이후로도 여러 건의 학교폭력 사안 또는 유사사례(관련학생 학부모가 학폭 접수 신청하기 전 업무담당자와의 상담을 요청하는 것)로 인해 정작 내가 돌봐야 할 나의 자녀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일쑤였다. 어느 날 저녁식사도 거른 채 교실에서 녹음기를 켜고 관련학생 아버지의 폭언에 가까운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눈물을 터뜨린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자 "엄마, 또 학폭 생겼어요? " 라며 나를 안아주던 아이들과 날 위로하는 남편.

학교폭력업무 담당자에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손에서 놓을 수 없는 바이블과도 같다. 현행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 흐름도만 보면 비교적(?) 간단하게 보이겠지만 각 절차마다 변수가 많다. 예를 들어, 관련학생 사안조사 자체를 거부한 적도 있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결정되었음에도 조치 불복으로 행정심판까지 진행된 적도 있다.

이 매뉴얼대로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괜히 '교육적 해결'을 하려다가 '학교폭력 은폐 의혹'에 휩싸일까봐 관련학생 학부모들과 통화할 때 반드시 녹음기를 켜고 단어 하나도 고르고 골라 조심히 내뱉는다. 끝이 안 보이는 핑퐁과도 같은 통화 몇 차례가 끝나면 진이 빠지고 두통과 속쓰림이 따라 온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하며 잊을 수 없던 사례를 소개한다. 다음의 사례는 결국 학교폭력사안으로 접수되지 않았기에 사안에 대한 비밀유지의 의무가 없어 간략히 소개한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사례:우리 반 △△이는 담임을 맡자 여럿 선생님께서 "△△이가 선생님 반이예요?" 라며 걱정해주셨던 학생이었습니다. 제 몸무게 2배가 나가는 우리 반 △△이 공원에서 같은 반 친구 □□와 다툼이 벌어졌고 상대 학생이 크게 위협을 느낄만한 도구를 집에서 가져와서 상대 학생 몸에 들이 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담임으로서는 자괴감에 빠졌고 (내가 얼마나 그동안 너를 챙겼니! 라는 마음에 무너졌음.) 그리고 학교폭력업무담당자로서는 그 동안의 경험으로 비추어 결말이 보였다. 정신적 피해로 인한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4가지 중 1가지라도 불충족, 바로 심의대책위원회로 가겠구나. 피해관련 학생 □□의 어머니께 먼저 전화를 드렸더니 학교폭력 접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예기치 못한 대답에 놀라움, 안도감(?)에 이어 '왜?'라는 의구심 등. 여러 감정이 들었다. 사실 □□이도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많이 겪은 학생이여서 □□이의 어머니와는 여러 번의 상담으로 래포가 잘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가 학급 내에서 보이는 문제행동들이 애정결핍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말씀드렸다. "□□ 어머니, △△이에 대한 안쓰러움 때문에 결정하신 것 같은데 □□ 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때 너무나 큰 공포를 느꼈다고 해요. 우리 부모님은 날 지켜주지 않는구나, 그냥 이 일을 아무렇지 않게 넘긴다고 여기면 어쩌지요? "

나에게는 둘 다 소중한 제자들이지만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가해자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이의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 나의 진심이라고 해서 정답은 아닐 수 있음을 알았다. □□이의 아버지는 경찰관이셨다. 그것도 학교폭력전담경찰 경력이 매우 높으신. 처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셨다고 했다. 학교와 교육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고통을 들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칠 기회를 줘야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함께 모였다. 위클래스 상담교실에서 □□이의 부모님과 △△이의 할머니, 내가 동그랗게 앉아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눴다. 고개를 숙이고 우시는 할머님을 □□이 부모님께서는 오히려 위로해 주셨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이와 △△이도 지켜봤다.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시 역할 예시>

교장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의 총괄
교감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관리 ■ 외부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진행
담임교사	■ 학생 및 보호자에게 안내, 동의 확인 진행 및 협의 ■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 ■ 관계회복 프로그램 이후 사후 관리 진행 및 협의
책임교사	■ 사안에 대한 파악 및 공유 ■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
상담교사	■ 심리·정서적 개입 및 진행 ■ 기타 정서적 위기 상황에서의 자문 ■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

* 교육부 출처

-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양측 학생이 동의할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다.
- 관련학생이 둘 다 우리 반 학생이었기 때문에 '담임표장기적 프로그램(?)'이 가능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기간에도 일주일에 1회씩 나와 만났다.

교육 후기 & 소감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여러 의미에서 너무나 조심스러운 말이다.

또한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해 냉소적 시각이 있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회복적 생활교육을 경험한 많은 현장 교사들은 이러한 회복 프로그램이 **속도는 더디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학교 내 갈등을 해결하고, 학교 밖 전문가와 연결해 줄 수 있는 전문교사 양성이 절실하다. 회복적 과정에 대한 교내 전문가가 없는 경우, 교육청의 지원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해 학생이 다시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같은 해 6학년에서도 학폭이 터졌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으로 봉사 *시간이 내려왔다. 그 봉사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 보고까지 학교폭력담당자가 하는 일. 고민하다가 구성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영화 〈원더〉를 보고 감상 활동지에 글을 적어 오는 것이 있었다. 조치사항 중 서면 사과도 있었는데 사과편지에서는 못 느꼈던 진심이 감상활동지에서 느껴졌다면 나의 오버일까? 그 학생이 적은 '영화 속 가장 기억 남는 대사'로 마무리한다.

- "위대함은 강함에 있지 않고 힘을 바르게 쓰는 것에 있다 " 영화 원더 -

5. 친구들 사이에서 분란을 만드는 학생 ⑤

개인

마음의 평화를 찾아라!

학생 특성 & 상황

- 학생 특성 : 친구를 때리고 다니거나 책상을 치고 돌아다님
- 상황 : 수업 중 자리를 이동해서 한 학생을 때리고 교사의 제지를 받으면 다른 학생들의 책상을 치면서 교실 이곳 저곳을 돌아다녀 수업 방해. 학교폭력 신고 접수되었으나 가해 학생 학부모는 교사의 대처에 문제가 있다며 민원 제기함.

교사 바람

- 가피해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모두가 행복한 교실

선택 방법

-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_감정 다루기 연습, 공동체 놀이로 행복한 또래 관계 경험, 위클래스 상담 연계 후 학생 및 부모상담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A와 B는 체격도 비슷하고 방과후 활동도 같이하며 가깝게 지내는 친구로 종종 툭툭 치는 장난을 하기도 했다.. B 학생이 후드티를 입고 등교한 어느 날 쉬는 시간 중에 A는 B의 후드 부분을 뒤에서 잡아 당기며 걸어가서 B가 뒷걸음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B는 끌려가면서도 처음엔 웃으며 그만하라고 했고 A는 멈추지 않았으며 교사가 발견하는 순간 멈추라고 지시했다. A는 장난이라고 웃으며 대답하고는 교사의 눈길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갔다. 다음 쉬는 시간에 두 학생과 개별 상담을 통해 그 상황의 문제점과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약속과 화해 시간을 가졌다. 이후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여러 폭력의 상황을 이야기 나누고 평화 서클로 존중의 약속을 만들었다. 문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방과후 학생 상담이 이어졌고 학부모에게도 상담 결과를 안내했으며 재발 방지 약속이 있었다.

A는 수업 중에도 B를 때리고 교사가 제지하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서 지나게 되는 다른 학생들의 책상을 치고는 자기 자리에 앉곤 했다. 이런 일이 반복 되면서 교실 수업 진행이 어려워졌고 위클래스 상담사가 교실로 내려오거나 관리자가 내려오는 등의 도움으로 수업은 겨우 진행할 수 있었다. A학생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시간은 놀이 시간이나 체육활동 시간이어서 가능한 활동 중심 수업으로 진행을 하였다. 위클래스 도움으로 학생 상담과 학부모 상담이 있었으나 학생 행동의 변화는 없던 가운데 문제 행동의 원인이 교사라는 A 학부모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학년 체육 행사가 있던 날 운동장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는 B의 체육복을 뒤에서 당겨서 B를 다시 힘들게 했고 교사의 제지로 바로 멈추었다. 같은 시기에 C 학생도 A의 행동을 따라 하면서 B를 힘들게 하자 B의 학부모가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삼게 되어 세 학생과 세 학부모가 교실에서 만났으며 화해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었다.

부모 상담에서 때리는 것은 절대 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약속한 이후 친구들을 신체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교실을 돌아다니며 책상들을 발로 치고 다니는 행동은 멈추지 않았고 상담센터 조언으로 하루 이틀 가정학습 후 등교한 날은 오전에 차분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A 학생은 자기가 화가 났다는 상황을 교사가 알아줄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었다.

교사가 바로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 때는 어떻게 하면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스스로 화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감정다루기 연습을 했다. 다른 학생들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고 상담사와 교감, 교장 선생님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 회복을 위한 감정다루기

1단계- 인식하기 - 주먹이 쥐어지거나 몸에 힘이 들어가는 신체 반응 알아차리기
2단계- 인정하기 - '내가 화났구나, 그럴 수 있어'라고 스스로 인정하기
3단계- 다독이기 - '괜찮아, 쉬는 시간에 선생님께 말해보자' 내면에 말 걸기

- 능동적으로 내 감정 인정하기

심호흡 : 천천히 심호흡 깊이 들이쉬고 내쉬기
숫자 세기 : 숫자를 1부터 10까지 또는 거꾸로 10부터 1까지 세어보기
EFT : 눈을 감았다가 뜨기. 눈을 좌우 또는 둥글게 돌려주기
지압점을 누르거나 두드리거나 문질러 자극하기

- 장소 이동하기

화가 계속되고 참기 힘들 때 교사에게 이야기하고 복도에 서있다가 들어오기
말 상대가 필요하면 교사에게 이야기하고 상담실이나 교무실, 교장실 다녀오기

- 신문지를 활용한 감정 조절

책상 옆에 신문지 마련해 두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 신문지를 찢거나 구겨보기
신문지에 있는 사진 들여다보기(다른 생각으로 주위 환기)

- 공동체 놀이를 통한 감정 조절

규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친구들과 함께 뛰어 노는 시간 갖기
놀이의 규칙이 왜 필요한지 까닭 알고 지키기
놀이 전후의 감정의 변화를 알아보고 이야기 나누기

- 성공경험으로 학생 자존감 찾기

똑소리나게 책 읽기, 신체활동 능력, 연산 능력으로 자존감 회복하기

교육 후기 & 소감

"집이나 체육관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이야기만 들어주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저는 우리 반 모든 아이들의 선생님이지 A만의 선생님이 아니란 걸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한 번 더 예쁜 말로 북돋워 줄 것을 다짐하고 모두에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때, 그 학생은 만족스럽지 않았나 보다. 교사로서 무너지려 할 때 옆에서 힘이 되어준 동료 교사들에게 감사하다. 힘든 것을 참아가며 서서히 변해가는 친구의 모습을 기다려준 작은 천사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한 아이를 위해서 함께 돕기를 서슴지 않았던 상담사, 동료 교사, 교감, 교장 선생님께 또한 감사드린다. 기다려준 천사들과 선생님들 덕분에 조금씩 서서히 달라지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긍정적인 변화, 단 하나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6. 친구들 사이에서 분란을 만드는 학생 ⑥

개인

회복적 학생 상담과 학부모 상담으로 교권 회복하기

학생 특성 & 상황

- 대상 : 한부모 가정으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학생으로 재미있는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발표도 열심히 하고 지능도 높으나 기초 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흥미 없는 수업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학생임. 평소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에 친구들에게 부정적인 농담과 언어로 장난을 치거나 친구를 놀리는 상황이 많음.
- 상황 : 대상 학생이 교사의 질문에 먼저 답변하고 있었으나 교사는 그 대상 학생을 보지 못하고 다른 학생을 발표시키자 대상 학생이 자신이 먼저 발표하고 있었다고 소리지르면서 연필을 책상에 내리치면서 발표하고 있는 친구와 선생님께 화를 내는 상황임

교사 바람

- 발표하려고 하는 의지는 칭찬받을 만 하나 자신의 발표를 존중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수업 시간에 화를 내는 것은 스스로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학생이 스스로 반성하고 교사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상담을 통해 이런 일이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안내함.

선택 방법

-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해결 방안 생각하기", 학부모 상담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선생님 : 자 누가 발표해 볼까요?

A학생 : 저는요~

B학생 : 제 생각은요.

선생님 : 그래 B학생이 말해볼까?

B학생 : 선생님 제가 말하고 있는데 A가 자꾸 끼어들어요.

선생님 : B친구가 먼저 발표하고 있으니 잠깐 기다려줄래?

A학생 : 제가 먼저 발표했다구요! B가 거짓말 하는 거에요!

선생님 : 그래? 선생님은 B 친구가 말하는걸 먼저 들은 것 같은데?

A학생 :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제가 먼저 말했다구요!(연필을 책상에 치면서 울기 시작한다.)

선생님 : A가 많이 화가 났나보구나, 우선 복도에 나와서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해 보자.

A학생 : B가 거짓말하는 거에요.

선생님 : 그래 선생님은 네가 가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 네가 억울해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잖아. 네가 먼저 발표하려고 한건 선생님도 인정하고 그걸 보지 못한건 선생님도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수업시간에 발표를 먼저 안시켰다고 이렇게 꼭 행동해야 됐을까?

A학생 : 억울해서요. 제가 먼저 했는데 저보고 나중에 했다고 하니까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화가나요.

선생님 : 그렇구나 네가 먼저 말하고 있었는지 친구가 먼저 말했다고 하니 충분히 억울할 수도 있겠네. 그리고 선생님도 인정안해줬으니 억울할 수도 있겠네. 그런데 억울하다고 그렇게 꼭 화를 내야 될까?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느꼈겠니?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A학생 : (곰곰이 생각한다.)

선생님 : 선생님도 솔직히 말을 할게 발표를 먼저 시켜주지 못한점은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네가 수업시간에 한 행동은 선생님을 매우 당황하게 하는 행동이었어 그리고 선생님도 매우 불쾌했단다. 이 상황에서는 친구들도 피해자지만 선생님이 더 큰 피해자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A학생 :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아까는 제가 너무 화가나서 그랬어요.

선생님 : 네가 그렇게 반성하고 있다니 선생님도 용서해 줄게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학부모님께도 안내를 할거야. 너를 혼내게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너의 학교생활에 대해 학부모님도 알고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야. 선생님이 바라는 것은 네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거란다.

선생님 :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호자 : 선생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잘 지도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고 가정에서도 잘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교직 생활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돌발 행동이 발견될 수 있다. 교사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순간 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으며 학생이 교사에게 함부로 했다는 사실에 매료되어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한다. 나 또한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당황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침착하게 다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나섰고 이 학생이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학생인지 생각했다.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학생 및 학부모 상담으로 진행하였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학생들의 돌발행동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경력 교사일 경우 주변 경력 교사나 학년 부장의 도움을 요청하고 더 심각한 상황일 때는 관리자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교육 후기 & 소감

학생들이 실수를 했을 때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 회복적 생활교육은 아니다. 학생이 스스로 반성하고 교사에게 사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사 또한 학생에게 사과를 받아야 회복이 된다. 그리고 학생의 돌발행동은 반드시 학부모와 공유하여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할 것이다. 위 학생은 학기 초 돌발행동으로 선생님과의 신뢰가 깨질 뻔 했지만 학생 스스로 진지하게 반성을 하였고 그 후로는 그런 돌발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인성부장이 학교에서도 요주의 학생으로 생활지도가 가장 힘든 학생이라고 했다. 수업시간에 집중도 잘 안하고 발표도 부정적인 내용으로만 하려고 하는 학생이었지만 학부모 상담과 학생 상담을 차근 차근 이어갔으며 학생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노력을 해 왔고 현재는 위 학생이 학급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으며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 위 학생 지도를 통해 학생의 발전은 교사가 기대하는 만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7. 폭력성 있는 운동선수 학생

개인

그 아이의 아픔을 찾아내어 보듬어주기

학생 특성 & 상황

- 학생 특성 : 운동선수였던 ◇◇이는 엄석대와 같은 존재로 학교에 다닌 학생임, 몇몇 친구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며 대장 역할을 함. 운동부 학생으로 체격도 있고 덩치도 있는 무서울 게 없는 학생임.
- 상황 : 쉬는 시간이 끝나 교실로 들어갔는데 ◇◇ 앞의 여학생은 엎드려 있고, 교실 분위기가 이상함을 느낌.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상황

교사 바람

- 폭력이 없는 교실 만들기
- 힘이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기
- 부정적인 마음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기

선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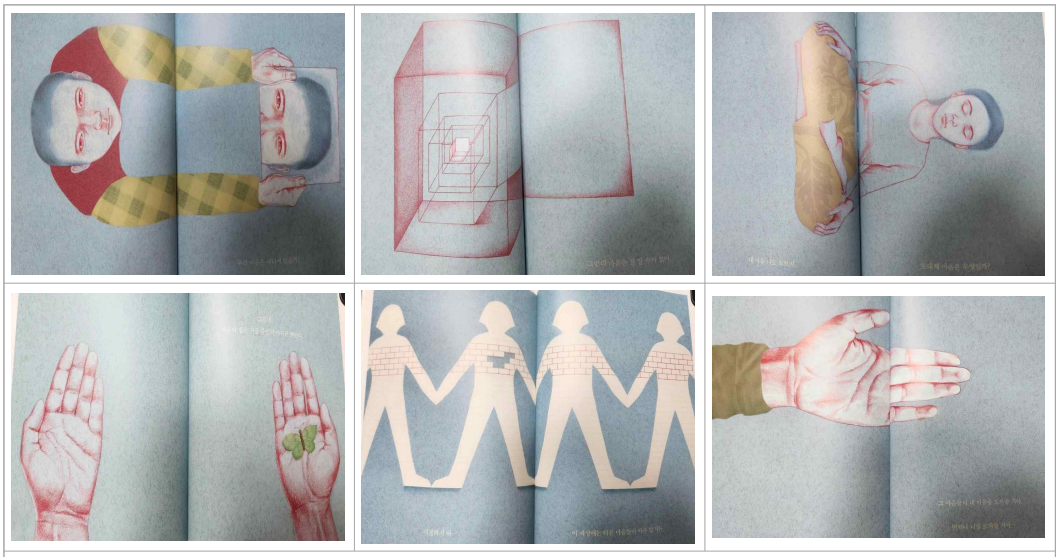
- '마음의 집' 그림책 활용, 아이의 속상한 마음에 공감하고 이해해주기, 교사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 나의 강점을 찾아 자존감 대화 나누기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이는 어느 선생님이든 피하고 싶어 하는 학생 중의 한 명이었다. 체격도 있고 키도 크고 덩치도 있는 운동선수라 학급 배정이 되면 이 친구가 몇 반이 되었는지 주위 선생님들이 얼른 물어보게 되는 학생이었다. ◇◇와 1년을 어찌 보내야 하나 나는 또 고민이 되는 상황이었다.

전담시간이 끝나 교실에 들어갔는데 뭔가 이상한 공기가 맴돌았다. ◇◇이 앞에 앉아있는 여학생은 엎드려 울고 있고, "무슨 일 있었니?"라고 물어보는 나에게 어느 누구도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가 자기 때문에 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를 데리고 학년 협의실로 데려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는 전담시간이 끝나고 자신의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앞에 앉은 여학생이 일어나려고 의자를 뒤로했는데 그게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책상에 부딪혀 잠을 깨워서 화가 나서 앞에 앉은 여학생의 머리를 때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나는 ◇◇이에게 교실은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의자를 움직이다 보면 뒤에 있는 책상을 치게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이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말로 조심해달라고 이야기해야지, 친구의 머리를 때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폭발을 하였다. 아빠는 나와 형을 때리고, 아빠에게 맞고 나면 형은 나를 때리고 그럼 나는 누구에게 화풀이해야 하냐며 자신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지금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아동학대'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닐 때였다. 가정에서의 폭력이, 학교와 사회로 잘못된 방향으로 발산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다른 상황의 일로 ◇◇이의 집을 가정 방문하게 되었다. 엄마만 집에 계셨는데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 가정과 연계되어 부모님도 알게 되시고 함께 공유하여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계도적 차원에서의 방문이었는데 아이는 선생님이 자신의 집을 찾아간 것에 대해 마음의 문을 조금 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선생님, 되게 키 큰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랑 별로 차이나지 않네요. 이렇게 작은 줄 몰랐는데요." 좋은 의미의 방문은 아니었는데 ◇◇이는 본인에 관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학생이 되었다. 가정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하는 친구가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 저렇게 비뚤어지게 클 수도 있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때부터 ◇◇이는 학교 어디에서든 나를 만나면 90도로 인사를 하였다. 지나가던 동료 선생님들이 어떻게 제가 저렇게 행동할 수 있냐고 놀라시면서 물어보셨다. 나도 그런 인사를 원하던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이의 모습이 의아하였다. 한편으로는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알아준 선생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의 표시였나? 이솝우화 '해와 바람'이라는 책에서 나그네의 옷을 벗긴 건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아닌 따뜻한 해님처럼 학급 아이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아이에게 작은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조금씩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 누군가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자존감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마음의 집' 그림책

'마음의 집' 책에서는 '집'이라는 공간을 이용하여 보이지 않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마음의 아픔을 나타내는 데 서툴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따스한 위로를 전해주는 책이다. 책을 통해 ◇◇이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마음은 무엇인지?",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지?" 등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마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다양하다는 점을 알려주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그리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는 곳이었다. 아빠에게 폭력이 이루어지는 장소, 형에게 폭력이 이루어지는 장소, 엄마 또한 그곳에서 ◇◇이를 지켜줄 수 없는 곳, 하지만 그 공간에서 ◇◇이가 계속 괴로운 마음에 쌓여있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마음을 들여다보며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마음을 흘려보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좋은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바꾸며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용기를 주었다. ◇◇이에게 쉽지는 않겠지만 나쁜 마음을 조금씩 비우고, 그 비워진 곳을 좋은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채울 수 있기를 응원해주는 것이 교사인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였다.

교육 후기 & 소감

문제시되던 행동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변화하는 ◇◇이의 모습을 본 운동부 관련 선생님들이 칭찬해주시면서 ◇◇이는 더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다. 그 해 2학기 ◇◇이는 전국소년체전에서 금상을 차지하였다. 그때, 운동 담당 지도 선생님께서 경기에 나가면 ◇◇이는 그동안의 모습은 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면서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진다고 말씀해주셨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도 생기도 자신감도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을 잘 알아보고 그 부분을 보듬어줄 수 있는 게 교사의 큰 역할이라고 느끼게 된 의미 있는 한 해였다.

8. 예민한 성격으로 사소한 일도 신고하는 학생

개인

단순한 신체접촉으로 인한 갈등 해결하기

학생 특성 & 상황

- 학생 : 평소 예민한 성격으로 친구들이 자신의 물건을 만지거나 신체를 스치기만 해도 친구가 괴롭힌다며 선생님에게 신고하는 학생임.
- 상황 : 다른 친구가 팔을 잡거나 어깨를 두드리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때렸다고 신고하는 학생이 있는 상황임. 주변 학생들은 오히려 놀라며 억울해 하고 있음.

교사 바람

- 저학년 일수록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강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적으므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야 함.
- 교사가 학생에게 짜증을 내지 않고 친절히 안내해 주고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최대한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줌.
- 단순히 교사가 지시하여 이게 맞다 틀렸다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파악하고 스스로 반성할 수 있도록 한다.

선택 방법

-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스스로 반성하고 올바른 해결 방법도 스스로 생각해보기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학생들이 생긴 것이 다 다른 것처럼 성격 또한 매우 다양한 학생들이 한 교실에 앉아있습니다. 교사는 모든 학생들이 착하고 똑똑하고 우수한 학생만 있으면 좋겠다고 바라겠지만 현실은 그 반대의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서로 전담 교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 조직이라는 것이 원래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상존하는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의 사람들이 어떻게 어울려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갈지 고민하는 것은 교사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평생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특정 학생들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그 문제행동을 제대로 통제못한다고 하여 교사 스스로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감정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되고 있으므로 그 표출되는 과정과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에 초점을 두면 됩니다. 모든 과정을 교사가 주도해서 할 수 있지만 깊은 내용을 들여다 보면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교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민한 성격의 학생으로 사소한 것들도 자꾸 신구하는 사례입니다.

A학생 : 선생님 00친구가 제 어깨를 때렸어요!

선생님 :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고? 좀 더 자세히 어떤 피해가 있었니?

A학생 : 제가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뒤에 있는 친구가 제 어깨를 때렸어요. 그래서 화가 나요.

선생님 : 그래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뒤에 있는 친구가 어깨를 쳤다는 말이로구나 그래서 화가 났고. 그러면 뒤에 있던 친구를 선생님이 불러볼게.

선생님 : 앞에 앉은 친구가 그러는데 어깨를 쳤다는데 네 입장에서 말해주겠니?

B학생 : 전 때린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앞에 있는 친구에게 말을 걸려고 이름을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길래 어깨를 살짝 만진거에요.

선생님 : B친구가 너를 부르려고 살짝 어깨를 만졌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니?

A학생 : 네 새게 친 건 아닌 것 같아요.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선생님 : 아 그렇구나 친구가 그러는데 네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길래 대화를 하고 싶어서 어깨를 만졌다는데 아직도 때린 거라고 생각하니?

A학생 : 자세히 생각해보니 때린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는 기분이 나빴어요.

선생님 : 그래 갑자기 어깨를 건드렸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었구나 B친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느낌이 드니?

B학생 : 저 또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요. 제가 때리지 않았는데 때렸다고 하니까요.

선생님 : A학생도 화가 나고 B학생도 화가 난 상황이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학생이 서로 화가 났으니 계속 싸우는게 좋은 방법일까? 공곰히 생각해 보고 해결 방안을 선생님한테 말해주면 좋겠어. 지금 해결책을 모르겠으면 다음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남아서 선생님께 알려줄래? (바로 학생이 대답할 수도 있으며 한시간 혹은 방과 후에 다시 만났을 경우)

A학생 : 선생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친구가 때리지 않았는데 때렸다고 말한건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먼저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B학생 : 선생님 저도 친구 이름을 작게 한 번 말한 다음 바로 어깨를 만져서 친구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저도 사과 하고 싶어요.

선생님 : 그래 둘 다 훌륭하구나. 선생님이 보기에는 서로 신체접촉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 같아 그래서 갈등도 생긴 것 같아. A는 작은 접촉도 크게 생각하고 B는 간단한 접촉은 당연히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서로 신체접촉에 관해 기준을 만드는 것은 어떠니? 지금 당장 하기 힘들면 내일 다시 서로 정해본 다음 선생님한테 다시 오면 될 것 같아.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저학년 실제 학생 생활지도 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소한 신고 사항이 수없이 발생하며 교사는 모든 사항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방법을 회복적 생활지도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나 또한 이런 방법을 매번 시도하지는 않는다. 수업이 바로 시작되야 할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다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양해를 구하고 수업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사소하다고 생각되면 다음 쉬는 시간에 이미 화해한 경우도 많았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위와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추천한다. 왜냐하면 한번 신고한 학생이 상대 학생의 잘못을 교사가 전달만하고 사과하도록 안내하여 사과를 받을 경우 이게 고착화되어 일년 내내 담임선생님께 열심히 신고하는 학생이 될 것이고 이런 일로 담임선생님은 지치게 된다. 아이들은 이미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결 방안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기르지 않고 모든 것을 힘이 있는 교사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생기면 좋지 않다.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험을 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방법이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기간이 지나갈수록 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지도가 될 수 있다.

교육 후기 & 소감

위의 방법으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나쁜 행동을 반복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위와 같은 생활지도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었지만 전혀 반성할 기미가 없는 학생에게는 단호한 지도 방안이 필요하며 학부모 상담 및 외부 전문가의 심층 상담 등 학생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치료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교사는 위의 방법이 절대적인 해결책이라는 오해를 해선 안되며 일부 학생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하지만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문제해결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의존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보았을 때도 자주적인 삶을 살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선생님이 학생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저 학생들이 어려보이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기대를 먼저 가진 다음 그 목표에 맞는 질문을 이어나가다 보면 해결이 될 수도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점이 없는 학생이라면 교사의 생활지도로 해결이 불가능하며 전문가의 치료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9. 나만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학생

개인

나만 미워해! 아니야, 함께 해결해보자!

학생 특성 & 상황

- 학생 특성 : '선생님과 친구들은 나만 미워해' 라며 관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작은 갈등이나 친구와의 오해에도 짜증을 내거나 똑같이 불편함을 되돌려주려고 함
- 상황 : 친구가 실수로 ○○이의 손에 싸인펜을 묻혔는데, 실수인지 알고 있음에도 친구의 손에 똑같이 싸인펜을 묻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양쪽 친구에게 이유를 물어봤지만 "선생님은 나만 미워해"라고 말하며 이유를 말하지 않음

교사 바람

-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고 올바른 대화법을 익히며 또래상담 및 중재를 통해 선생님·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오해를 풀고 회복적 관계를 형성하기

선택 방법

- 비폭력 대화, 의미있는 1인 1역(또래상담 및 중재활동 경험), 칭찬 및 장점찾기 활동

소!확!행! 생활 교육 스토리

선생님 또는 친구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거나 칭찬/존중받은 경험이 적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행동하여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를 충분히 관찰한 결과, 자존감을 높이고 작은 일에 대해서도 폭풍 칭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희망하는 1인 1역을 수행하며 소속감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져 해당 부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여 생활지도 및 교육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어울림 프로그램 속 비폭력 대화를 연습하여 또래상담 및 중재 시 활용〉

- 1단계 STC버튼 +1,3,10
- 2단계 이 상 행 과 사 과 행 3단계를 활용하여 마음 전하기
- ○○이의 꼬마판사 수첩을 만들어 갈등상황 및 해결방법을 간단히 기록

〈의미 있는 1인 1역 분기별 운영〉

- 자신의 1인 1역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카드로 제작하여 게시판에 붙임. 역할 수행후 자신의 역할 카드를 뒤집어 '수행 완료' 표시. (친구들도 수시로 역할 확인)

교육 후기 & 소감

하루에 한 번 수업교과 또는 생활지도에서○○가 잘하는 부분 또는 잘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을 강조하여 칭찬하고, 의미있는 1인 1역을 신청받아 책임감 및 소속감을 키우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는 1인 1역으로 스스로 '꼬마판사'를 희망하여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어설프지만 친구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비폭력 대화로 친구의 갈등을 중재하는 경험을 쌓아보며 올바른 대화법을 꾸준히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도 가치있는 역할을 스스로 수행하고 있다고 느끼며 자존감을 높이고, 학급에서의 친구관계 및 갈등상황에서도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밑바탕을 쌓고 있습니다.

10. SNS상에서 거친 말을 사용하는 학생

개인

사이버 공간에서도 함께 어울려볼까요!

학생 특성 & 상황

- 학생 특성 : SNS상에서 거친 말을 사용하여 친구에게 자주 상처를 줌
- 상황 : 학급 살이 돌아보기 활동 시간에 작성한 활동지에 □□이가 온라인(SNS)상에서 거칠게 말하여 상처 받았다는 여러 친구들의 고민을 보게 됨

교사 바람

- 온라인에서의 바람직한 소통 방법을 익혀 친구들과 대화하기

선택 방법

-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기본)
  - 사이버 감정조절 역량, 사이버폭력 인식 및 대처 역량 프로그램 교과 연계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이가 만나서 놀거나 대화하는 건 괜찮은데, 꼭 SNS에서는 이상한 이모티콘을 사용하거나 거친 말을 사용해서 고민이에요'

매월 학급살이 돌아보기 활동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불편한 부분은 이야기 나누었는데 □□이의 온라인 대화 습관에 불편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학년의 경우, 사이버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높은 만큼 온라인 공간에서 바람직한 소통방법을 익혀 친구들과 대화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중 필요 역량을 선정하여 교과와 연계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나의 감정 이름은?-1〉

'감정인식 분석 앱'을 설치하여 카메라로 표정을 찍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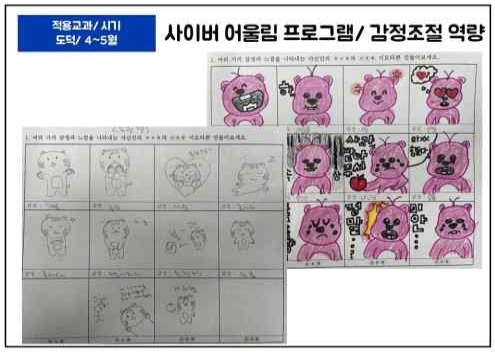
▸ 모둠별 1대 이상 스마트 기기 활용!

〈나의 감정 이름은?-2〉

한 가지 표정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감정 상태를 확인한다.

▸ 직접 만나서 대화 할 때에는 얼굴(비언어적 표현)을 보면서 다양한 표정을 알 수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대부분 얼굴을 보지 않고 대화함.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모티콘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느끼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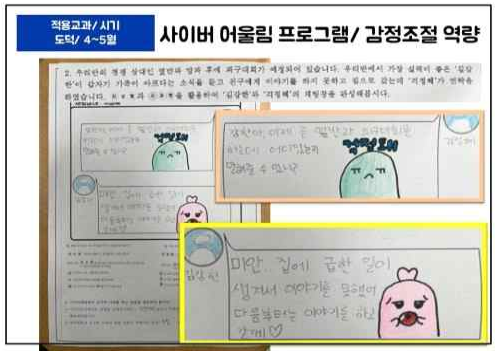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나만의 감정 이모티콘 만들기-3〉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감정 이모티콘을 직접 만들어본다.

‣ 구글 오토드로우 등 활용하는 것도 추천!



〈감정조절로 대화하기-4〉

상황과 예시를 통해 내가 만든 이모티콘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온라인상에서의 대화를 연습한다.

‣ 적절한 이모티콘 활용하여 대화하기!

〈사이버폭력예방을 위한 영상 제작-1〉

다양한 사이버폭력의 유형을 알아보고, 심각성 및 대처 방법을 모둠별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사이버폭력예방을 위한 영상 제작-2〉

사이버폭력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가 있다면 도울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고 발표하였습니다.

교육 후기 & 소감

3년이 넘는 시간, 코로나 19로 많은 것들이 변화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은 물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비대면 수업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공간이 익숙해진만큼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라인(SNS)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친구와 대화한다면 □□이 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학생들 모두 친구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온라인 공간에서의 올바른 대화 방법을 익히며 사이버 감정조절 역량을 키우고, 모둠 친구들과 함께 사이버 폭력예방 캠페인 영상을 제작, 발표해보며 학교폭력 인지 감수성도 함께 키워보았습니다.

□□도 친구와의 대화에서 적절하게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하였고, 거친 말이나 불편한 대화가 친구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11. 과잉 반응 및 과잉 행동을 하는 학생

개인

TRUE 프로젝트로 학급 행복 울타리 만들기

학생 특성 & 상황

- 학생 특성 : 가정환경 문제로 자존감이 낮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과잉행동하는 학생
- 상황 : 가정의 문제로 조부모님께서 학생을 돌보고 있는 상황
  오랜 시간(2학년때부터)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
  방어기제로 과잉 반응 및 과잉 행동을 수시로 하는 상황

교사 바람

-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기
- 다른 사람과 상호소통을 할 수 있고, 공동체 속에서 행복감 느끼기

선택 방법

- 회복적생활교육
- 학급 프로젝트(TRUE 프로젝트)를 통한 학급 행복 울타리(학급 공동체) 만들기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이는 학교로 전입 온 2학년 때부터 우리 학교 최고 유명 인사였다. 유명인사 ○○이는 친구·교사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학교의 대부분 사건·사고와 관련이 되는 학생이었다.

○○이는 6학년을 담임하였을 때 맡았던 학생이었다.

○○이는 새학년 첫날, 담임교사를 보자마자 "아 나 잡으려고 남자 선생님을 담임으로 앉혔네~."라며 비꼬면서 교실에 들어왔다. 이미 어느 정도 ○○이의 언행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있으므로, 당황하지 않고 "○○이랑 마지막 초등학교 1년을 생활하게 되어서 기뻐!"라며 학생을 맞이해 주었다.

첫날부터 사건은 발생하였다.

전담 시간이 끝나고 다시 교실에 들어가니, ○○이는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다음 수업 시간이 시작되는 종이 울리고, ○○이가 아직도 자고 있어서 조용히 옆에 다가가, 수업 시작했으니 수업들을 준비를 하자고 지도를 하였다. 그러자 ○○이가 벌떡 일어나 욕설과 함께 담임 교사에게 필통을 던졌다. 옆에 있던 친구들은 이미 익숙한지 놀라지도 않고 "선생님 ○○이는 원래 자요. 건들면 안돼요."라고 담임 교사에게 말을 했다.

여기서 교사로서 친절하되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1년 동안 ○○이와의 관계형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지도하였다.

교사 : 물론 피곤하면 쉬는 시간에 엎드려서 쉴 수 있지. 오늘 ○○이가 첫날이라 아직 적응이 안되었구나. 하지만 수업시간을 통해 ○○이가 평소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해. 수업시간에 자는 것보다 더 좋은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1년동안 생활해보자. 아참! 실수로 떨어뜨린 필통은 직접 주워가렴.

○○이는 아무말 없이, 필통을 주워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들었다. 새학년 첫날은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이후 ○○이와 3월~5월 우당탕탕한 학교생활이 시작되었다.

- 수업시간에 갑자기 숨이 찬다며, 자리를 박차고 학교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는 경우
- 체육 시간에 누가 자기를 밀었다며, 쉬는 시간에 가방을 휘두르는 경우
- 급식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을 다 먹겠다며, 급식 반찬통에 침을 뱉는 경우

이외에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건·사고가 ○○이를 중심으로 학급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그때마다, 엄하게 타이르기도 하고 타임아웃과 같이 잠시 학생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도 가져보고 전문 상담 선생님과의 협조를 통해 학생 생활지도를 시도했지만, 번번히 다시 문제행동은 발생하였고 ○○이의 언행에 대해 학급 친구들까지 참을 수 없다는 반응까지 이어졌다. 이에 ○○이의 생활지도를 개인에서 학급 전체로 확장시켜야 함을 느꼈고, ○○이가 대안 교실에서 상담을 받고 있을 때, 학급 회의를 열었다. 학급 회의 주제는 '○○이가 모두와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 이었다.

이 회의 주제에 불만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다. 우리는 도움을 주고 싶어도 ○○이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는 식이었다.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교사 : ○○이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우리가 먼저 바꾸어 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의 행동에 대해 비난하고, 제지하고, 고쳐주려고만 했던 건 아닐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이의 언행을 지적하고 잔소리만 한 거 같구나. 우리도 다른 누군가로부터 매일 지적당하고 잔소리들으면 기분이 나쁘지 않겠니?

친구1 : 하지만 선생님과 저희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더 심하게 행동하지 않을까요?

교사 :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럴 때는 선생님이 제일 먼저 상황에 개입하도록 할게! 너희들은 선생님이 ○○이를 진정시킬 동안 ○○이에게 지적하는 말을 삼가도록 해보자.

처음 학급 회의가 끝나고, 한동안 ○○이의 이상행동에 친구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의 과격한 언행 빈도는 줄지는 않았지만, 그 시간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다시 ○○이와 상담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교사 : ○○아, 선생님과 친구들은 진심으로 널 도와주고 싶구나. ○○이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어떻게 너를 도와주면 좋겠니?

○○이 :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른과 친구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데 왜 저를 도와주려고 하겠어요. 친구들은 저를 왕따시키기만 하는데요.

교사 : ○○아, 우리 모두가 너를 싫어하지 않아. 학급 친구들이 최근, 너에게 비난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니? 우리는 너가 상처받지 않도록 학급 회의 때, 너에게 비난하는 말과 행동을 삼가자고 약속했어! 선생님 포함 우리는 ○○이와 함께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단다.

○○이 : 모두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거 같아요...

상담이 끝나고, ○○이의 낮은 자존감과 피해의식이 ○○이의 학교생활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까지 함께하는 학급회의를 열었고, ○○이의 기분과 생각을 모두와 공감하였다. 이때, 학급의 재치있는 친구가 무거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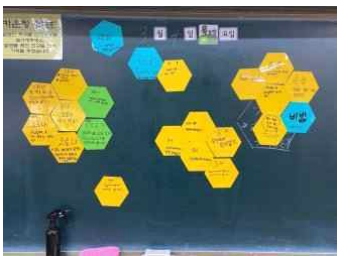
친구2 : ○○아! 우리가 왜 너를 싫어해 우리는 진짜 너랑 잘 지내고 싶어! 나의 진정한 심장박동이 들리지 않니? 나는 트루한 사람이라고~

갑자기 우리 학급 친구들한테 트루라는 말이 유행되었고, 학급 프로젝트로 TRUE 행복 울타리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TRUE 행복 울타리 만들기 프로젝트란?

학급 규칙이 아니라, 진정(TRUE)으로 서로 협동·협력해야지만 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의미함. 학급을 울타리로 보고 이 울타리 안에서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서로 협동·협력해야 함을 깨닫게 하는 프로젝트.



프로젝트 키워드 만들기

월별 학급 설정 사진샷

행복 울타리 만화만들기

교육 후기 & 소감

생활교육은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개인을 변화시키려고 개인적으로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친구들과의 협동·협력의 선한 경험을 통해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생활교육을 수시로 지도하는 것이 개인에게도 학급 전체에게도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교육활동 지도와 학생 개인 상담에 있어 교사의 친절하되 단호한 태도는 중요하다. 단호함이 없는 친절함은 방임적으로 흘러가고, 친절함이 없는 단호함은 권의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유의하면서 친절함과 단호함의 균형을 맞추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는 교사 자신의 "자기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12. 우리반 넘버원 금쪽이 심층 상담

개인

공감대화 상담기법으로 현실 인식 돕기

학생 특성 & 상황

- 대상 : 자기 뜻대로 안되면 욕설을 하고, 친구들 보는 앞에서 성적 행동을 하는 학생
- 상황 : 수학시간에 문제를 풀다가 뜻대로 안풀리면 '아이 씨X X짜증나'라는 등 거친 말을 모둠 친구들이 들리도록 표현해서 친구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넌 뭔 상관인데 꺼져!'라고하여 친구들이 당황한 상황, 게다가 쉬는 시간에는 교실 뒤에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리코더를 들고 성적 행위 흉내를 내면서 낄낄 대고 돌아 다님.

교사 바람

- 학생의 바람직한 자기표현,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적 안정, 교실공동체의 평화
- 교실의 질서, 원활하고 즐거운 수업, 기여하고 싶은 마음, 교사 자신 마음의 여유

선택 방법

- 공감대화카드 상담기법(원본출처 : 초등상담나무) / 비폭력대화 반영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초등상담나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상담도구가 있다. 아주 오래 전 몇 년 전인지 기억도 희미하지만 처음 '공감대화카드 상담'이라는 연수를 받고 '초등상담나무 다음까페'에 회원 가입을 하였다.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박사학위를 받으시면서 연구하고 고안하신 상담기법과 도구들을 무료로 나눔하고 있는 까페였다. 먼저 활용하신 전국 각지의 선생님들의 상담 사례도 많고, 선생님들 마다 각 교실 상황이나 학생 상황에 따라 약간씩 변형하여 적용한 사례들도 다양하게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서 공감대화카드를 활용한 상담기법을 익히는 데는 어렵지 않았다.

"배워서 남 주자!, 그리고 배우면 바로 쓰자!"
교사로서 내 자신이 쉬지 않고 배우고 써먹는 교육적 소신이다.

다양한 감정에 따라 이해가 쉽도록 인물화가 그려진 친밀감 있는 감정-바람카드와 상담의 과정을 내담자가 한 눈에 파악하여 현실을 인식하기 쉬운 상담그림판이 매력적이었다. 그 날도 ☆☆이의 부모님께 상담을 위해 남아도 되는지 연락을 취하고, 동의를 구한 후 상담을 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선생님과 상담을 한다고 하면 얼어붙거나 주눅이 들어서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기에 따뜻한 말로 상담의 이유를 말하고 그런 행동이 자주 나와서 걱정이 되어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다거나 선생님에게 요즘 스트레스 받는 다른 할 말은 없는지 궁금하다거나 지적과 꾸중과는 결이 다르게 접근을 하면서 상담그림판을 꺼내 앞에 놓아준다. 상담을 해 나가는 순서는 초등상담나무에서도 자세히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 따라해도 좋다. 물론 나 자신도 처음 한 두 번은 매뉴얼을 보고 따라했었다. 지금은 숙련되어 술술술 길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지만.....학생도 자신이 한 말과 했던 행동들, 지금 행동의 결과와 좋은 선택을 했을 때를 직접 눈으로 비교 가능하게 하여 현실을 바로 직시하게 한다. 그리하여 행동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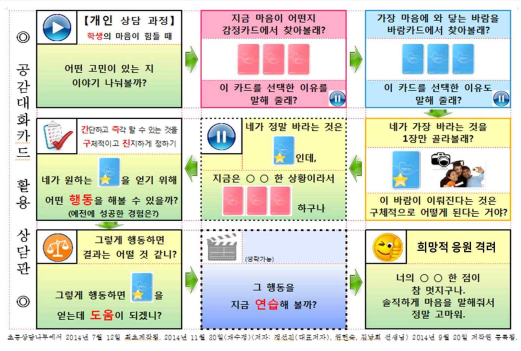
초등상담나무 상담그림판을 활용한 심층 상담은 열이면 열 모든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이해받았다고 하는 피드백을 받았고, 학생의 태도가 변화해감을 보았다. 그리고 교내 멘토교사로서 후배교사에게 시연해주기도 하고, 생활교육자문단으로서 강의 중에 직접 해당 반 금쪽이를 대상으로 시연을 한 후 학급에 돌아가 직접 상담을 하고 지속적으로 비폭력대화로 연계하여 생활교육을 할 때 학생의 행동이 현저히 안정되고 나아졌음을 전해 들었다.

우리반 학습방해&교권침해 넘버원 금쪽이! 공감대화카드를 활용한 상담기법 적극 강추!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공감대화카드(감정카드)

공감대화카드(바람카드)



상담그림판(개인적 고민 상담)
〈출처 : 초등상담나무 다음까페〉

상담그림판(문제행동 상담)
〈출처 : 초등상담나무 다음까페〉

교육 후기 & 소감

멘토-멘티 관계를 맺었던 이전 학교에서 후배선생님이 금쪽이와 상담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은 담임교사로 후배선생님은 금쪽이로" 상담시연을 하여 드리고 다음날 금쪽이를 만나서 상담을 하도록 권해 드렸다. 학부모에게 학생에 대한 상담 요청을 하는 문자 보내는 것에서부터 상담을 마치고 난 후 결과 안내하는 문자 안내 방법 토씨 하나까지 옆에서 챙겼다.

"똑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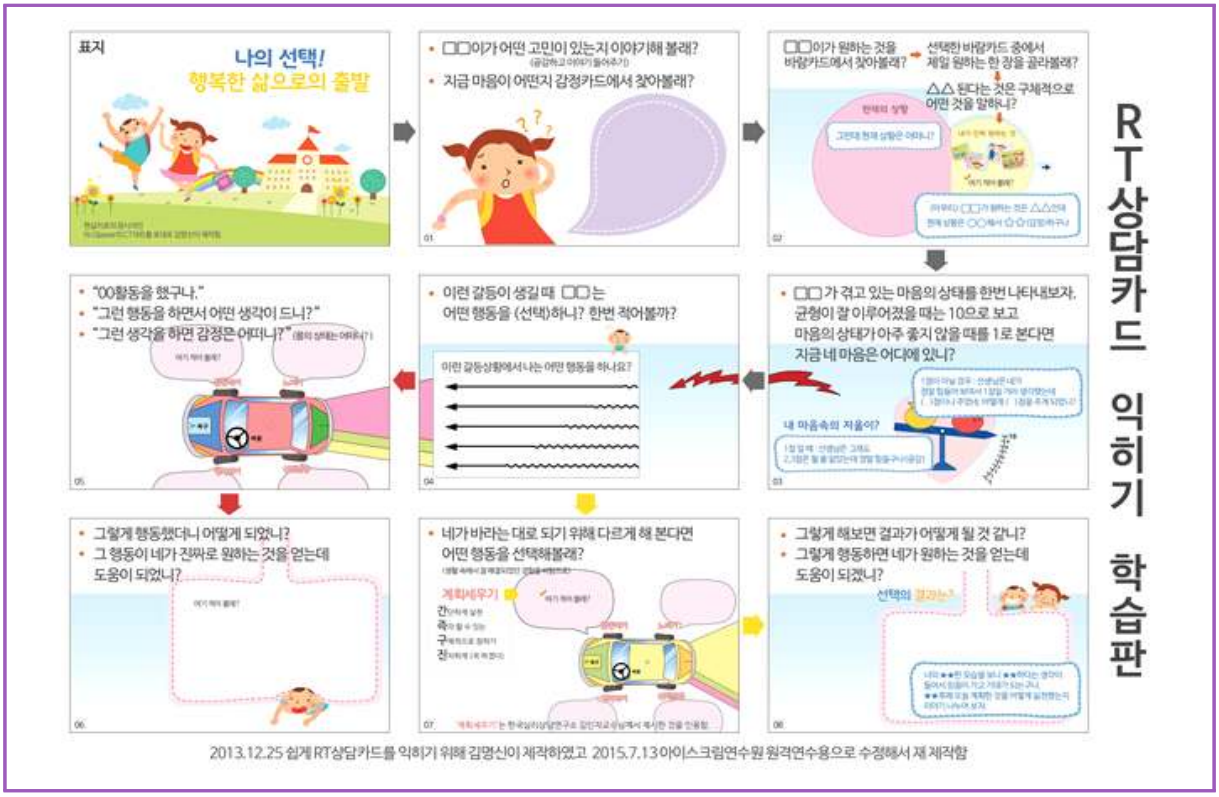
"부장님!"

환하게 웃으며 눈시울이 붉어진 후배 선생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부장님 덕분에 이렇게 문자를 받았다고 해당 학생 학부모의 답장을 보여주는데 감사가 한 가득이다. 학교에서 상담을 한다고 하면 집에 와서 책가방을 집어 던지던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선생님한테 이해받았어요."하더라나요.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방식은 다르지만 아이를 위한 염려의 마음은 같으셨을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연결된다는 것 관계중심 상담은 무언가를 뜯어 고치려는 시도가 아니라 어리지만 마음을 이해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저 경청해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바람을 함께 찾아주며 학생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찾아갔을 뿐이며 선생님이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줘! 였을텐데. 아이는 조금씩 변해갔고, 선생님 곁에 다가오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일처럼 기뻤던 기억입니다. 이제 애기 선생님을 벗어난 ♡♡선생님 잘 계시지요?

〈참고자료〉

초등상담나무 상담그림판 매뉴얼

출처 : 초등상담나무



2013.12.25 쉽게 RT상담카드를 익히기 위해 김명신이 제작하였고 2015.7.13 아이스크림연수원 원격연수용으로 수정해서 재 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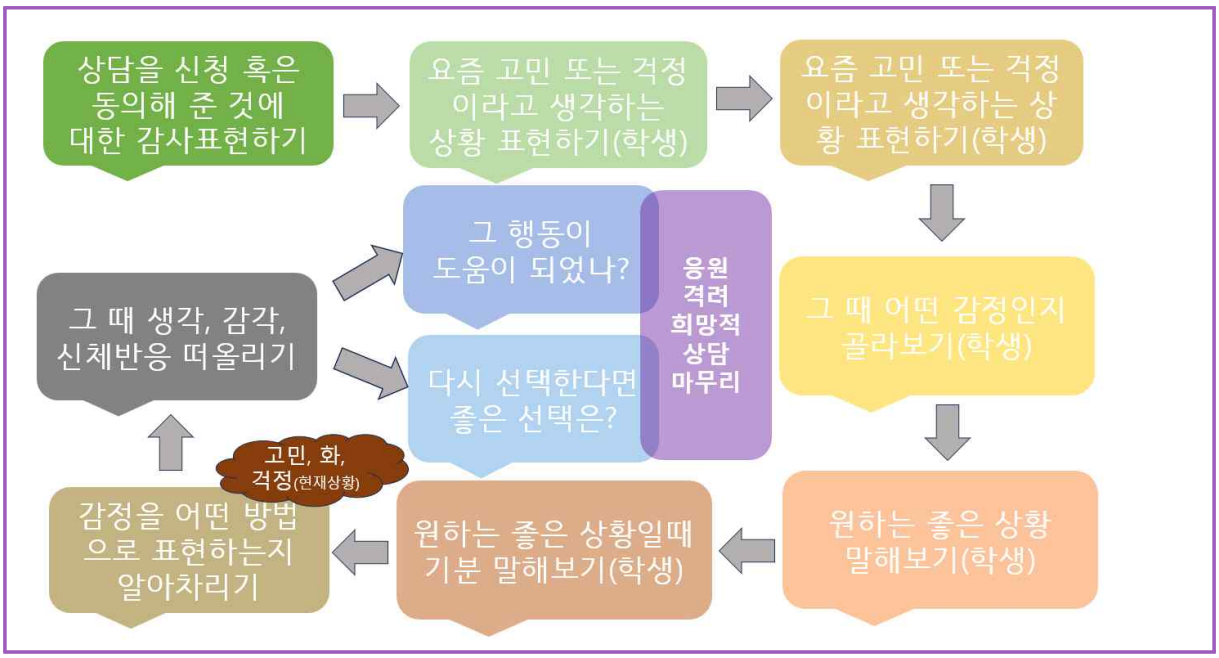
2013.12.25 쉽게 RT상담카드를 익히기 위해 김명신이 제작하였고 2015.7.13 아이스크림연수원 원격연수용으로 수정해서 재 제작함

〈참고자료〉

초등상담나무 상담그림판 매뉴얼

- 절차 요약 -

출처 : 초등상담나무



13. 갑자기 화를 표출하는 학생

개인

마음 토닥임 그리고 갈등해결 소통처방전!

학생 특성 & 상황

- 학생 특성 : 시간이 지난 후에 친구들에게 서운했던 일이나 화를 갑자기 표출하여 주변을 자주 당황하게 함
- 상황 : 쉬는시간 ·모둠활동 시간, △△이가 갑자기 화를 내어 당황스러워하며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함. 또는 △△가 화를 내어 다른 친구가 함께 싸우고 있는 상황

교사 바람

- 학생 내면의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나 갈등 상황에서 비폭력 대화를 익혀 친구들과 평화롭게 소통하기

선택 방법

- 감정 출석부 및 마음돌보기, 어울림프로그램(감정조절 역량-비폭력대화 활용)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선생님, △△이랑 놀고 있었는데 △△이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달려오는 친구를 보며, △△에게 시선을 돌려보았다. 학기 초였다면, 저 뒤에서 xx이라고 욕을 하며 당장이라도 친구에게 달려왔을 텐데 지금은 씩씩거리느라 어깨가 들썩거리지만, 눈을 감고 멈춰 호흡하고 있는 △△이를 볼 수 있었다.

점심시간, 이제는 그 친구와 해맑게 다시 놀고 있는 △△에게 다가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놀다가 친구가 선을 밟았어요. 지난 번에도 놀다가 선을 밟아서 봐줬는데, 오늘은 화가 나서 당장 소리쳐버렸어요... 그래도 잠깐 화를 참고 내가 왜 화가 났지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이·상·행으로 왜 화났는지 친구한테 말했어요. 그때서야 사과받았어요. 친구한테 갑자기 화내서 죄송해요. 그래도 잘 풀었니깐...잘했죠 선생님.?"

아까와는 다르게 해맑게 웃으며 말하는 △△이를 보며,

'아직까지는 기다림과 연습이 필요하지만, 멈춰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평화롭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갈등상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만,

처음 △△이에게 왜 화가 났는지 물어봤을 때에는 "몰라요.", "그냥 화나요", "그 친구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저 친구 때문에 화가나는지 물어보니 돌아오는 대답은 "몰라요" 혹은 침묵이었지요.

반 학생들에게 "오늘 감정은 어떤가요?"라고 물어보면, 반 이상의 친구들에게 나오는 감정표현의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즐거워요.", "짜증나요", "슬퍼요". 높은 학년이 되어도 비슷한 감정표현을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먼저 스스로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감정을 알고 그 종류를 구별하며 자신이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거나 적어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감정의 연쇄성을 이해해야만 어떠한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뿐만 아니라 △△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학급에서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두 평화롭게 소통하기 위하여 꾸준히 감정을 알고 표현하며 갈등 해결 방법을 연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옥이샘의 감정툰 출석부 활용〉

❶ 매일 아침 등교하며 자신의 감정을 살펴보고, 마음을 나태나는 감정 그림에 자신의 이름 자석 붙이기
❷ 감정 출석부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난 후, 아침 마음돌보기 공책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그 감정을 느낀 이유 적어보기

▸ 스스로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하고 평화롭게 마음을 다스리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감정출석부 또는 아침 마음돌보기 공책에서 슬픔, 속상, 불안 등의 감정을 적은 학생들은 수시로 관찰하며 적절한 감정코칭 실시하고 상담자료로 활용합니다.

1단계 STC버튼 +1,3,10	
STOP	멈춰 : 1(일단)-3(심호흡 3번)-10(10까지 숫자세기)
THINK	행동 생각하기
CHOOSE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 선택

2단계 이 상 행 과 사 과 행 (어울림 프로그램 속 비폭력대화)

원하는 행동이나 결과를 얻기 위한 3단계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하는 3단계	
이	지금의 나를 이야기하기	→	사	잘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 전하기
상	상대방의 상황 물어보기		과	잘못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행	내가 원하는 행동 이야기하기		행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행동 전하기

▸ 교과 성취기준(도덕 및 창체 등)과 연관 지어 학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짝 또는 모둠 친구들과 역할극 연습을 합니다.
▸ 칠판 앞쪽, 학생들이 수시로 볼 수 있는 곳에 위 표를 정리하여 게시합니다.
▸ 실제로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1단계 및 2단계 비폭력대화를 활용하여 화를 조절하고 평화롭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갑니다.

교육 후기 & 소감

꾸준히 자신의 감정과 이유를 적고,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평화롭게 다스리는 연습을 통해 △△ 뿐만 아니라 반 전체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관리 역량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개별 성향 및 학년에 따라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적어보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출석부에 붙인 학생 이름을 보며 교사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그 친구가 오늘 어떤 감정인지, 왜 그 감정을 느끼는지 직접 물어보거나 조심하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의 돌봄 뿐만 아니라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도와주는 창구가 되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스스로 기록한 마음돌보기 공책을 학부모 상담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니 다른 교실에서도 활용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14.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학생 ①

개인/학급

깔딱 숨 말고, 길게 들숨 날숨! 심호흡 하자!

학생 특성 & 상황

- 학생 특성 :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남학생
- 상황 : 수업시간에 손을 들었는데 자기만 안시켜준다고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치면서 팔딱팔딱 뛰고, 울부짖거나 기분이 나쁘면 필통 속의 연필을 모두 움켜 잡고 부러뜨린다고 악을 쓰다가 안되면 집어 던지고, 그림을 그리다가도 뜻대로 안되면 도화지나 책과 공책을 찢는 등 수업을 매시간 방해하는 상황

교사 바람

- 평화로운 교실을 위해 소통하기, 연결을 자기사랑 키우기, 자기조절력 키우기
-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교사의 자세 보여주기, 전문성 발휘하기, 정서적 안전 제공하기

선택 방법

- 비폭력대화, 멈춤-호흡하기 연습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이는 몇 년 전 1학년을 담임하였을 때 맡았던 아이였다. 입학식을 하고 난 다음 날부터 △△이는 손을 들어 두 번째라도 시키지 않으면 벌써 왜 나만 안 시키냐고 울부짖기 시작하기 일쑤였고, 1분단부터 줄줄이 발표를 시키고 있자 하면 또 나만 안시키냐고 책상을 치기 시작하고, 그림을 그리다가도 다음에 들지 않는 것이 생기면 지우개로 화풀이 하듯이 확확 밀어버리다가 급기야 도화지가 구겨지면 이건 또 누가 그런 거냐며 울어버리면서 박박 찢어 버리기도 하고, 색종이를 접다가 선생님이 조금 빠르면 나 아직 안했다고요~하면서 팔딱팔딱 뛰다가 색종이를 몽땅 잡아 구겨 바닥에 버리기도 하고, 글씨를 쓰다가 연필이 부러지면 이건 또 왜 그러냐고 소리지르면서 공책도 찢고, 연필도 던져 버리는..... 사례를 꺼내도 꺼내도 너무 많기도 하고, 그 당시 1학년 남학생 중 2/3가 문제성을 지니고 있어서 너무나 힘들었던 1년이 따라 올라와서 잠시 심호흡을 했다.

'참 많이 수고하였구나.....잘 자라고 있을테지.'

자기 위로를 건네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이가 조금씩 진정하고 내 말에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건 단호하면서 일관성 있게 기다려주고, 반드시 아이와 한 약속을 지키고 따듯하게 격려해 준 도움자로서 교사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3월 중순 코로나19를 앓고 격리되어 있는 사이 우리 반에서는 입학한 지 2주 만에 남자아이들끼리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는 소식이 전해져 아픈 몸을 이끌고, 동학년 선생님들의 협조를 얻어 아침 등교시간과 급식시간에 ZOOM 화상화면을 켜고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선생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어! 늘 지켜보고 있으니 잘 지내고 기다리고 있으렴!"

코로나19 격리를 마치고 돌아간 교실에서 입학한 지 3주 된 1학년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비폭력대화 교육이 수시로 진행되었다. 우선 '자기존중'부터 가르치기로 작정했다. 내가 소중해야 남도 소중히 여길테니..... 문제는 아무 때나 불쑥불쑥 문제를 일으키는 금쪽이들... 그 중에서 엄지척! 교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를 진정시키기 프로젝트에 돌입하였다.

어김없이 소리 지르고 필통 속의 연필을 몽땅 잡아 두 손으로 책상에 온 힘을 다해 방아를 찧어대는 아이에게 그리고 다른 학급 전체 아이들에게 나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이가 지금 선생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지금 △△이랑 대화를 해야해서 여러분은 지금 하던 것 끝까지 잘 써 주기 부탁해요."

그러는 와중에도 △△이이는 분노 표출 행동이 멈추지 않고 이제는 연필을 부러뜨리려 힘을 쓰는 쪽으로 옮겨 있었다.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이 멈춰! 멈춰야 선생님은 너 얘기를 들어줄 수 있어. 선생님은 널 돕고 싶은데 지금은 도울 수 없어. 멈춰! 그래야 도울 수 있어."

자리에 버티고 선 채 꼼짝 않고 5분여를 기다리다 그치지 않는 울음에 아이 곁으로 가서는 '너무 울면 여기가 여기가 힘들어'하면서 내 가슴을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울면 숨이 깔딱깔딱 쉬어져서 목도 심장도 힘들어서 너가 더 화나는 거니까 저기 멀리 창밖을 볼래? 그리고 후우우~~하고 숨을 길게 쉬어봐. 저기 공원에 나무도 보고..."

"선생님 따라서 후우우~~해봐. 코로 들이 쉬고 입으로 하아~~~ 내뱉어봐. 속 쉬원하지?"

"그리고 좀 진정되면 뭐가 불편했는지 말해줘. 선생님이 들어줄게."

△△이는 흐느끼며 천천히 멈추는가 싶더니 어느새 호흡을 따라하고 있었다. 옳지 옳지 하면서 교사의 두 손은 등을 쓰담쓰담 하고 있었고, '많이 속상했니'라고 물었더니 끄덕끄덕하였다. 무엇이 속상했는지 들어볼까? 했더니 잘하고 싶은데 맘대로 안돼서 그렇다고 하였다. '그랬구나 잘 하고 싶었구나'마음을 공감 해주고는 그런데 지금처럼 울고불고 연필을 부러뜨리면 잘하게 될까? 했더니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고 이 똑똑한 △△이가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선생님이 도와줄게. 그런데 선생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춰야 도울 수 있어. 해볼까?"
하고는 손가락도 걸어 약속을 하고 토닥토닥 격려도 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자기의 할 일을 하면서도 선생님과 △△이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을 학급 아이들에게는 간접 생활교육이 되었으리라. 그리고 한편으로는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한층 깊어진 기회가 되었으리라 믿으며 숨 쉬기 체험을 하였다. 그 이후 △△이는 점차 자기조절력이 생겼고 2학기에는 전혀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하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깔딱 숨 & 긴 들숨날숨] 심호흡을 통한 몸의 감각 체험 학급대화 메뉴얼

교사 : 우리 다같이 숨쉬기 한 번 해 볼까요?
슬플 때나 울 때 어떻게 숨 쉬지요? 한 번 해 봅시다. 이렇게!(교사가 시범)
(0.1초내로 숨을 쉰다는 생각으로 아주 짧게 깔딱 넘어가게 숨쉬기를 보여준다)
교사 : 느낌이 어떤가요?
학생 : 힘들어요. 답답해요. 더 울고 싶어요.
교사 ; 몸은 어때요? 심장은? 배는? 어깨는? 머리는?(몸의 변화 관찰하여 말하기)
학생 : 심장이 아파요. 배가 튀어나올 거 같아요. 어깨가 딱딱해요. 입이 힘줘요...
교사 : 이번에는 화날 때 어떻게 숨 쉬는지 해볼까요?
화날 때 손이나 몸동작도 함께 하면서요.(교사가 짧고 강한 호흡을 시범 보이기)
학생 : 더 열나요. 화가 더 나요. 숨 막혀요. 짜증나요. 누구를 치고 싶어요....
교사 : 몸은 어때요?
학생 : 얼굴이 뜨거워요. 머리도 아파요. 가슴이 답답해요. 주먹이 됐어요....
교사 : 지금 여러분은 우리 몸과 마음을 죽이는 "깔딱숨"을 쉰 거랍니다. 교실에서 우는 친구들도 흐느낄 때 그런가요?(네~~) 화날 때 특히 그래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몸과 마음을 살리는 4-2-4 긴 숨으로 호흡해 볼까요? 넷을 쉬면서 들여 마시고 잠시 멈춤, 그리고 다시 넷을 세면서 길게 내쉬어요. 꼭 숫자를 맞출 필요는 없어요. 편안하게 길게 내쉬면 됩니다. 내 쉴 때 우리 몸의 독소가 빠져 나간다고 해요. 자 시작~~!!
학생 : 교사와 함께 호흡 연습
교사 : 어떤가요?
학생 : 마음이 편해요. 잠자고 싶어요.
교사 : 마음이 편하고 잠자고 싶어졌다는 건 정서가 안정되었다는 것! 나의 뇌가 공부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고 싶고, 무언가 잘하고 싶은 친구는 심호흡으로 마음 안정부터 시작하세요!

15.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학생 ②

개인

화 풍선 바람 빼기 / 양해 구하고 자리 벗어나기

학생 특성 & 상황

- 학생 특성 :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남학생
- 상황 : 쉬는 시간에 복도 놀이 공간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다가 자신이 술래가 되어 친구들을 잡는데, 계속 잡히지 않자 화를 내고 손으로 쿵쿵 놀이공간 바닥을 쳐서 친구들이 놀라고 당황하며, 자신도 화를 조절하기 힘들어하며 눈물 흘리는 상황

교사 바람

- 스스로 감정 인식하기, 단계적으로 자기 조절력 키우기
-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교사의 자세 보여주기, 전문성 발휘하기, 정서적 안정 제공하기

선택 방법

- 화를 심상화하여 작게 만들기/ 화가 난 장소를 벗어나 조력자 옆에서 마음 추스르기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는 중학년을 담임했을 때 맡았던 아이였다.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 스스로 생각했던 상황과 다르게 흘러가면 갑작스럽게 화를 표현하곤 했다. 가장 많이 반복했던 어긋난 행동은 혼자서 책상을 손으로 치거나, 바닥을 발로 구르는 등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폭력적인 행동이었다. 주변에 자신이 화가 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방법이었고, 스스로도 마음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곤 했다.

어느 날 쉬는 시간에 반 친구들과 함께 복도에 있는 놀이 공간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했다. 놀이가 진행되며 △△가 술래가 되었고 쉬는 시간 내내 친구들을 잡는데 계속 잡히지 않았다. △△는 화가 나서 갑자기 술래 역할을 멈추고 눈물을 글썽이며 놀이공간 바닥에 앉아 화를 내고 손으로 쿵쿵 바닥을 치고 발을 굴렀다. 이에 함께 놀이를 하던 친구들이 당황하여 놀이를 멈추고 선생님께 찾아왔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와 개인 상담을 했다. △△에게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 와서 선생님께 △△가 술래를 하다 갑자기 바닥을 쿵쿵 쳤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지 담담히 물어봤다. △△는 맞다고 했다. 그래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질문했더니 술래가 됐는데 쉬는 시간이 끝나갈 때까지 아이들이 계속 잡히지 않아 화가 났다고 했다. 그런 상황이면 화가 날 수 있겠다고 말하니, △△는 엄청 화가 났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가 화날 수 있을 것 같아. **모든 '감정'은 괜찮단다.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아.**"

△△에게 감정에 대해서 말할 때는 따뜻한 어조와 태도를 취했고, 행동에 대해서 말할 때는 단호한 어조와 태도를 취했다.

"△△가 바닥을 쿵쿵 쳤을 때, 친구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화가 나고,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화가 난 친구들이 어떻게 행동했니?"
"선생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 △△가 화가 나서 바닥을 쿵쿵 쳤고, 친구들이 당황하고 화가 났지만, 화를 조금 참고 와서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며 도움을 요청했어. 친구들이 화가 났을 때 사용한 방법 말고, 화가 났을 때 화를 조절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스스로 생각해보자. 생각나면 선생님한테 알려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도와줄까?"
"네."
"선생님 생각에는 우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잠깐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마음속으로 10부터 1까지 수를 세는 거야."
"네. 숫자를 셀 때 소리를 내도 되요?"

"그럼. 내 눈 앞에 커다란 풍선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10부터 0까지 거꾸로 세면서 풍선의 바람을 조금씩 빼는 거야."
"풍선이요?"
"맞아. △△의 화가 풍선이 된 거란다. 숫자가 작아지면서 묶지 않은 풍선의 바람이 조금씩 빠지는 거지."
"그럼 제 화가 빠지는 건가요?"
"△△가 잘 이해하는구나. 맞아. 화가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면서 숫자를 세는 거야. 10부터 0까지 다 셌는데, 계속 화가 많이 나면 다시 한번 숫자를 거꾸로 세자."
"네."

"그런데, 그래도 계속 화가 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생님한테 와서 화가 났다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가 스스로 좋은 방법을 찾았네. 풍선이 쪼그라들었는데도 계속 화가 안 풀리면 선생님한테 와서 이야기하자. 선생님이 △△이야기 들어줄게.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면서 △△ 마음이 좀 추슬러지면 다시 놀이 공간에 가서 친구들과 노는 거야. 어떠니?"
"좋아요."

"그럼 지금 한번 연습해볼까? 마음속으로 커다란 풍선을 상상해봐. 그 풍선의 바람이 조금씩 조금씩 빠지는 상상을 하면서 숫자를 10부터 0까지 거꾸로 세자."
"10, 9, 8, … , 0"
"어때? 화가 좀 가라앉는 것 같니?"
"조금요."
"△△가 잘하는구나. 앞으로도 화가 나면 △△가 지금 연습한 것처럼 한번 해보자."
"네."

"△△야, 그런데 선생님이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 아까 △△가 말한 것처럼 같이 놀던 친구들이 △△ 행동으로 놀라고 속상했을 것 같아. △△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몰랐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선생님이 늘 말했다시피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사용하면 안 돼. △△가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속상한 마음을 풀어줬으면 좋겠구나. △△는 어떻게 생각하니?"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친구들을 부름)
"얘들아, △△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구나."
"얘들아, 내가 아까 화가 나서 바닥을 쳤는데, 너희가 많이 놀라고 화났을 것 같아. 미안해."
"괜찮아. 앞으로는 화가 나면 말로 이야기해주면 좋겠어."
"응."
"얘들아, △△가 아까 화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기도 모르게 바닥을 쿵쿵 쳤대. 그래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방법을 찾았어. 앞으로 △△가 갑자기 화가 나면 너희에게 말하고 잠깐 자리를 비울거야. 그리고 스스로 화를 조절해보고, 그게 잘 안되면 선생님께 와서 함께 이야기 나누며 마음을 추스르기로 했어. 마음이 추슬러지면 다시 너희와 놀러 갈거야. △△랑 선생님이 같이 연습해보기로 했는데, 너희도 이해해줄 수 있겠니?"
"네."/ "△△야, 너가 스스로 그런 방법을 생각해냈다니 대단한 것 같아."
"모두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좋은 해결방법을 찾은 것 같아. 하지만 당장 이 방법을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교실 밖에서는 선생님이 없어서 △△가 우리가 정한 해결 방법을 갑자기 혼자 실천하려면 힘들거야. 깜빡 잊을 수도 있고. 우선 내일은 교실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화가 나는 경우가 생기면 바로 선생님한테 와서 연습을 해 보자. 그리고 며칠동안 계속 잘 되면 그 다음날부터 놀이 공간에 가서 친구들과 놀면서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다."
"네, 선생님."
"그래. 그럼 오늘 쉬는 시간마다 스스로 연습해보고, 이따 학교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선생님한테 오렴. △△가 오늘 어떤 행동을 선택했는지 알려줘."
"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직접 풍선을 활용하여 [화 풍선 바람 빼기] 체험하기

1) 내가 화가 났을 때를 상상하여 풍선을 크게 분다.
   (※터지면 미션 실패라는 것을 미리 안내한다.)
2) 풍선을 묶지 않고 들고 있는다.
3) 지금 풍선을 계속 불면 어떻게 될지 질문한다.
   (※여러분도 화를 계속 내면 탈이 날 있으며, 그래서 화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4) 풍선에 들어있는 화를 내가 스스로 조금씩 빼 줄 것이라고 안내한다.
5) 마음속으로 숫자를 10부터 0까지 거꾸로 세며 풍선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뺀다. 공기가 빠지는 만큼 내 화가 줄어든다고 상상한다.
6) 화가 가라앉았으면 거기서 멈춘다.
7) 아직도 계속 화가 난다면 풍선을 다시 불어서, 숫자를 거꾸로 세며 바람을 빼는 과정을 반복한다.(※최대 3번 반복)
8) 느낀점을 이야기 나눈다.
9) 평소에 화를 조절하는 나만의 방법(또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나만의 방법)을 포스트잇에 적고, 모둠원과 함께 번갈아가며 이야기 나눈다.
10) 내가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쓴 포스트잇을 칠판에 붙인다.
11) 모든 학생이 포스트잇을 붙이고 나면, 모둠별로 번갈아 나와서 칠판에 있는 방법들을 읽어본다.
12) 그 중에 내가 가장 사용하고 싶은 방법을 A4 용지에 순서대로 3가지 정리한다.
13) 전체발표한 후, 자신의 사물함 안쪽에 '나만의 감정 회복 방법'을 적은 A4 용지를 붙인다.
14) 화가 날 때는 내 사물함에 가서 쓴 글을 읽어보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린다.
    (※역할극으로 미리 연습해 보면 더 좋다.)

교육 후기 & 소감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도 어린 시절 학교에서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은 없었습니다.

반 전체 학생들과 화가 나는 경우 또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어떻게 스스로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소중합니다. 다른 친구들의 방법을 들으며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떠올려보고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적절한 방법을 미리 선택하는 행동은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역할극을 통해 화가 나는 상황을 조절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은 실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좀 더 빠르게 자신만의 건강한 조절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6. 규칙과 약속이 필요한 학생

개인

3월의 학급 규칙과 약속으로 행복한 1년의 학교생활

학생 특성 & 상황

- 학생 특성 : 같은 말을 반복하고 실내화 주머니 위치를 못 찾아 15일 가까이 계속 다른 번호에 넣는 학생, 수업시간 돌아다니고 공부 시간에 자주 화장실을 가는 학생
- 상황 : 수업시간 이유 없이 계속 돌아다니고 책상 사이로 다녀서 주위 친구들을 계속 건드리고 충돌이 생기는 상황

교사 바람

- 수업시간에는 돌아다니지 않기,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기
- 친구들과 부딪혀서 충돌되는 상황 만들지 않기
- 학급 규칙과 약속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교실 만들기

선택 방법

- 모둠별 학급 규칙 세우기, 전체 학급 규칙과 약속 만들기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새 학기 첫 날, 어떤 아이들을 만나게 될까 교사는 여러 생각과 함께 학생들을 맞이하게 된다. 짧은 시간이지만 학급에 들어온 학생들을 보며 교사는 아이들의 특성을 금방 파악하게 된다. 눈에 띄는 한 친구,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며 자신의 실내화 주머니를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물어보았다. "○○ 이는 몇 번이니까 여기 번호에 넣으면 돼."라고 말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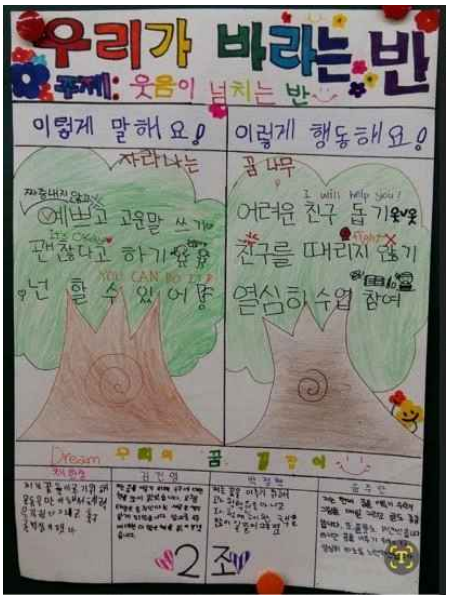
간단히 학급 소개를 하고 수업시간이 되었는데 계속 교실을 이유 없이 돌아다니고 책상 사잇길로 다녀서 친구들과 계속 부딪혀서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었다. 코로나 상황으로 제대로 된 학교생활을 못 한 이유도 있고 이것을 빨리 자리 잡아 주지 않는다면 이 친구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반 친구들도 생활하기가 힘들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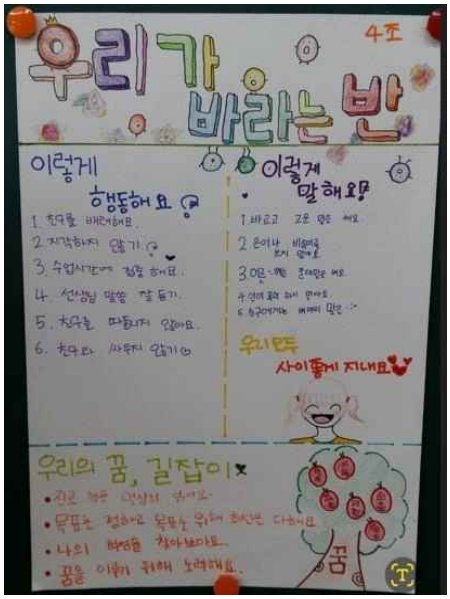
우선 모둠으로 책상 배열을 한 후, 우리 모둠의 학급 규칙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선생님이 정하는 규칙과 약속보다 아이들 스스로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정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기에 모둠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의논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약속을 정하고 친구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모둠별 학급 규칙을 뒤 게시판에 붙여 두었다. 수업이 시작되고 어김없이 ○○ 이는 교실을 돌아다녔다. 그때마다 "우리 반 학급 규칙, 수업시간에는 돌아다니지 않아요. 자리에 앉으세요." 움직이다가는 이내 자기 자리에 앉고, 책상 사이로 지나가서 친구들과 마찰이 생길 때마다 정해진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해 주었다. 아침에 보면 여전히 다른 번호에 실내화 주머니를 넣어 다른 친구들이 자기 번호에 다른 친구의 실내화 주머니가 있다고 번번이 옮겨 놓는 상황들이 3월 보름 이상 계속되었다. 3월, ○○ 이는 너무나 힘든 학교생활을 하였다. 그 불만이 엄마에게도 전달되었기에 어머니로부터 전화(민원?)도 받았다. 그러나 계속해서 드린 말씀은 3월 ○○ 이가 학급 규칙 및 약속을 현재는 지키기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3월만 잘 보내면 1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고 계속 설득해드렸다.

그렇게 힘든 3월을 보내고 ○○ 이는 다른 모습의 학생이 되었다. 더 이상 수업시간에 이유 없이 돌아다니지 않고, 가끔은 책상 사이로 지나다녀 선생님께 지적을 받지만 곧, "아, 여기로 가면 안 되지."하고 학급 규칙과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학생으로 변화하였다. 나중에 어머님은 병원에 다녀도 고칠 수 없었던 아이를 선생님이 고쳐주셨다고 정말 고마워하셨다. 3월을 생각하면 나에게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1년을 되돌아보면 학생과 함께 나 또한 성장의 기회가 된 좋은 시간, 보물 같은 추억으로 기억된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모둠별 학급 규칙 및 약속 정하기

3월 첫 날 첫 시간! 이 시간은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1년을 항해하는 배의 선장(교사)과 선원(학급 학생)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며 1년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다. 학급 규칙 및 약속을 정하고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

"0-0반 친구들은 한 배를 탄 친구들입니다. 머나먼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 도우며 1년을 잘 보내야 합니다. 선생님은 선장이 되어 배의 방향을 잘 알려주고, 여러분들 중 누구는 노를 젓고 누구는 지도를 봐야 하고, 또 다른 친구는 배에 탄 우리 친구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듯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원하는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습니다. 1명의 낙오자 없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끌어주며 1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멋진 0-0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친구 간에도 어느 누구 하나 소홀히 대하지 않고, 한 명 한 명의 존재와 위치가 중요함을 서로가 알게 되어 함께 이끌어주고 협력하는 학급이 될 수 있다.

교육 후기 & 소감

학급에는 다양한 아이들이 있기에 일반 친구들과 조금은 다른 행동으로 마찰을 일으키는 친구들이 종종 있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 친구들에게도 규칙과 약속을 알려주고 끊임없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 교사가 지도를 계속 이어간다면 시간은 걸리지만 이 친구들도 나중에는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행동해야 함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어 실천하게 된다. '얘는 원래 저런 아이라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변화하게 하려는 교사의 의지만 있다면 아이들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하면 학생 자신도 만족과 기쁨을 느끼게 된다. ○○이 어머님이 나중에 직접 해 주신 말씀이다. ○○이가 "저는 이은영 선생님이 좋아요"라고 이야기하기에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저를 성장시켜주셔서 좋아요."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셨다. 어머님께서는 '성장'이라는 단어에 매우 놀라셨다고 전해주셨다. 교사의 기쁨은 이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쩔 수 없는 아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과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 기쁨의 시간은 언제가는 되돌아올 것이라고... 교직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와 어머님이 될 것 같다.

17. 교사를 화나게 하는 학생들의 소소한 행동들

개인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화가 나는 행동들 대처하기

학생 특성 & 상황

• 선생님들을 당황하게 하는 학생들의 행동이 있어요. 열심히 준비한 교육 활동이 학생들의 소소한 행동으로 선생님이 화가 나서 망칠 때도 있어요. 선생님이 후회하거나 자책하게 하는 상황들을 알아보고 대처해 봐요.

교사 바람

• 화가 나도 화내지 않고 평화롭게 아이들과 지내고 싶어요.
•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통하고 싶어요

선택 방법

• 관찰하기, 천천히 반응하기(자극이 올 때, 자극을 인식하고 천천히 반응해요)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1. 혼잣말인데 혼잣말 같지 않아요. (고학년)

1) " 뭐래~" " 뭔 소리를 하는 거야" " 재미없어" 등의 말이 들려요
2) 선생님 마음 : '뭐라고 내가 니 친구야 ?' 라는 판단이 들면서 화날 수 있어요
3) 선생님 대처 : - 처음에는 듣지 못한 척 하는 게 좋아요.
- 누가 그러는지 관찰해요.
- 2번째 듣게 되면 바로 반응하지 않고 쉬는 시간에 지도해요.

> 선생님 : 별님아, 아까 네가 뭐래~ 라고 했던 것 기억나?
> 학생 : 네(또는 아니오)
> 선생님 : 혼잣말 같았는데 선생님한테까지 들려서 불쾌했어. 다음에는 조심해 줄 수 있을까?(혼잣말이라서 기억나지 않는구나 선생님 기분 나쁘라고 일부러 한 말은 아니네?)
> 학생 : 죄송해요(또는 네)

* 존중하며 대화하려 했는데 "선생님들은 말이 많아"또는 "에혀"하며 한숨을 쉬거나, "예?"라고 하며 이해를 못 해서 더 화나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 길게 말하지 않고, " 뭐래 라는 말 한 거 들었어. 하지 마라. 속상하다" 지시해요.
* 지시가 안 통하는 학생은 심리치료가 필요한 분노조절장애, 반사회적인격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경계선 지능을 의심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문제 행동 학생과 대화가 어려우니, 다른 학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선생님의 감정을 말해서 모방 행동 하지 않게 지도해요.
* 대화나 지시가 평화롭게 끝나도 언어 습관은 금방 고쳐지지 않아요. 노력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격려하면 선생님과 신뢰 관계가 쌓여서 학생이 좋아지거나 선생님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2. 선생님 앞으로 자주 나와요. (저학년)

1) 설명했는데 나와서 확인하며 물어봐요. 사소한 이야기들을 선생님께 말하고 싶어해요
2) 선생님 마음 : ' 또 나와? 몇 번을 나오는 거야? 라는
3) 선생님 대처 : 계속 나오는 학생이 누군지, 무엇을 말하는지, 몇 번 나오는지 관찰해요

> 선생님 : 별님아, 오늘 3번째 나왔네. 틀릴까봐 걱정돼?
> 학생 : 네
> 선생님 : 틀려도 혼내지 않을게. 스스로 생각해서 한 번 해볼래?

* "~ 해도 되요?" "꼭 해야 되요?" 라고 확인하는 학생들에게는 "응"으로 대답만 하면 됩니다. "왜 자꾸 확인하냐?"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왜 물어보냐, 안 해도 되는 걸 시키겠냐?"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오고, 잘 설명해서 다시 안 나오게 하고 싶지만 금방 바뀌지 않아요.

* 잘 들어주면 좋겠지만 나오는 학생이 늘어날 수 있어요. 선생님만 의지하고 친구들과 소통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의 쉬는 시간은 수업 정리와 다음 수업 준비로 바빠서 어느 순간 지칠 수 있어요.
* 자꾸 나오는 학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선생님께 몇 번 나오는지 관찰하시라고 조언해 드렸더니 100번까지 세다가 포기하셨다고 해요. 3번 정도만 받아 주시고 " 미안해, 선생님 해야 할게 있는데 친구들에게 물어 볼래?" 라고 지도할 수 있어요. " 애들이 안 도와줘요" 라고 말하는 학생이 있으면, 반장이나 잘 도와줄 수 있는 학생에게 부탁합니다.
* 5학년 학생인데 맨 뒤에 앉아 있을 때도 앞으로 나와서 질문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가정사가 있는 학생이라 열심히 들어주었는데 6학년 올라가서는 한 번도 앞에 나와서 물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1년 내내 가장 힘들었던 학생이었는데... 열심히 들어줘서 욕구가 채워진 것인지, 무서운 남자 선생님이라 못 물어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 매일 1~2번씩 "~해도 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나오는 것을 보면 마음 속으로 "응"이라는 대답을 미리 준비합니다. 가끔 " 달님이는 알아서 잘 하는데 선생님한테 왜 물어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미소만 띄웁니다.

3. 기타 소소한 문제 행동

교과서 관리(잃어버리거나 이름을 안 씀), 주변 관리 못함, 투덜거리거나 따지는 말 등 : 어떤 문제 행동을 보거나 듣더라도 관찰한 다음 천천히 반응해 보세요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1. **학교에서 멘토 선생님 찾기** : 동학년 부장님이나 선생님들 중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선생님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학급의 일과 수업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지 부탁드리거나 자연스럽게 매일 찾아가서 이야기 나누세요.

2. **학급 가치와 학급 약속** : 학년 초에 잘 정하면 생활지도 할 때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반 학급 약속은 " 고운 말 사용하기, 적극적 참여, 경청과 존중"이에요. 친구를 놀렸을 때나, 수업에 집중하지 않을 때, 모둠 활동을 하지 않으려 할 때, 학급 약속을 읽게 하면 바로 지도가 됩니다.

3. **아침 마음 살피기** : 눈을 감고 숨을 쉬며 내 마음을 살펴보고 0점부터 10점까지 중에서 내 마음이 몇 점인지 떠오르는 숫자를 기억하라고 해요. 매일 아침 학생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눈을 맞추고 마음 점수가 몇 점인지 물어봐요. (처음에는 기분이 1000점이라고 하거나 -100점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0점부터 10점까지 중에서 라고 다시 지도해요.) 시간이 되면 마음 점수가 낮은 학생이나 높은 학생에게 이유를 물어봐요. 그러면 삶을 나누고 마음을 살피기 때문에 평안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어요.

4. **기본 생활 훈련하기** : 아침에 와서 할 일, 쉬는 시간에 교과서 준비, 수업 종 치면 바로 수업 시작, 이동할 때 중앙선 넘지 않고 우측통행 등 기본 생활을 정해 주면 학교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안정적일 때 갈등이 줄어요.

5. **선생님 마음 먼저 살피기** : 학생을 지도하기 전에 잠시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요. 30초만이라도 들여다 보고 있을 때 학생도 마음이 진정될 수 있어요.

교육 후기 & 소감

신규 교사일때 너무 힘들어서 아픈 적이 있어요. 아침마다 학교 가기 싫어서 울었어요.꾀병이 가짜 병이 아니라, 마음이 괴로울 때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이라는 것 알게 되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막막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찾고 선생님들과 함께 하며 학급에 교육 활동을 실천하고 실패를 겪으면서 하나 하나의 경험이 전문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여유롭게 학생들과 지내고 있어요. 비판과 비난이 사라지고 존중과 공감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어요. 여전히 실패하고 있지만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며 위로하고 힘을 얻어요.

18. 무기력하여 수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

개인

문제행동을 SOS 신호로!

학생 특성 & 상황

- 학생 특성 :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칙이나 약속 등을 잘 지키지 않고, 수업 시간에 무기력하게 낙서만 하며 수업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음.
- 상황 : 수업 시간에 단원 마무리 활동으로 단원 내용 확인을 위한 모둠별 보드게임을 하는데 모둠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종합장에 낙서만 함. 게임 활동 중인 모둠 친구들이 네 차례라며 주사위를 건네주자 신경질적으로 주사위를 책상 밖으로 던져버리고, 이 돌발적 행동에 놀란 학생이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황.

교사 바람

- 자기 감정 및 욕구(바람, 필요) 알아차리기, 자기 감정을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하기, 자기의 바람을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으로 부탁하기, 주변 사람들의 작은 도움에도 감사하기, 따뜻한 학급 공동체 안에 수용되어 소속감 느끼기
- 학생의 감정 및 욕구 공감하기, 학생의 욕구(바람,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학생과 함께 찾고 지원하기, 따뜻하고 협력적인 학급 공동체 만들기

선택 방법

- 비폭력대화(관찰/느낌/욕구/부탁)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아이가 보이는 문제행동을 특별한 신호로 받아들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 단원 마무리 활동으로 모둠끼리 단원 내용 확인을 위한 보드게임이 한창인 우리 반은 웃음과 박수, 탄식과 환호가 뒤섞인 그 어느 때보다 열정 가득한 교실이었다.

보통 때였더라면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놓칠세라 흐뭇한 미소로 교실 곳곳을 분주히 다니며 사진 찍느라 정신없을 나였을 테지만 그때는 미소 지을 기력도 없어 의자에 앉아 눈꼬리, 입꼬리, 어깨까지 축 늘어뜨린 채 시선만 아이들을 향하고 있을 뿐이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는 극단적 선택을 한 누군가의 죽음을 우연히 목격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면증 등을 겪으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게 뭐라고 아이들은 저렇게 생기를 빛내며 열심일까? 뭐가 저리도 재미있을까?'

새삼스러운 궁금증으로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유독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웃음꽃 만발한 다른 아이들의 표정과 달리 그 아이만은 어딘가 모르게 내 모습을 닮아 있는 것 같았다.

'저 아이도 나처럼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나? 왜 혼자 저러고 있지?'

그 아이는 아이들의 놀이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듯 혼자 시무룩하게 종합장에 낙서만 하고 있었다. 모둠 친구들이 네 차례라며 주사위를 건네주자 신경질적으로 주사위를 책상 밖으로 던져버렸다. 아이들은 화들짝 놀라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려 피했다.

"야! 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지 주사위를 집어 던지면 어떡해? 선생님!"

다른 때 같았으면 아무렇게나 주사위를 집어 던지는 모습을 위험한 행동으로 보고,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내가 먼저 황급히 달려가 잘못된 행동이라 지적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따라 난 그 아이의 행동에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다들 즐거운데 혼자 즐겁지 않은 그 아이의 모습에서 나를 본 것 같아 안쓰럽고 걱정되고 궁금했다.

'너는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너 혼자 슬퍼 보이니?'

나한테 던지는 질문인지 그 아이한테 던지는 질문인지 나는 깊은 한숨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그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 무렵 나는 우울증 증상으로 모든 일에 의욕이 없고 기운이 없어 빨리 하고 싶어도 빨리 몸이 따라 주지 않아 의도치 않게 느긋한 사람이 되었다. 화가 나도 눈 한 번 치켜 뜰 기운조차 없어 화낼 상황에서도 의도치 않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여전히 기운이 없어 눈꼬리를 내린 채 그 아이 옆으로 의자를 가져다 놓고 어깨를 늘어뜨린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 뭐해? 지금 하고 있는 게 보드게임보다 재미있어?"

"아니오."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이는 눈길도 주지 않고 낙서를 계속했다.

"그래? 그런데 왜 친구들이랑 보드게임 안 해?"

"그냥……, 하기 싫어서요."

"아, 하기 싫었구나. 보드게임 하기 싫은데 친구들이 네 차례라고 주사위 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아서 화가 났었니?"

"그건 아니고……, 친구들이 잘못한 건 아니고……."

"화난 게 친구들 잘못은 아니라는 거니?"

"네, 그냥 내가 좀 화나고 다 하기 싫었어요."

"○○이를 아무것도 하기 싫게 만들고 화나게 한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

"……."

"그래, 뭔가 있구나. 선생님은 모두가 즐거운데 혼자 즐겁지 못한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일일까 걱정되고 궁금했어. ○○이가 말해줄 수 있다면 그 사정 이야기 방과 후에 듣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네."

"선생님 부탁 들어줘서 고마워. ○○이가 거절했으면 선생님 혼자 무슨 일일까 걱정 많이 했을 것 같아. ○○이가 선생님한테 말해준다고 하니까 안심도 되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 그런데 너희 모둠 친구들도 선생님과 같은 마음일지 모르겠네. ○○이가 어떤 표현이든 해주길 기다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미안하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이가 친구들 마음을 알아줘서 고마워. 이번엔 ○○이 마음을 친구들에게 잘 전달해보자."

○○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바로 친구들 쪽으로 몸을 돌려 말했다.

"아까 내가 게임 안 하고 주사위 던져서 미안해."

○○이가 다른 친구들 핑계를 대지 않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어쩐지 짠하면서 진심으로 고마웠다.

"왜 그렇게 했었는지, 선생님한테 말했던 대로 ○○이 마음이 어땠었는지 덧붙여서 얘기해 볼래?"

"그냥 좀 화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다 하기 싫었어."

"어? 나는 너가 화나는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어. 나도 미안해."

뜻밖에도 사과를 받은 아이가 자기도 미안하다고 같이 사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순간 ○○이와 나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그래진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미안해. 앞으로는 안 그럴게."

두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모를 뜨끈함이 목구멍으로 올라왔다.

"△△아, 정말 고마워. 자세히는 모르지만 오늘 ○○이가 힘들었을 사정이나 마음을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사과 받아줘서. 그리고 ○○이 마음을 몰랐던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해주다니 너무 감동스러워서 여기가 뭉클하고 따뜻해지네."

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가슴을 쓰다듬던 손을 두 아이의 손으로 옮겨 온기를 전했다. 아이들 덕분에 방전되었던 내 가슴이 온기로 급속 충전이 되는 듯했다.

사실 ○○이는 1학년 때부터 문제아로 유명한 아이였다. 이 아이 생활에서 약속과 규칙이라는 건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어야만 하는 고집 세고 말만 잘하는 영악한 아이로 유명했다. 무섭게 대하는 선생님의 말은 좀 듣는 편이라는 전 담임선생님의 말처럼 돌봄교실 선생님도, 방과후 선생님도 ○○이를 꺾을 사람은 엄격하고 무서운 남자 선생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였다.

그러나 나는 ○○이의 고집을 꺾을 만큼 무서운 선생님도 아니었고, 그런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에 동의하는 교사도 아니었다. 무엇보다 그 당시 나의 심리적 상태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하루에도 몇 번씩 불쑥 찾아오는 잦은 불안과 깊은 우울감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며 간신히 버티고 있던 때라 ○○이와 기 싸움을 할 여력도, 그럴 의지도 없었다. 그런데 그런 불행한 나의 상황이 ○○이에겐 선생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아, 아까 못했던 이야기 시작해도 될까? ○○이 마음이 어떤지 궁금한 게 많지만 ○○이가 들려주고 싶은 만큼만 말해주면 돼. 불안하거나 불편하면 언제든지 그만 말해도 되고 다른 이야기해도 돼. 알았지?"

나는 ○○이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 가능한 한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과 몸짓, 목소리로 대화를 열었다.

"음……, 선생님은 지옥을 맛보신 적 있으세요?"

뜻밖의 질문이었다.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에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하며 질문으로 응답했다.

"글쎄, 지옥 맛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괴롭고 힘들었던 적은 있었지. ○○이는 지옥을 떠올릴 만큼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구나?"

"네……."

그다음 아이가 들려준 이야기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아이는 캄보디아 출신의 엄마와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엄마보다 12살이나 많은 한국 아빠의 잦은 부부싸움과 그 과정을 생생히 목격하고 누구의 편도 될 수 없는 괴로운 자신의 이야기였다. 처음엔 문화와 세대 차이로 시작된 갈등이 아빠의 주사로 부부싸움으로 확대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빠가 살림을 던지고 욕하고 칼부림까지 나서 경찰차까지 왔었다는 아이의 이야기는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생생했다. 아빠가 엄마한테 던진 물건이 벽에 맞고 튕겨나와 자기 인중에 떨어져 얼마 전에 응급실에 실려가 꿰맨 이야기까지……. 가정폭력 속에서 아이가 느꼈을 불안과 공포가 지옥을 연상시킬 만큼의 괴로움이었다는 것에 내 마음도 함께 아프고 괴로웠다.

"엄마는 나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참고 살아요.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그렇지만 아빠도 너무 불쌍해요.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아이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도 아빠도 미워할 수 없는 너의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나는 그저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 등을 토닥이며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나에게 별안간 닥친 불행처럼 이 아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져 온몸으로 가정불화와 가정폭력을 겪으며 홀로 불행을 감당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문제행동으로만 보았던 우리 어른들의 시선과 평가가 이 아이를 더욱 외롭고 화나게 만든 건 아니었을까?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몸부림이었는데 도와달라는 신호였는데 우리 어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다. 나는 용기를 내어 ○○이에게 선생님이 어떤 것을 도와줬으면 좋겠냐고 물었다.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나한테는 가장 좋은 엄마, 아빠예요. 나를 정말 사랑하세요. 저도 그렇구요. 아빠가 술만 안 먹고 들어오시면 안 싸우려고 노력하세요.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 나라를 잘 이해 못하세요. 엄마는 우리를 위해 아빠 말을 따르려고 노력하세요. 우리 아빠 혼내지 마시고 술만 적게 마시라고 해주세요. 아니, 먹는 건 좋은데 술 마신 날은 방에 들어가서 빨리 주무시라고, 엄마랑 얘기하자는 말만 하지 말고 그냥 일찍 주무시라고 해주세요. 우리 집은 아빠가 술 먹은 날과 술 먹지 않은 날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날이에요. 아빠가 술만 안 마시면 천국인 날이 많아요."

초등학생 2학년짜리가 할 수 있는 말인가를 의심할 정도로 아이의 바람은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은 간절함과 어떻게든 엄마, 아빠를 이해해보려는 자식으로서의 사랑,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졌다. 관계가 끊어져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도 있을 텐데 그것은 끝내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의 여린 마음까지…….

"그래, ○○이 마음 뭔지 알겠어. 용기 내어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가 걱정하는 게 뭔지도 잘 알겠어. 선생님은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이 마음이 선생님한텐 제일 중요해. ○○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금보다 행복해지길 바라는 거잖아. 선생님도 그런 ○○이가 지금보다 편안하고 행복해지길 바라. 그래서 선생님은 ○○이 부모님께 ○○이의 힘든 마음을 알려주고,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해. 왜냐하면 선생님은 ○○이의 SOS 신호를 감지했거든."

말이 끝난 뒤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던 아이가 고개를 들어 내 눈을 응시하였다. 나는 ○○이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고 조심스럽게 토닥이며 말을 이어갔다.

"○○이 부모님 문제는 ○○이도, 선생님도 해결해주지 못해. 다만 서로의 행복을 위해 함께 도울 수는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따뜻한 시선으로 공감하는 과정이 필요해. ○○이가 선생님한테 말한 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또 싸우고 ○○이를 나쁘게 보지 않도록 선생님이 부모님께 잘 이야기해 볼게. 어때?"

○○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아이의 얼굴에서 안도가 느껴졌다.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었다.

"선생님! 선생님은 제가 만난 선생님 중에 제일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봐줘서 너무 고마운 걸. ○○이의 눈이 예쁘고 그 마음이 따뜻해서 선생님을 좋은 사람으로 봐주는 거야."

"저는 저한테 화내는 사람한테 더 화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말도 안 들리는 척, 못 들은 척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나한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화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나? 아닌데, 선생님도 화내는데. ○○이가 나쁜 모습은 빨리 잊어주고 좋은 모습만 오래 기억해주는 특별한 능력이 있나 보다. 아무튼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

아이와 나눈 이야기가 굉장히 무겁고 아픈 이야기였다는 것을 잊어버릴 만큼 아이와 나는 서로를 칭찬하며 유쾌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웃을 수 있는 힘이 아이에게 남아 있어서 다행이었다.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었다.

"○○이가 불안해 할까봐 미리 알려주는 거야. 선생님이 부모님께 전화드리기 전에 ○○이한테 먼저 부모님께 전화해도 되냐고 물어본 뒤에 연락드릴게. 그래도 되겠지?"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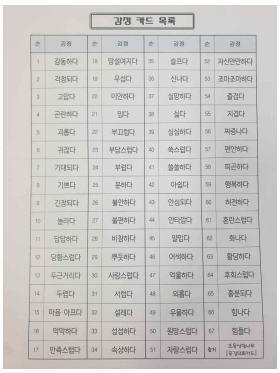
"네. 아빠 쉬는 날 언제인지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조심해서 집에 가고 내일 다시 보자."
"네, 안녕히 계세요."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 돌아서는 아이의 뒷모습에도 나는 흐뭇했다.
"선생님! 깜빡 잊은 게 있어요."
"뭐 두고 간 게 있니?"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꽉 안아주는 아이의 온기가 또다시 내 빈 가슴을 충전시켜 주었다. 또 한 번 목구멍으로 뜨끈함이 올라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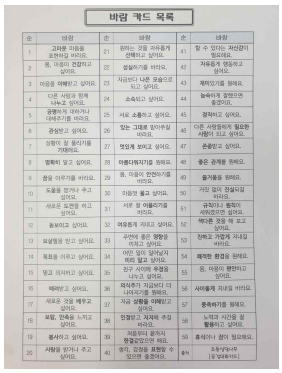
날벼락 같은 불행을 원망하며 아무것도 재미있는 게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 기운을 낼 의지조차 없었던 그 당시 나에게, 아이는 나와 닮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아이는 나를 궁금증으로 다가가게 만들었고, 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이야기해주었다. 아이는 내가 함께할 수 있는 곁을 내어주고,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가 힘낼 의지를 갖게 해주었다.

아이의 문제행동을 SOS 요청 신호로 받아들인 그 날 이후로 나는 신호를 보내는 아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눈에 힘을 빼고 천천히 살피는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신호를 보내는 아이는 문제아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아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차린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는 감사한 아이라는 것도…….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초등상담나무의 공감대화카드〉


감정 카드 목록


바람 카드 목록

〈공감대화카드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표〉

공감대화(비폭력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상대)의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감대화카드를 활용하여 어떤 감정과 욕구가 있는지 살펴보고, 현재 자기(타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감정 및 욕구를 찾아보는 활동을 수시로 하는 것을 권유한다.

아침 활동 시간에 "오늘 기분 어때?", "오늘 하루 어떤 바람이 있어?" 등과 같은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친구들과 함께 일상에서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존중과 공감으로 듣는 연습의 기회가 된다. 또한 친구들 간에 갈등이나 다툼이 있을 때에도 "그때 네 마음은 어땠어?", "그때 네가 진짜 바라는(원하는) 건 뭐였어?", "그때 친구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때 친구가 바라는(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등의 질문으로 갈등을 풀어갈 수도 있다. 생활교육뿐만 아니라 교과 수업 시간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국어 시간에 "그때 등장인물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상황에서 등장인물이 진심으로 바라는 건 뭐였을까?" 등의 질문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고, 사회 시간에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당시 백성들이 진짜 바라는 건 어떤 것이었을까?" 등의 질문으로 역사적 사건에 접근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기는 물론 타인(심지어는 허구의 인물, 과거의 인물 등도 포함)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존중과 배려, 이해와 공감, 사랑과 연민으로 서로의 마음을 채우고 따뜻하게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마음(감정 및 욕구)에 집중한 대화, 즉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는 자기 공감과 자기 연결은 물론, 타인 공감과 타인 연결로 확장되어 우리라는 유대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평화롭고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공감대화(비폭력대화)가 단순히 말하기 기술의 향상이나 의사소통의 원활함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를 새롭게, 긍정적으로 맺게 함으로써 치유와 회복, 화해의 길을 열어주기도 한다.

교육 후기 & 소감

비폭력대화를 만나기 이전에 나는 '생활교육'을 떠올리면 '당혹스럽다, 난처하다, 곤란하다, 답답하다, 지치다' 등의 감정이 함께 올라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생활교육 상황이 예상치 못한 뜻밖의 상황에서 갈등이나 다툼, 문제행동 발생으로 시작되어 이를 중재하거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활교육'이란 단어만 들어도 힘이 빠지고, 부담스럽고, 심지어는 피하고 싶은 마음마저 들기도 했다. 그런 마음은 교사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여 화해나 사과로 상황을 잘 마무리 짓고, 나아가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잘 지도하고 개선시켜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나의 교육적 신념에서 비롯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학생의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학생의 감정이나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비폭력대화로 학생을 만나고서부터 생활교육의 관점이나 방법이 달라지게 되었다. 학생을 지도나 교육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저 아이는 어떤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일까? 무슨 사정이 있길래 저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일까?' 하는 따뜻한 호기심을 갖게 되자 학생에 대한 비난이 사라지고 이해와 공감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학생의 문제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저 아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도와주면 저 아이의 욕구가 잘 충족될 수 있을까?' 하는 존중과 배려, 사랑의 마음이 저절로 샘솟는 신기한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학생을 위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게 기쁘고, 학생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어 교사로서 보람되고 뿌듯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자 학생을 일방적으로 돕거나 베푸는 역할이 아닌 학생이 스스로 선택한 방법을 존중하며 지원하는, 학생과 함께하며 돕는 위치로 나의 역할과 위치가 바뀌어 갔다. 학생도 나의 이런 마음을 헤아려 스스로 선택한 방법을 잘 지키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과거에 다른 사람이 준 아픈 상처에 대한 원망이나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자기 공감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어 오히려 내가 치유 받고 에너지를 얻는 것을 느꼈다.

특별한 지도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생활교육을 한 것이 아닌데, 특정한 결과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고 애쓴 것도 아닌데, 그저 학생의 마음에 호기심을 갖고 귀 기울이는 비폭력대화로 다가갔을 뿐인데 학생의 마음에 내 마음이 닿는 경험을 하게 되어 교사로서의 내 삶도 평화롭고 행복해짐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다짐한다. 학생의 문제행동을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나는 도움이 필요해요!"라는 SOS 요청 신호로 받아들이기로…….

19. 자해를 하며 잘 우는 학생

개인

저는 신경쓰지 마시고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가져주세요

학생 특성 & 상황

- 학생 특성 : 작년까지 자기 기분이 좋지 않으면 책상을 발로 차고, 자신의 머리를 책상이나 벽에 막 부딪히며 자해를 하며 잘 우는 학생
- 상황 : 첫 날 자기 소개서에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 가져주세요 라고 적음. 책상 위에 놓는 삼각 이름표를 지나가다 다른 친구가 건드렸다고 이름표를 찢고 2시간 동안 울다가 결국은 상담실로 이동한 상황.

교사 바람

-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 행동하지 않기
- 울지 않고 자신의 상황 및 바라는 점을 말하기
- 머리를 박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동하지 않기
- 우는 상황이 생길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미리 얘기해주기

선택 방법

- '엄마의 선물' 그림책 공감 대화, 교사의 지속적 관심과 응원, 어머님과의 협력 관계 내 감정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기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신학기가 되면 아이들에게 자기 소개서 학습지를 나누어주게 된다. 자기 소개서에 적은 내용을 쭉 보다가 특이한 문구를 쓴 학생의 글이 눈에 띄었다.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에 '저는 분노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저한테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이 글을 본 순간, 신경 쓰지 말라는 아이의 말이 반대로 '저한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를 좀 봐주세요.'라는 느낌이 들었다. 정말 본인의 존재를 알리고 싶지 않다면 저런 글을 표현하지 않는다. 조금 웃음이 나오면서 이 아이와 꼭 이야기를 나누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쉬는 시간 이 아이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 '저는 분노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저한테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 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더니 아이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자기 자리로 들어갔다. 그 웃음의 의미가 선생님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아이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웃음이 나왔다.

문제는 바로 다음 시간, 자기 소개를 간단히 한 줄 기차로 발표하는 순간, 뒤에 있는 친구가 움직이면서 □□이 책상 앞에 붙여놓은 삼각 이름표를 건드려서 이름표가 조금 찢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바로 삼각 이름표를 찢어서 던지고는 울기 시작했다. 학습지의 글 내용을 바로 행동으로 표현한 순간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잠깐 고민하고 있다가 상담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다. 작년부터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던 터라, 상담 선생님께서도 "상담실로 보내주세요."라고 말씀하셨다. 수업은 계속 이어가야 하고, 아이는 계속 울기에 상담실에 잠깐 다녀오라고 했더니 바로 이동을 하였다. '아이의 글이 첫 날부터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2시간이 지나서 교실로 돌아왔다. 이름표를 찢고 운 이유를 물어보니 뒤에 있는 친구가 오가면서 이름표를 건드려서 기분이 나빴고 찢어져서 화가 났다고 이야기하였다. □□이가 기분이 나쁜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행동하는 건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주었다. 이름표가 조금 찢어졌을 때 선생님께 이야기하면 테이프로 붙일 수도 있고, 뒤에 있는 친구에게 조심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오늘과 같은 행동은 다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수업을 마치고 오늘 있었던 일을 어머님과 통화하며 상담시간을 가졌다. 예전부터 그래왔다고 어머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이야기해드렸다. 2시간 교실을 비운 사이,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는 원래 그런 애예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잘 울어요."라고 이야기하였다. 작년까지 이런 모습이었다면 새 학년에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도록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드렸다. 어머님은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 또한 □□이를 위해 특별한 일이 있으면 어머님께 연락을 드린다는 말씀을 해드렸다. 아이의 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과 부모, 학교 선생님, 학생 이 세 조건이 같이 움직여야 함을 강조해 드렸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엄마의 선물' 그림책

교사의 어떤 상세한 이야기보다 책 한 권이 더 심오한 의미를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엄마의 선물'이라는 책이다. 내 행동에 책임을 갖고 행동해야 하며 나의 잘못된 행동이 나중에는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역지사지'의 의미를 알게 해 주는 내용이다. 아이들에게 있어, 화나고 기분 나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 부정적인 방법이 아닌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및 안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속상한 마음과 감정을 교사가 읽어주고 위로해주면 아이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든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이는 속상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담임 선생님을 찾아온다. 그리고 자기편이 되어준 선생님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상담 선생님께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다.

교육 후기 & 소감

학급에서 문제 상황이 생길 때마다 교실이 아닌 협의실에서 □□이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교실에서는 본인의 화를 주체 못하고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때가 종종 있었으나 그 장소에서 벗어나 협의실에 둘이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조금은 감정이 누그러지고 자신의 행동이 모든 친구들이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한 학기가 지난 □□이는 친구들과 많은 선생님들에게 작년과 비교하여 가장 많이 변화한 친구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 내가 직접 □□이에게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좋아진 친구가 □□이라고 선생님과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니 본인도 흐뭇해하고 기뻐하고 있다.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했던 친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분노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저한테 신경쓰지 마시고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라는 글의 의미는 '선생님,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를 좀 잘 돌봐주세요.'라는 SOS 표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교사에게 있어 '사랑과 관심'은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

20.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남학생

개인/학급

실수해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학생 특성 & 상황

- 학생 특성 :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남학생
- 상황 : 수업시간에 준비물 또는 책이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거짓말로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 친구를 먼저 때리고, 자기가 친구한테 맞았다고 거짓말하는 경우
  친구 사이를 이간질하여 다른 친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경우
  평가 문제를 하나도 풀지 않고, 자기는 만점이라고 소리치면서 담임 교사에게 만점을 달라고 떼쓰는 경우

교사 바람

- 학생이 자신의 실수를 되돌아보고,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방법 알기
- 교실에서 정서적 안정을 느끼고, 공감하며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줄 아는 학생으로 성장하기

선택 방법

- 그림책(틀려도 괜찮아!)보기, 되돌아보기, 공감, 다짐하기(쉬는 시간 타임아웃)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이는 2학년을 담임하였을 때 맡았던 학생이었다.

3월 개학한 다음 날부터 △△이는 교과서가 없다면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때를 쓰기 시작하였다. 교사가 여분의 교과서를 주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격려하였지만, △△이는 자신의 책이 아니라며 책을 집어던지고 교실 밖으로 뛰어나갔다. 나중에 △△이의 사물함 속에 해당 교과서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와 대화를 나누었다.

교사 : "△△아 같이 사물함을 찾아봤더니, 수학책이 있네. 아까는 사물함에서 못 찾은 걸까?"
학생 : "....."(대화를 거부하며, 교사를 째려 보기만 함)

"다음에는 교과서를 미리 책상서랍에 넣어두고, 교과서를 깜빡하고 가지고 오지 못했다면 선생님이 빌려주는 책으로 수업을 듣도록 합시다"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식으로 대화를 했더니, 학생은 교사에게 불만을 표현하였다.

대화를 거부하는 학생을 보고, 학생에게 심리적 문제가 있음을 느꼈다.

이후, △△이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 나왔다. 전담시간에 앞에 앉은 친구의 뒷통수를 장궁채로 내리치고, 전담 선생님에게 앞에 있는 친구가 자기를 때렸다며 울부짖으며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을 전담 선생님에게 전해듣고 △△이와 처음과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교사 : "△△아 앞에 앉은 친구가 △△이를 때렸니?"
학생 : "네! 저는 이유없이 그 친구한테 맞았어요. 저는 그 친구를 때린 적이 없어요."
교사 : "음 그렇구나. 그럼 그 상황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선생님에게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
학생 : "어... 그러니까 ○○이가 연필로 더 팔을 찔렀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팔을 뒤로 가리면서 팔을 보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보았고 초조해 손톱을 물어뜯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해 침묵 상황이 발생했다.

앞선 대화의 '그건 사실이 아니야'가 아닌 '그 상황에 대해 더 이야기해줄 수 있니'라는 식으로 대화를 하니, 학생이 자신이 한 거짓말로 인해 초조함이 나타나 보였고 자기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거짓말을 했다는 인정의 모습을 보였다.

교사 : "너가 방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불안해보였어.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이따가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이야기해보면 좋을지 생각해보자. 언제 시간이 괜찮니?"

△△이는 방과 후에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였고 방과 후 시간에 교실에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이는 자기가 수업 시간에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앞에 친구에게 들켰고, 그 실수를 감추기 위해 그 앞에 앉은 친구를 때렸고 때린 것을 감추기 위해 자기가 맞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솔직하게 말해주었다.

이를 통해 평소 거짓말을 했던 이유가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함임을 알게되었고, 학생에게 '2학년은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거야.', '실수없이 큰 어른은 없어.'라고 학생을 다독여주었고 앞으로 실수한 것이 있으면 거짓말로 감추기보다는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실수를 하지 않게 노력해 보자고 대화를 마쳤다.

물론 단기간에 습관적 거짓말 행동이 수정될 수 있다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다시 한번 △△이의 거짓말 행동이 발견되었고, 이번에는 학급 전체에 피해를 주는 거짓말이라 학급 단위의 교육이 필요하였다. 상황은 수학 평가 시간에 발생하였다. △△이는 수학 평가지에 아무런 답을 적지도 않고, 친구들에게는 '나는 만점이야!'라고 쉬는 시간에 소리를 질렀다. 평가 결과를 받는 시간, 친구들이 △△이의 점수에 관심을 가졌고 0점의 점수를 보고 '△△아 거짓말 하지마! 너 100점 아니라 0점 이잖아'라는 식의 반응이 여기저기 나오기 시작했다. 당황한 △△이는 '선생님이 점수를 잘못 적은거야!'라고 소리쳤고 울기 시작했다. 학급 친구들은 그때부터 △△이의 거짓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평가와 관련해서는 학생의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교사로서 학생의 반응을 수용하기에 쉽지 않은 점들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이를 불러 '공부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 불안했구나. 점수가 중요한게 아니야.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른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에 대해 공부를 하면 되는 거야.'라고 학생을 안심시키는 정도의 대화만 하였다.

그리고 그 날, △△이의 점수가 0점이라고 말한 학생에 대해 △△이는 친구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거짓말)을 내기 시작하였고, 그 친구랑 놀면 자기랑 적이 되는 거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결국 학부모의 민원으로까지 해당 상황이 커졌고, 평소 △△이의 거짓말 때문에 힘들어 하는 학생이 많아 △△이의 대한 전문적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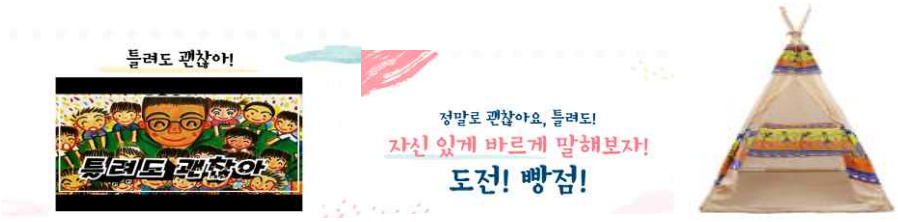
△△이의 부모님과 상담을 통해 △△이의 거짓말 습관에 대해 학급 전체 교육으로 관련 학급 규칙을 만들거라고 안내하였다. △△이의 부모님도 어느정도 학생의 행동을 인지하고 있었고 별도의 상담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급 규칙을 만들기 위해 서클로 모이기 전, 그림책 한권을 다같이 모여 읽었다.실수와 잘못된 행동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하는 △△이를 위해 [틀려도 괜찮아!]라는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도전 빵점!]이라는 퀴즈를 통해 실수 및 잘못한 행동이 이해받을 수 있다는 감정 공유를 하였다. 그림책을 읽고 △△이가 조금씩 진정하고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자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참는 방법을 학급 규칙으로 만들고 싶다는 친구들의 의견이 나왔다. 서클로 모여 학급 규칙으로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학급 쉼터(작은 텐트)에 들어가 쉼터 안에 붙어 있는 슬로건 '틀려도 괜찮아! 거짓말은 더 큰 잘못으로 나에게 다가와!'를 마음속으로 말하기로 규칙을 정했다.

이후, △△이의 거짓말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이가 실수를 해도 그것을 바로잡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모습이 많이 관찰되었다. 지금 3학년 담임선생님을 통해 △△이가 지금은 학급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모습을 보인다고 전해들었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그림책을 통한 감정 공유 [틀려도 괜찮아!] [도전 빵점 퀴즈]
공간분리(쉬는시간-타임아웃)를 통한 마음 다잡기 [교실 텐트]



※ 출처 : 쿠팡

교육 후기 & 소감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학생에게는 비난 대신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한 이유(실수 또는 잘못)에 대해 도움을 주는 것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행동 수정이 있었다. 교사가 학생의 감정에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교사 자신의 "자기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1. 교사에게 반항하고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

개인

학생과 교사를 위한 방법 찾기

학생 특성 & 상황

- 학생 특성 : 교사의 언어를 반감으로 듣고, 지시에 불응하여 거친 표현을 하는 학생
- 상황 :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반감을 보이며 자신의 억울함만을 표현하면서 폭력적인 언어사용이나 방법으로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학생.

교사 바람

- 방법의 전환, 긍정적 상호작용

선택 방법

- 멀어지기, 원칙 세우기, 긍정 피드백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고 반감을 보이는 학생을 지도하기란 매우 힘들다. 그러한 학생과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교사가 상처받거나 무시당하는 느낌에 모욕감을 느낄 때도 있다. 본 교사 역시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되도록 학생과의 부정적 감정교류를 길게 가져가지 않기 위한 몇 가지 대응 방법들을 찾았다.

1. 멀어지기

학생이 교사와의 대화에서 반감을 드러내거나 대화의 결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 교사가 감정이 흔들릴 때는 '멀어지기'를 선택하였다. 학생에게 '지금은 대화하여도 선생님과의 대화 방향이 좋지 않게 흘러갈 것 같고, 선생님도 감정이 좋지 않아 대화에서 실수할 것 같구나. 잠시 대화를 멈추고 서로 조심할 수 있을 때 다시 이야기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달하고 학생과의 멀어지기를 선택하였다.

2. 원칙 세우기

학생은 자신을 밀치거나 욕을 한 다른 학생에게 똑같은 방법이나 좀 더 심한 방법으로 감정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같은 말을 반복하며 자신에게 가해진 위해에 버금가는 방법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학생에게 한 가지 불변하는 원칙을 반복적으로 일깨웠다. '폭력은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는 원칙이다. 학생이 여러 번 같은 말을 해도 이 원칙은 깨질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폭력이 아닌 해결책을 같이 찾아보자고 권유하였다.

3. 긍정 피드백

학생이 친구와의 관계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개선된 사항이 생기면 학생에게도, 학생의 보호자에게도 반드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한다. 보호자에게 긍정 피드백하면 학교와 가정에서의 지도가 학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보호자도 더욱 학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변화할 수 있음을 믿으며 교사와 학생을 함께 지도할 수 있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생각 1. 교사의 지시에 반항하고 불응하는 학생이 있으면 교사는 상처받을 수 있다. 본 교사도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학생과의 관계를 잘 이어 나가고자 하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찾아보았다. 이러한 방법은 사실 꼭 정해진 것이 아닐 수 있다. 학생마다 다르고 교사도 성향이 다르므로 어떠한 방법이 딱 정답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교사는 자의로든 타의로든 학생과 관계를 맺게 되어 있다. 그 관계 속에서 교사도 학생도 크게 상처받지 않고 관계를 잘 이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생활지도라고 생각한다. 학생과 잘 지내기 위해 여러 방법을 알아보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생활지도라고 생각한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생각 2. 교사에게 불응하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학생은 필연적으로 보호자와의 상담을 동반한다. 학생의 행동으로 불편함을 겪은 학생의 보호자나, 교사의 권위가 상실되는 상황 등을 보호자에게도 전달하여야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호자마다 성향이 달라서 학생의 상황을 알리는 데에는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상담해야 하는 상황이 교사에게 불편하여 감정을 노출하면 보호자가 교사를 오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할 때는 판단의 언어보다는 관찰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교사의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관찰한 것을 위주로 전달했을 때 보호자가 상황의 심각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교육적 해결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경우가 많았다.

생각 3.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문제해결을 하려는 학생은 이것이 제지되었을 때 억울함이 크다. 이러한 학생에게는 부정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을 때보다 긍정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였을 때가 더 많은 보상과 만족감을 줄 수 있음을 많이 경험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그 만족감을 언어로 표현해 주어야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인식하고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시 한번 시도한다. 올바른 갈등 해결 방법으로 했을 때의 학생이 경험한 긍정적 효과를 그렇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며 보호자에게도 구체적으로 잘한 점을 이야기하여 격려할 수 있게 한다. 사소하거나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문제 상황에 대해 이전과 다른 긍정적 변화가 아주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에 대해 반드시 피드백 해주는 것이 좋다. 긍정 경험이 많을수록 학생은 긍정 경험을 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 후기 & 소감

학생이 교사에게 반항적으로 이야기할 때 교사도 감정이 있으므로 매우 화가 났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거나 학생에게 실망하여 교육적 열의가 사라지기도 하였다. 또한 학생을 바로잡지 못하는 나에게 무력감을 느끼고 교사로서 자질을 의심하기도 하였다. 여러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적용해보고 나와 그 학생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아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아마 다른 교사들도 그러할 것이다. 학생도 다르고 교사도 모두 다르다. 학교와 외부 상황도 모두 다르다. 교사는 다양성 속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다양함을 아우르며 개별 학생의 생활지도에도 고민과 노력을 다하는 그것이 생활지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22. 또래와의 관계 변화로 혼란을 겪는 학생

개인

다양함으로 빛나는 관계

학생 특성 & 상황

- 학생 특성 : 자존감이 강하고 또래와의 관계 변화로 인해 혼란을 겪는 학생
- 상황 : 친구들과의 오해로 인해 사이가 틀어진 후, 적당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 친구들과의 어색한 관계가 지속되면서 자신의 감정 상태에 혼란을 겪고 친구들과의 갈등 해결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

교사 바람

- 자신 돌아보기,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

선택 방법

- 감정카드, 바람카드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친구들과 싸운 후, 친구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던 학생이 상담을 요청하였다. 학생의 부모님께서도 학생을 걱정하는 상담을 한 이후라 나는 학생과의 상담을 위해 장소를 마련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감정 카드를 주며 요즘 학생의 상태를 말해 주는 카드를 선택하게 하였다. 학생은 '슬프다', '두렵다'의 카드를 선택하였다. 카드를 책상에 놓고 학생에게 왜 두 카드를 선택하였는지 질문하였다. 학생은 교실에서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슬프고', 다른 친구들이 내 이야기를 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감정을 이해한 후 바람 카드를 주며 바라는 것을 선택하게 하였다. 학생은 '울고 싶은가요?' 카드와 '사랑받고 싶나요?' 카드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학생은 울기 시작하였다. 나는 울 시간을 준 후 누구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인지 물어보았다. 학생은 '엄마'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으시냐고 물었더니 요즘 엄마가 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하였다. 친구와의 일을 이야기하겠다고 생각했던 내 예상과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난 학생에게 친구들의 관계가 엄마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는 문제인지 물어보았다. 학생은 친구와의 문제 때문에 엄마가 나를 자꾸 나쁘게 보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친구들과는 아직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이야기했을 때 나쁜 이야기가 나올까 두렵다고 하였다. 처음에 관련 학생들과 만남을 주선하여 대화시키려고 했었다. 그런데 학생과의 이 상담으로 나는 내가 하려던 계획을 수정하여 학생에게 시간을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학생의 부모에게는 학생이 관계를 해결할 시간을 줄 것을 권하였다.

이 학생들과 친구들은 이전처럼 다시 친해지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여러 번의 감정과 바람 카드 상담으로 학생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나는 서로를 이해한 학생들에게 미소와 여유를 가진 곰돌이 푸의 메시지가 담긴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책을 선물하며 이전과 같은 관계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자신을 사랑하며 서로를 미워하거나 오해하지 않고 다름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어울리며 생활하는 학생들을 지원하였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생각 1. 학생들이 관계는 교사의 생각보다 미묘하고 복잡할 수 있다. 이전 학년이나 생활 속에서 있었던 상황이 관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학생들이 관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특히 고학년 시기에 감정 변화를 급격하게 겪는 여학생들의 경우, 또래와의 관계가 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교사나 어른의 시선으로 관계 맺음을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의 심적 부담을 늘리거나 억지로 관계를 봉합하여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그들의 관계 맺음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방향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담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본 교사는 요즘 학생들에게 생활지도를 하면서 '다채롭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다름은 다르다는 이해에서 머무르지만 다채롭다고 표현하면 다른 것이 어울려 다양하고 화려할 수 있음을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어울림. 즉, 관계 맺음이 잘 이루어졌을 때 다채롭게 빛나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지도하기 위해서이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상황에서의 혼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으며 관계 맺음의 방식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한 사회와 학생들의 상황을 반영하는 또래 관계 지도 방식의 개발이 지속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관계 맺기 프로그램 예시〉

시기	주제 및 내용
4~9월	• 어울림으로 다채롭게 빛나는 우리 반 – 체험활동, 학급 체육 활동으로 공동체 의식 키우기
5월, 10월	• 당근이세요? 우리 반은 당근 마켓 – 알뜰 장터, 아나바다 활동으로 나눔의 즐거움 알기
5월	• 우리는 회복 공동체 –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또래 이해하기
11월	• 토닥토닥 마음 챙김 – 마음 챙김(명상)으로 나 이해하기, 진정한 관계 맺기
4~12월	• 즐거움엔 끝이 없다! 우리 반 오락실 – 보드게임, 교실 놀이 활동으로 공감과 배려심 키우기
4~12월	• 대화와 타협으로 발전하는 우리 반 – 학급 회의를 통해 민주시민 의식과 책임감 기르기

생각 2. 학생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서툴고 낯설다. 교사도 감정을 표현하는 낱말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막상 표현하는 것은 몇 가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감정 카드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좀 더 자세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많은 교사가 감정 카드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중에도 감정 관련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교실에 전시하거나 학생들이 책상에 붙이고 항상 확인할 수 있게 하면 감정 표현이 더욱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 후기 & 소감

감정을 노출하는 것을 꺼리는 한국문화에서는 감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적다. 따라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도 매우 제한적이다. 욕구 충족 여부에 따른 감정 낱말을 서로가 공유하여야 대화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의 생각이 학생들의 관계 맺는 방식을 제한적으로 할 때도 있다. 무의식적으로 내가 가진 기존의 판단으로 상황을 대하고 훈계 적인 언어로 관계를 끌어나갈 수 있다. 어른, 교사의 고정 관념적 생각을 탈피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이해할 때 학생들은 긍정적인 관계 맺기의 방식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02 중·고등학교 유형별 사례

1. 지각이 일상인 학생 ①

개인

간식상담하러 아침에 등교해요!

학생 특성 & 상황

- 밤새 게임하고 컴퓨터 하느라 아침에 잠이 드는 학생
- 주말과 휴일엔 컴퓨터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항상 잠이 부족한 학생
- 항상 지각을 하면서 6,7교시나 종례시간에 맞춰서 등교
- 매일 매일 결석일수를 세면서 지각하는 학생

교사 바람

- 일찍 자고 잠을 많이 자면서 건강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
-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도 피치못해 아슬아슬하게 지각하는 모습이 보이길

선택 방법

- 회복적 생활교육, 비폭력적 대화 시도

소! 확! 행! 생활교육 스토리

교사 : 학생 왔네? 너무 늦어서 어떻게 하지

학생 : 샘~ 그래도 결석은 아니지요? 종례시간에는 들어왔잖아요?

교사; 수업을 해야 결석이 아닌 거 아닐까요? 내일은 좀 더 일찍 와볼까?

학생 : 못일어나요. 깨워주는 사람도 없고.....

교사 : 아침마다 내가 알람해줄까?

학생 : 그래도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안들려요

교사 : 왜 못일어난다고 생각하니?

학생 : 늦게 자니까요

교사 : 왜이렇게 바쁜겨?

학생 : 새벽에 고수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새벽까지 자면 안되요

교사 : 게임하고 컴퓨터하느라 늦게 자는구나?
많이 먹고, 많이 잠자고, 많이 운동해야 할 나이인데..... 걱정인데?
다른 수업 시간에는 어때?

학생 : 항상 엎드려서 자고있어요. 밤을 샜더니 두통도 있고, 여기 저기 아픈 것 같고.
수업이 재미없어요.

교사 : 너무 아쉬운데? 엄청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수업 시간에~

학생 : 전 공부 못해요. 옛날부터 포기했고요
들어도 모르겠고, 봐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부해도 돈도 못벌잖아요?

교사 : 지금 시작해도 좋은 게 있는지 찾아볼까?
내일 점심 메뉴가 투움바 파스타랑 떡볶이, 튀김 나온다네?
그런 메뉴 좋아하나?

학생 : 저 엄청 좋아하죠
그런 맛있는 것도 급식에 나와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급식 먹어본 적이 없어서.....

교사 : 샘은 급식이 엄청 사랑스럽더라.
어쩔 땐 급식 먹으려고 출장도 안가고 포기한 적도 많아
내일 급식미팅을 해볼까?
내일 오전에 등교해서 급식을 같이 먹으면 학생이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사줄게!

학생 : 진짜요? 저 정말 먹고싶은거 있는데~ 같이 먹어줄 수 있어요?
오늘 일찍 자야겠네요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컴퓨터 게임도 좋아하지만, 한참 먹고 싶은 음식이 많을 나이의 청소년
조그만 간식이나 분식만으로도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다행이라 생각함. 이 학생은 먹방을 함께 하고싶다고 얘기했었고, 일주일에 2~3회 정도 상담하면서 결석일수와 지각일수를 좁혀서 무사히 졸업을 했고, 졸업 후에 진짜 학생이 원하던 대로 떡볶이 먹방을 함께 했다. 취직하여 회사에 잘 다니다가 현재는 사업을 차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학업 성적까지 끌어올리기는 무리였으나 자주 만나서 먹으면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습관을 바꾸고, 학교생활에 안정을 갖고 온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 학생에게는 처음에 말을 걸기가 쉽지 않았다.
항상 엎드려서 자고 있었고, 무기력하고, 남학생들 사이에서 힘의 균형에 눌려있었으며, 항상 지각과 결석으로 학교에서 거의 보이지 않아서 위태로운 학생이었다.
수업일수가 모자라서 졸업이 힘들 거란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씩이라도 거의 매일 만나서 얼굴 보고, 함께 맛있는 거 나눠먹으면서 근황토크를 이어갔고, 내일 일찍 학교오기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어서 감사한 마음이 든다.
아침에 등교맞이 행사도 가끔 했고, 이른 아침에 출발하느라 식사를 거르고 오는 학생에게 당보충용 초콜릿이나 떡과 빵 등을 제공해주는 것도 한 몫 했다.

마음 나누기 벤치 토크	간식 나누며 근황토크
나의 다짐 각오의 시간	약속 이행 리워드

교육 후기 & 소감

성인이나 학생이나 배고플 때 짜증나고, 맛있는 것을 나누면서 마음열기가 편하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들었음
다행히 부적응 학생의 컴퓨터와 음식의 관심사가 상담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가서 일년내내 상담하면서 잘 졸업해 준 것에 고마움을 느끼고 교사로서도 성장하게 됨.
가정에서만 학생 깨우기와 밤에 게임하는 습관을 고치기 힘들지만 학교와 함께 연계하여 온 마을이 한 학생들 잘 키워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됨.

2. 지각이 일상인 학생 ②

개인

행동은 빙산의 일부

학생 특성 & 상황

- 학생 특성 : 지각이 일상인 학생
- 상황 :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일상이었다가 학교등교가 시작되고 아침 기상을 하지 못해 학교에 자주 지각을 하는 상황

교사 바람

- 자아에 의해 하루를 보내는 자기조절능력 향상, 하루에 대한 책임감 향상 및 역할찾기
- 내면이 단단한 교사의 자세 보여주기, 본인 스스로를 격려하고 자존감 향상하기

선택 방법

- 학급긍정훈육, 동기 수정하기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학생과 인연이었는지 2년을 연속으로 담임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학급에서 부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진행했던 탓이었는지 수업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아침마다 전화를 해 일어나면 다행이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학생이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은 1교시가 지나서야 수업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면 학부모에게 전화를 해 학생을 깨워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날도 하루 이틀.. 직장을 다니던 학생의 학부모님도 지치셨는지 담임의 전화에 응답하지 않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 학생이 수업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문자만 남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에 오면 수업 시간 도중의 참여도가 좋았고,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있어 교우 관계도 좋으며 교과 선생님들도 수업 중 성실히 참여하는 태도를 칭찬해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다만 고등학생인데도 아침에 잠이 많은 이 학생의 기상 습관이 개선되지 않아 학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 염려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습관을 개선해나갈 의지를 키워 줄 수 있을지가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상담을 하면서 학생이 일찍 일어나기를 격려했지만, 쉽게 습관을 고치기는 어려웠습니다. 학생은 저와 상담을 할 때는 '선생님! 걱정마세요. 일찍 일어나도록 노력할께요' 하며 약속을 반복했지만 약속을 지키는 날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학생과 여러 번에 걸친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점은 지각을 자주 하는게 학교에 오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학교생활은 학급 부반장을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나 잦은 지각을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학생은 학교에 오면 수업은 조금 지루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재미있고 교내에서의 일과시간은 금방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침에 침대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학생이 쏟아지는 아침잠을 무릅쓰고 학교에 오고 싶게 만드는 것은 친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부분으로 도움을 준다면 학생의 지각하는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학교에 일찍 와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주기 위해 아침 교실 환기를 부탁했고 이는 이 학생과 친구들의 학습을 위한 역할이라는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 부탁을 받은 학생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으나 책임감 있게 수행해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모든 문제가 그렇듯, 아침잠을 이기지 못하고 지각하는 습관은 한 번에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두 번 역할을 수행하더니 친구들이 학생에게 '요샌 일찍 오네?' 등과 같이 학생의 변화한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말을 했고 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이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학생이 지각하는 횟수는 현저히 줄었으며 본인이 맡은 역할을 책임감 있게 끝까지 수행해냈습니다. 아침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자 학생은 학업과 같이 다른 부분에서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며 학교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생의 행동은 빙산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빙산의 아래에 있는 학생의 의도와 마음을 알아채려야 학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의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 **의미있는 역할 소개하기**

• 개념
- 의미있는 역할은 이치에 맞고(일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것과 그 일의 결과로 기대되는 것을 안다) 요점이 있으며(그 일을 왜 하는지 이해한다) 더 나은 방향으로 기여한다.
- 의미있는 역할은 학급공동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왜 중요한가?
- 학급이 잘 운영되는 데 필요한 각각 다른 역할과 그에 따른 책임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 학급에 기여하는 자세가 얼마나 가치롭고 필요한 일인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다양한 새로운 기술을 연습하고 배우는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 자신이 할 수 있는것과 자신이 공동체를 위해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방법과 책임감과 공감을 배운다.

• 유의점
- 연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 학생들이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방법을 모색하게 한다.
- 본인이 맡게 되는 역할을 '직업활동지'로 작성하는 시간을 주고 각각의 직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알도록 한다.

※ 참고자료: 친절하고 단호한 교사를 위한 학급긍정훈육법

교육 후기 & 소감

아침에 지각을 하는 학생의 원인은 무척 다양했습니다. 청소년기에 친구들과 전화를 늦게까지 하는 경우, 게임을 하는 경우,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는 경우, 원래 아침잠이 많은 경우, 아침에 가족을 돌보고 오는 경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도록 교육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미래에 성장해 있을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눈으로 볼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학생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어제 만난 아이와 오늘 만나는 아이는 같지 않답니다.

3. 세상 관심을 모두 받고 싶은 학생

개인/학급

거울반영의 대화와 PDC학급회의

학생 특성 & 상황

- 학생 특성 : 세상 관심을 모두 받고 싶은 학생
- 상황 : 수업 시작하는 종이 쳐도 춤추기를 멈추지 않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춤을 춰 관심 끌기를 멈추지 않는 학생과 이로 인해 수업 분위기가 잡히지 않는다며 다른 학생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

교사 바람

- 수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업 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자기조절능력 향상,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아존중감 향상
- 내면이 단단한 교사의 자세 보여주기, 정서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기, 학급 구성원의 다름 존중하기

선택 방법

- 학급긍정훈육, 동의와 가이드라인 만들기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중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한 학생들을 만나 아직은 서먹서먹한 관계였을 때, 먼저 선생님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호기심 있는 여러 질문을 하면서 친근하게 대해 준 학생이 있습니다. 조회를 마치면 항상 따라 나와서 주저리주저리 본인의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저는 '이 학생은 이야기를 들어 줄 사람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느꼈고 학생을 세심하게 관찰해보니 문제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제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 시작종이 울리고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가도 교실 앞쪽에서 전통춤을 추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야지~'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본인 자리까지 춤을 추면서 들어가는 바람에 수업 시작이 자꾸 지연되었는데, 그때 그냥 웃고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여기저기 수군거리는 말소리가 제게 들렸습니다. '쟤 왜 저러니', '또 시작했네~',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등 싫어하는 말을 하는 바람에 그 학생과 다른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학생의 춤추는 행동은 더 심해져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까지 나가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 수군거림은 날로 더 심해졌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친구들은 제게 와서 그 친구로 인한 불편함을 해결해주길 원했습니다.

먼저 학생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을 듯해 학생과 상담을 진행해 학생의 상황과 환경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T : 선생님은 OO가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에 춤추는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 알려줄 수 있니?
S : 그냥 이게 재미있어요.
T : 아! 춤추는 게 재미있어서 계속 반복한다는 거구나!
S : 네, 춤추는 걸 하면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하구요.
T : 친구들이 쳐다보면서 관심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는 거네.
S : 네. 스트레스도 좀 풀려요.
T : 아! 어떤 스트레스가 있니?
S : 제 동생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저는 동생을 돌보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T : 동생을 돌보았다니 대단하구나!
S : 감사합니다.
T :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관심을 받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구나. 그런데 수업에 방해가 돼서 불편함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는데, 알고 있니?
S : 네. 알고 있어요.
T : 그러면 친구들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S : 수업 시간에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께요. 하지만 쉬는 시간에는 상관없지 않나요?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T : 그래. 수업 시간에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서 고마워. 학급의 친구들과 가이드를 한번 정해보자.
이후 학급 회의 시간 의제로 '수업 분위기 조성'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행자 :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A : 수업 시간에 화장실에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B : 수업 시간이 시작되면 자리에 착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C : 서로 잡담하거나, 낄낄거리지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등의 해결 방법이 제시되었고, 이에 학생들은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도 B의 의견에 동의하며 결정된 사항을 잘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학급 회의를 마친 후, 저는 학급 구성원의 다름을 이해하기 위한 TOP카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모습에 신기해하며 서로 존중함을 배웠습니다. 이후 학급의 친구들은 결정된 사항을 지키기에 노력했습니다.

저와 그 학생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30분으로 정하였고 학생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학생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기 말 정도에는 훨씬 안정감을 찾고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 학생의 성장에서 많은 보람을 느껴습니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PDC 학급회의 형식 소개하기

- 활동 목표
  - 학급회의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3가지 방법에 초점을 둔다.
  - 학급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한다.
- 준비물
  - 학급회의 형식 포스터, 말하기 스틱, 해결책을 기록할 종이

> 학급회의 형식
> 1. 격려와 감사 나누기
> 2. 지난 회의 결정사항 확인하기
>   이전 해결책 확인하기
> 3. 안건 다루기
>   - 자신의 감정 나누기
>   - 친구의 의견 고치지 않고 토의하기
>   -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 요청하기
> 4. 계획하기

- 교사를 위한 소개
  - 성공적인 학급회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형으로 자리를 배치한다, 인원이 많은 경우에 작은 모둠을 여러 개 만들고 원형으로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 이 활동을 통해 학급 전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의 과정을 가르친다.
  - 학생들 서로가 존중하고 도움을 주는 분위기가 되도록 지도한다.
- 활동 방법
  - 자신의 감정 나누기
  - 친구의 의견을 고치지 않고 토의하기(이때 해결책을 선택하지 않고 배움을 나눔한다)
  -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 요청하기(해결책을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하고 배움을 나눔한다)

※ 참고자료 : 친절하고 단호한 교사를 위한 학급긍정훈육법

교육 후기 & 소감

입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등학교의 현실 속에서 학생들과 학급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준다거나 회의가 아닌 다른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민주시민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마음을 열어 대화로 소통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서 반드시 학교에서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학급 회의를 진행하고 조금씩 소통하는 기술을 길러주는 것이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여겨집니다.

4. 책임감이 없어서 친한 친구가 없는 학생

개인

식물테라피로 책임감을 길러요!

학생 특성 & 상황

- 지각도 많고, 조퇴도 많이 하고 근태가 안 좋은데, 이 걸 다른 학생들도 싫어함
- 욕하고 폭력적인 학생은 아니지만 무기력하고, 지각이 잦으면서 자신감도 없음
- 친한 친구도 없고, 학교에 있는 시간도 별로 없는데 늘 피곤해 함.

교사 바람

- 학교 행사에서도 잘 참여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렸으면 좋겠음
- 늘 자신감이 없고, 점심시간에 같이 먹을 친구가 없어서 도망치듯 조퇴하지 않길 바람
- 자기 관리와 함께 자신감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역할 부여 프로젝트 진행

선택 방법

- 자신감과 책임감 향상 주인의식 갖기 프로젝트로 식물 테라피 진행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학급 학생들에게 심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을 줄 시간도 없고, 항상 얄밉게 지각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친한 친구가 없음.

해당 학생이 없을 때 학급 학생들과 집단 상담을 실시해본 결과 특별히 미워하거나 싫은 건 아니지만, 일단 함께 시작하는 시간에 항상 지각해서 없고, 늘 안내해주고, 가르쳐줘야 하는 상황이라 귀찮을 뿐이라고 함.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며, 모든 학생들이 다 지각하고 싶지만 예의상, 또는 규칙을 지켜야 하니까 먼 길 일찍 등교하는데, 해당 학생에게만 특혜가 주어지는 것 같은 것도 불만임.

그리고 지각하고, 또 일찍 조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싫다고 함.

학급 학생들 : 선생님~ 저 학생은 매일 지각하는데 징계 안받아요?

교사 : 징계 받으면 좋겠어?

학급 학생들 : 그건 아닌데, 너무 심하니까요

교사 : 그렇지? 그 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아는 사람?

학급 학생들 :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무도 몰라요

교사 : 그렇지? 무슨 상황인지 알아보면 어떨까?

학급 학생들 : 그래도 평등하지 않아요. 우린 매일 아침 일찍 오는데.....

교사 : 맞아. 선생님이 알아보고 너희들과 똑같이 학교생활하면 같이 다니고, 점심도 같이 먹으러 갈 수 있겠니?

학급 학생들 : 그거야 뭐. 그 학생이 오면 그래야죠

교사 : 그럼 우리반이 훨씬 더 밝은 반이 되겠다. 성적도 오르겠는데? 고마워~ 함께 노력해보자. 파이팅!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자신감과 책임감 향상 주인의식 갖기 프로젝트로 식물 테라피 진행

교사 : 오늘도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어디 아픈 거 아닐까?

학생 : 아니요. 그냥 늦었어요. 죄송해요

교사 : 아니지. 선생님께 죄송할 일은 아닌데 항상 늦게 오니까 걱정되어서 그렇지

학생 : 네 맘대로 잘 안돼요.

교사 : 그렇겠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근데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반 친구들이 우리 학생을 일찍 보고싶어하는데 어떡하지?

학생 : 우리반 애들은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아무도 신경쓰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오기도 싫어요

교사 :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
우리반 학생들이 내성적인 성격이 많아서 표현을 못했대
항상 관심갖고 친하게 지내고싶은데 교실에 없어서 친해질 시간이 없었다는데?
학교에 너무 스쳐지나간 거 아니야? 호호^^

학생 : 아~ 그게 저도 자신도 없고. 다들 친해보이는데 저만 모르는 것 같고,
말을 꺼내기도 숙쑤럽고해서요

교사 : 그럼 우리반 학생들이랑 함께 얘기도 나눠볼까?
아침 조회시간전에 등교해서 서로 인사 나누고 시작할까?

학생 : 근데 일찍 등교할지 모르겠어요. 항상 늦게 일어나는 버릇이 있어서.....

교사 : 우리 학생 담당 화분이 있는데, 죽이지 않고 잘 살려볼까?
그동안 학생 대신에 다른 친구들이 봐줬는데, 그 친구들도 자기 거 돌보느라 우리 학생 화분이 위태롭게 되었거든.

혹시 집에 반려동물 키우니?

학생 : 네 고양이 키우고 있어요.

교사 : 그 고양이 좋아해? 밥은 잘 주고있니?

학생 : 귀엽고 좋은데, 밥은 엄마가 챙겨줘요

교사 : 엄마가 안계시거나 아프실 수도 있으니까 학생이 챙겨주고, 교실 화분도 학생이 책임지고 살려볼까?
조금 있으면 방울 토마토가 열려서 따서 먹을 수도 있고, 나눔할 수도 있거든

학생 : 그거 방울토마토여요? 저 초등학교 때 해봤어요. 물만 잘 주면 될까요?

교사 : 아침에 물 주고, 저녁에도 줘야해.
그러니까 일찍 오고 조퇴도 하면 방울토마토 죽을 것 같은데?

학생 : 아~점심 때 주면 안돼요?

교사 : 식물은 아침, 저녁에 줘야하는데.....

학생 : 알겠어요. 해볼게요.

교사 : 우리반 친구들이 학생과 같이 급식실도 같이 가서 먹고싶대.
점심 때 같이 갈까? 급식 먹고나서 족구도 할 건데, 할 줄 알아?

학생 : 잘 못하지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교사 : 그럼 우리 족구 놀이도 하고, 연습해서 족구 대회도 나가보자. 파이팅!

교육 후기 & 소감

한 번의 상담으로 학생의 태도가 바뀌지는 않지만 적당한 역할을 부여했을 때 책임감이 생기기도 함.
가정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길래 반려식물을 키우게 하여 교실의 생명이 죽지않고 잘 살게 하도록 했더니 화분의 작물도 잘 자랐고, 학생의 마음성장도 이어졌음.

5. 억울하다는 불평이 많은 학생

개인

포커싱 positive side

학생 특성 & 상황

• 교무실에 오라고 하면 잘 오지 않음. 항상 억울하다는 불평을 말하는 모습을 보임.

교사 바람

• 억울하다거나 화난다는 표현을 줄였으면 좋겠음.

선택 방법

• 포커싱(positive side)에 집중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교무실에 잘 오지 않고 항상 억울하거나 화난다는 표현을 자주 하는 학생임.

1. 학생이 불평을 자주 말함.
2. 그런 말을 들으면 나의 가슴속에서 화가 나고 답답해짐.
3. 나의 심장이 호흡한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심호흡을 함.
4. 그 아이의 모습을 가만히 들어주면서 그 아이의 좋은 점을 찾아봄.
5. 그리고 그 얘기를 학생에게 해줌
   5-1. 난 허스키 보이스인데 넌 목소리가 참 맑구나.
   5-2. 오늘 머리카락을 단정히 하고 왔네.
   5-3. 책과 공책을 잘 준비하고 있었구나.
   5-4. 저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구나.
   5-5. 단정한 모습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어서 선생님이 고맙다.
6.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의 아이의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표현함.
7. 학생은 불평 불만이 줄어들고 나는 답답한 느낌이 줄어듦.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1. 학생에게 다가갈 때 긍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2. 학생에게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긍정적인 이야기 뒤에 두어야 합니다.

긍정과 부정의 황금비율 3 : 1 이라는 긍정심리학의 "로사다 비율(losada ratio)을 소개합니다.

교육 후기 & 소감

인간이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합니다만 또한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도망가고 싶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학생이 불평 불만을 말할 때 제가 듣는 것도 힘들고 여러 번 반복되면서 듣기 싫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때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로 화제를 shift. 이야기의 분위기는 긍정으로 흘러가고 마음도 훨씬 덜 답답해져서 좋아요.^^*

6. 공부에 흥미가 없는 학생

개인

제목 천천히 다가가는 스몰 스텝(small step)

학생 특성 & 상황

• 운동을 좋아하고 공부를 좋아하지 않음. 가끔씩 분노하는 모습을 보임.

교사 바람

• 공부에 조금이라고 흥미를 보이고, 분노할 때 자신을 자제하는 능력이 생기기를 바람.

선택 방법

• small step, positive side에 집중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운동을 좋아하고 공부를 좋아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는 많이 잠.
가끔씩 학생에게 수업에 관련된 요구를 하면 화를 내거나 교실에서 나가려고 하는 학생

1. 학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미소로 지켜보기만 함.
2. 쉬는 시간에 무슨 운동을 좋아하는지 등 학생이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짐.
3. 복도에서 만나면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눔
4. 교무실에서 학생이 좋아하는 운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꽤 오랜 시간 대화를 함.
5. 학생이 교사에게 왜 사회 교사가 되었냐고 질문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기도 함
6. 개인적 친밀도가 생기고 나면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거나 화를 내는 횟수가 줄어듦.
7. 다른 학생들도 수업에 집중하라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습을 보임.
8. 사회 수업 시간에 운동과 관련된 선수의 국적을 말하면서 관심을 보임.
9. 수업을 조금씩 들으면서 수업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며 운동 외에 다양한 얘기를 시작함.
10. 수업에 학기 초 보다는 관심이 생겼으며 적대적인 행동이 훨씬 적어지고 부드러운 분위기의 대화가 가능해 짐.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1. 학생에게 다가갈 때 목적을 가진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함.
2. 학생이 관심있는 분야에 관심을 가질 때 그 학생도 나의 분야에 관심을 가져 줌.

대화법에 대한 고전적인 책인 〈내 아이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를 추천합니다.!!!
실제로 했던 대화의 과정을 볼 수 있어서 참고가 될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교육 후기 & 소감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혹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라는 이유로 학생과 대화할 때 〈목적을 가진 대화〉를 주로 하게 됩니다.

학생이든 교사이든, 세상 그 누구도 목적을 위해 대화를 하는 사람의 목적을 이루어주기 위해 행동을 수정하고 싶은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인간적 만남에서 이루어진다는 기본적 명제에 제가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 거짓말 하는 학생

개인

스포츠 심판보면서 페이플레이를 배워요!

학생 특성 & 상황

- 교사에게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거짓말을 하면서 이기적인 행동을 함
-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약한 학생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도 안했다고 주장
- 운동부를 하다가 단체생활 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관두고 일반학생으로 등교하면서 성실하지 못한 행동으로 일관함.

교사 바람

- 정직하게 살면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자신의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고 싶음.
-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다른 곳에서라도 찾으면서 사회 일원으로 잘 성장하길 바람.

선택 방법

- 선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생각과 행동의 정리가 되도록 관련된 선생님들과 상담
- 스포츠 게임을 통한 정정당당한 사례의 예시를 들어 생각의 전환을 고려
- 비폭력 대화 및 스포츠 게임에서의 심판 역할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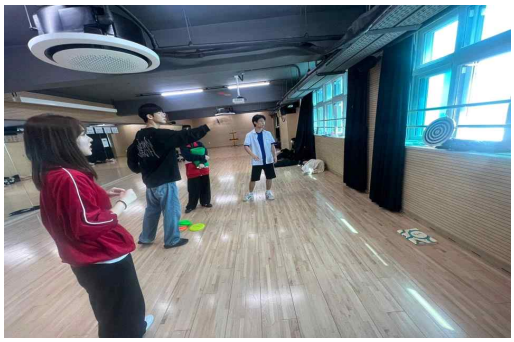
등교하면서부터 교복을 제대로 입고오지 않았음에도 교실에 교복을 놓고왔으니 입실하여 갈아입고 수업에 임하겠다고 말을 함.
결국 교실에도 교복은 없었고, 하루 종일 사복 운동복만 입고 다니지만 여전히 거짓말로 일관함.
교사들은 대부분의 거짓말임을 알고 있으나 너무 당당하고 큰 말소리와 싸울 듯이 기분 상한 듯한 어투로 말을 하여 말을 섞기가 싫어서 보고도 생활지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
생활지도 교사 : 교복 어디에 있니? 교복 입어야지?
학생 : 교실에 두었는데 누가 훔쳐갔다고요. 에이씨~더워 죽겠는데~
생활지도 교사 : 교복 입고 다니자

또 다른 예는 오전에 학교에 와서 다른 힘없는 학생에게 시켜서 월담을 하면서까지 담배와 음료수 등의 간식을 사오게 시킨 것을 목격하고 물어보는 교사에게 거짓말을 함.
교사 : 수업 시간에 왜 운동장에 갔니?
학생 : 수업 시간에 나간 적 없는데요???
(그러나CCTV에는 운동장에 나가서 간식 봉투를 건네받은 모습이 포착되었고,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 등의 증언도 있으나 거짓말 함)
나중에 간식을 받아서 먹는 현장에서 교사가 또 말을 하면서 생활지도를 함..
교사 : 수업 시간에 학생 친구가 월담하면서 담배랑 간식 사오라고 시켰다면서?
학생 : 아니요. 그 친구가 먹으라고 그냥 주던데요?
(사 온 학생은 이미 시킨 일이라고 말을 했고,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았으나 거짓말 하는 친구는 일관성있게 거짓말을 하여 요리조리 잘 피해다니고 있는 상황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다가 몇 일이 지나고나서 우연히 운동장에서 만나는 것처럼 하여 다가가서 상담을 시도하였다.
교사 : 학생~ 탁구 좋아하지? 엄청 잘하던데? 탁구 운동선수를 했어야했어~
학생 : 헤헷~ 제가 좀 잘하죠?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상냥한 표정과 예의바른 말투가 묻어난다)
교사 : 탁구 경기할 때 운동선수도 필요하지만 심판의 역할도 중요하겠지?
학생 : 그럼요~ 공정해야지요
교사 : 선수가 심한 트릭이나 거짓말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하지?
학생 : 처벌이나 경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해야지용.
교사 : 그치? 일상생활에서도 정정당당한 태도가 중요하겠지?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감정 나누기 카드 상담	스포츠 활동을 통한 래포 형성
마음 열기 활동	나의 감정

심판이 되어 페어플레이 정신 익히기	
	
다트 게임을 통한 심판의 역할 익히기	플라잉디스크 활용 래포형성

교육 후기 & 소감

학생이 잘하거나 좋아하는 것으로 관심을 유도하면 상담을 꺼려하는 학생들도 마음열기에 성공 확률이 높아짐

남학생들은 대부분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하면서 습관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성격의 내재된 장단점을 발견하기 쉬움

스포츠 활동의 선수로서의 입장은 학생의 마음을 대변하기에 좋고, 심판의 역할을 주면 교사의 마음을 이해하기 좋으므로 래포 형성에 스포츠 활동 적극 권장함

8. 여교사에게 무례한 학생

개인

거울반사 연극으로 예절을 키워요

학생 특성 & 상황

- 무서운 남자 교사의 말은 들으면서도 여교사, 특히 원로 여교사에게 무례한 학생
- 여교사 수업 시간에 혼자 소리지르고, 떠들고, 춤추고, 옷도 벗는 행동을 함
- 수업시간에 교탁에까지 와서 여교사에게 조롱하기도 하고, 잠잘 때 깨우면 욕설함

교사 바람

- 모든 교사에게 일관성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듬
- 강한 교사 앞에서는 심한 편은 아니지만 수업 태도는 나아지길 바람
- 모든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필요함.

선택 방법

- 거울반사 연극을 시도하여 회복적 생활교육에 관련된 상담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교사 : 학생~ 수업 시간에 왜 그렇게 앉아있어요?
학생 : (비스듬히 누운 듯이 앉아서) 뭐가 어때서요? 이렇게 앉아있는 게 편한데요?
교사 : (엎드리지 않고, 뒤로 젖혀서 잠자고 있을 때)
학생~ 수업 종 쳤어요. 수업 시작했으니까 어여 일어나서 준비하세요.
학생 : 에이18~~귀찮게 왜 깨우는 거야?
교사 : 지금 뭐라 그랬어? 수업 시간에 무슨 욕을 해?
학생 : 그러니까 그냥 냅두라고요. 졸려서 자겠다잖아요?
교사 : 수업 시작했으니까 책 펴자
학생 :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밤길 조심하세요. 에이씨

(담임교사와 학생부장교사에게 사안이 접수되어 선도위원회 회부되기 전 상담하기로 함)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 교사가 위의 대화처럼 똑같이 시도하여 학생의 대답은 비슷하나
교사가 마음의 상처를 안 입으면서 지도할 수 있게 시도함.
학생 : 여전에 누운 듯이 비스듬히 앉아서 수업하기 싫다는 표정을 짓는다.
교사 : 의자에 바르게 앉으세요
학생 : 싫은데요? 어쩔 건대요?
교사 : 묵언 (행동으로 손만 의자를 가리킴)
학생 : 뭐라는거예요?
교사 : 똑같이 말없이 의자에 앉으라는 흉내
학생 : 말 못해요? 뭐하자는 거예요?
교사 : 일관되게, 말없이, 표정 변화없이, 의자에 앉으라고 행동
학생 : 말이 안통하네. 앉으면 될 거아니예요?
이렇게 앉아있으라는 거죠? 맞죠?
에이~ 바르게 앉아 있으면 될거 아니예요?
교사 : 감사합니다. 이제 수업 시작해도 될까요?
(한 참의 시간이 흘렀으나 시간 투자의 정성도 중요하고,
교사의 마음을 굳게 갖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않는 선에서 해보길 권장)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거울반사 연극법 시도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바꾸고, 대사를 바꿔서 하고싶은 말을 첨가하여 연극)
거울반사 연극법을 시도하여 위의 대사를 똑같이 학생과 교사가 바꿔서 진행하기로 함.
물론 교사역할은 당사자가 아니며, 진심을 담아서 하기로 함.

학생 : 학생~ 수업 시간에 자세가 뭐에요?
교사 : (비스듬히 누운 듯이 앉아서) 뭐가 어때서요? 이렇게 앉아있는 게 편한데요?
학생 : (엎드리지 않고, 뒤로 젖혀서 잠자고 있을 때)
학생~ 수업 종 쳤어요. 수업 시작했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준비하세요.
교사 : 에이씨~~ 왜그래요? 귀찮게 왜 깨워요?
학생 : 지금 욕한 거 같은데?
교사 : 그러니까 그냥 냅두라고요. 졸려서 그래요
학생 : 그럼 안되지? 예의없게 뭐하는 거야?
교사 :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밤길 조심하세요.
저 그 땐 가만 안있을거예요?

회복적생활교육	거울반사 연극으로 역할 바꾸기

교육 후기 & 소감

거울반사연극을 하면서 학생도 이런 자기 자신의 언행에 굉장히 많이 놀랐고, 교사 역할을 하면서도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리고 나서 태도에 변화도 있었고, 잘 진학하였고, 그 때는 철이 없어서 그랬다고 전했다.
학생의 추수지도도 필요할 것 같다.

9. 학업에 무관심, 학교에서 소외됨, 문제행동 반복 학생

개인

2%의 관심으로 98%의 학교폭력을 막는다!

학생 특성 & 상황

- 학생 특성 : 학업에 무관심하고, 학교에서 소외되며, 문제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학생
- 상황 : 모든 것에 관심이 없고, 무기력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며 학급에 녹아들지 못하고 있는 학생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걸어도 못 들은척 하며 무시하기 일쑤임. 상황을 알아보니 전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이미 낙인을 찍혀 학습된 무기력을 겪고 있는 학생이었음.
- 생활지도 난이도 : ★★★★★

교사 바람

- 소속감을 주어 혼자가 아닌 우리 함께 라는 마음을 갖게 하기
- 목표를 가지고,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을 찾아 보기
- 폭력적인 행동과 욕설, 음주, 흡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청소년으로 자라나기

선택 방법

- 관계중심 생활교육, 개별관심, 어울림 프로그램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아이들은 전입교사나 신규교사의 학급에 배정되기 일쑤이다. 학교에 처음 전입하여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교사에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이 배정되는 것이다.

안타까운 이야기 지만 요선도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뿐 아니라 학생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학교에서 혹은 지난 학년에서의 '낙인'으로 아이는 교사에 대한 좋은 감정보다는 나쁜 감정이 앞설 것이고,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꿈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잃고 흡연, 음주, 학폭 등의 일탈을 반복하며 학교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가정에서도 제대로 케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 내교를 요청하거나 전화를 드리면 "왜 나한테만 그래요? 아이 아빠한테 말하세요.", "저도 우리 아이 손 놓은지 오래에요." 등의 불평 섞인 응답을 들을 가능성이 높다.

교직에 들어올 때 나의 첫 마음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사가 되는 것이었다. 임용시험 면접 때 답한 "아이들에게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치지 않겠다. 수천 수만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넘어져도 기다려 주는 교사가 되겠다는 것이 나의 초심이었다. 학교에 근무한 이후 그 누가 물어봐도 자신 있게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의 근거는 교직생활 내내 학생을 포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학기 초에 학교에 어울리지 못하고 "자퇴할 거예요"를 반복하며 수업 시간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던 한 학생이 있었다. 그 아이가 졸업한 중학교에 물어보니 중3 때 큰 사건을 저질러 경찰서에도 여러 번 다녀갔으며, 흡연, 음주 등의 일탈 행위를 반복하여 생활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아이라고 했다.

학교에서 아이를 품어주지 못하면 학교를 자퇴해 더 나쁜 길로 빠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 등 여러 마음이 합쳐져 방과후에 아이를 만나 상담했고, 지금까지의 생활지도 노하우를 모아 종합 솔루션을 만들기 시작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위한 STEP 4

▸ 1단계 래포 형성하기

학기 초 새로운 환경에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는 교사 못지않게 아이들도 긴장하고 있다. 학기 초에 늘 다짐하는 것은 긴장하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래포를 형성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직생활 중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은 '**먼저 인사하기**'이다. "안녕~" , "안녕하세요~"라는 간단한 인사를 아이들에게 먼저 했을 뿐인데, 효과는 놀라웠다. 학기 초에 교사가 먼저 인사를 해도 무시하고 지나가던 아이들이 한 학기가 지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나에게 인사를 건넨다. 내 수업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한다. 인사를 통해 래포가 형성되니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나무라더라도 학생들이 반발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을 수정한다. 지난 12년간의 교직생활에서 스스로 찾은 답 중에 하나이다.

위기 학생인 만큼 학교에서의 소속감과 애정이 결핍되어 있다. 학생에게 먼저 인사하고, 방과후에 남아 좋아하는 것, 요즘 근황 등을 물으며 아이와 급속도로 친해졌다.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던 OO이는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고 아이를 위하는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니 어느덧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래포 형성일 것이다. 일탈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것 중 하나는 선입견을 가진 교사의 시선과 행동과 말일 것이다. '낙인'효과라는 것을 받아 온 아이들은 선생님이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선입견을 가지고 피하려 하는지 본능적으로 느끼곤 한다.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은 선입견 없이 아이를 대하는 것이다. 선입견 없이 진심으로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다가가니 아이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 2단계 변화의 시작은 학부모와 함께

최근 사회적으로 학부모 민원과 관련하여 많은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직생활 동안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힘들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비결이라고 할 것이 있냐고 한다면 학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주어서라고 답하고 싶다.

공부나 운동경기, 심지어 아이들이 즐겨하는 게임도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하고 서툴다. 교육과 실습을 통해 익숙해지고, 잘 하게 되는 것인데, 학부모들도 어쩌다 부모가 되었을 뿐 전문적인 부모교육을 받거나 부모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공부한 학부모는 극히 드물다. 그런 학부모가 있다면 대부분 아이가 문제행동을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OO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와 전화상담을 하며 단 한 번도 아이의 어려운 점을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와 상담을 했는데, 대화도 잘 통하고 아이도 뭔가 해 보려 한다는 좋은 점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다.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의 학부모는 대부분 학교에서 아이의 잘못에 대한 전화를 받아 보았기 때문에 의외에 칭찬에 당황할지 모르나 아이를 칭찬하는데 싫은 소리를 할 부모는 많지 않다. 학부모에게 했던 말 중 가장 와닿았던 것은 "아버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이다. 세상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고 싶겠냐는 마음에 한 말이지만 역으로 부모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이는 바뀔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다. 학부모와의 상담과 래포 형성을 통해 아이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학부모 상담 중 여러 해 동안 일탈행위를 반복하고, 소년원에 다녀왔던 한 부모 가족의 아버지가 있었다. 그 아버지는 아이의 흡연으로 전화를 하니 "그 xx 저는 포기했습니다. 내 자식 아니니 자퇴시키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였다. 그 말에 위와 같이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학교로부터 안 좋은 전화만 받아 심적으로 지쳐 있을 학부모를 위로하고 아이를 함께 살려보자고 했다. 자녀를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학부모는 그만큼 상처도 많고 많이 지쳐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함께하자는 말에 그 아버지는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강력한 조력자가 되어 있었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 **3단계 아이의 관심사를 함께하라!**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관심사를 함께해 주는 것만큼 래포형성을 위해 좋은 방법도 없을 것이다. 남학생이면 게임(LOL, 배틀그라운드 등), 여학생이면 아이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하며 래포를 형성하니 성인인 내가 해당 내용을 아는 것에 아이는 적잖이 놀라면서도 공감대를 빠르게 형성할 수 있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해 주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며, 마음의 문을 연 후 아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것을 함께 공유한다. 대부분의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아이들이 꿈이 없거나 좋아하는 것을 물으면 "없어요"라고 짧게 말하곤 한다. 그럴때는 좋아하는 일을 함께 찾아보자고 신뢰를 주고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OO학생 역시 좋아하는 것을 물으니 "없어요"라고 대답했고, 미래에 하고 싶은 것을 물어보니 "그냥 죽을래요" 라고 한다. 아이와 그동안 쌓은 래포를 토대로 내 교과인 한국사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방과후에도 남아 아이와 한국사 공부를 해 주는 등 확실한 래포를 쌓았다.

▸ **4단계 꿈과 목표를 갖게 하라!**

그동안 쌓은 래포를 토대로 아이가 한국사에 관심을 갖고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참여하기 시작했다. 학기초에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기적 같은 일이다. 3월 입학 이후 한 달여가 지난 4월쯤 아이에게 꿈과 목표에 대해 물었다. 처음에는 죽을 거라고 말했던 아이가 어느덧 자신이 운동도 잘하고 신체도 좋으니 군인을 해보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어떤 답을 하든 대답을 한 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 었을 텐데 구체적인 직업까지 말을 하여 희망이 보였다. 아이에게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 그리고 성실함이 있어야 하고, 체력을 위해서는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 지각, 결석을 반복하고 있는데,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약속을 지키는 근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자신 없어하는 눈치였지만 계속해서 상담하고 격려하고를 반복하니 어느덧 아이가 학교를 매일 나오게 된 것은 물론, 다른 수업 태도, 교우관계도 이 전보다는 매우 좋아져 학교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교육 후기 & 소감

아이는 놀랍도록 변화하기 시작했고, 1학년을 마치고 현재 2학년을 무사히 진급해 학교를 다니고 있다. 현재는 성적도 많이 올라 5등급대의 성적을 유지하며,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럼에도 문제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특정 과목 교사와의 마찰이 있으며, 고학년 학생들과의 다툼으로 문제가 될 뻔했던 적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학교를 그만 다닌다거나 흡연, 음주 등의 일탈을 반복하지는 않는다.

아이의 놀라운 변화는 지금까지 소외되고 학교에서 낙인찍힌 아이에 대한 개별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에 있을 것이다. 일반학교에 오기 전에 대안학교에서 7년여를 근무했었다. 대안학교 아이들은 OO이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아이들이었다. 기존 학교에서 상처받고, 낙인찍히고, 학습된 무기력으로 꿈과 희망을 잃었던 아이들이었다. 그 아이들에게도 개별 관심, 래포형성, 꿈과 목표를 갖게 했던 활동들을 통해 아이들이 놀랍게 변화했고, 지금은 사회인으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

대안학교에서 근무하며 깨달은 사실은 아이들은 변하기 쉽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연수에서 새로운 생활교육의 패러다임을 강조해도 교육현장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들은 다르다.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는 교사의 사랑이 스며들 때 아이들은 바뀌기 시작하고, 그 변화의 폭도 매우 크다.

최근 코로나 이후 가정에서 케어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아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 아이들은 소속감과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세찬 바람, 폭풍우가 아니다. 따뜻한 햇살을 계속해서 쐬어주니 나그네는 스스로 옷을 벗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마음의 빗장도 교사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벗길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관계중심 생활교육은 한 아이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한 아이의 바뀐 삶이 또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다고 했을 때, 관계중심 생활교육이 가진 힘은 무궁무진한 것이다. 2%의 문제 행동을 반복하는 학생들에 대한 케어가 98%의 학교폭력을 막는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학교에 어려운 학생이 있다면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글을 마치려 한다.

10. 서로 관계가 좋은 않은 학생들_갈등 조정 대화모임

개인

나는 너의 거울이야, 너는 나의 거울이야.

학생 특성 & 상황

- A학생 특성 : 호기심이 많아 주변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다님. 매우 예민하고 궁금한 일도 많아, 궁금한 점이 해결될 때까지 질문을 멈추지 않음.
- B학생 특성 : 학급 반장이며 '리더십'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들의 잘못된 점을 잘 지적하고, 때와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서슴없이 하는 편임.
- 상황 : B학생이 A학생의 행동에 대해, '그런 태도가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취지로 지적하거나 무시하는 언행을 반복함. A학생은 B학생을 학폭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원함.

교사 바람

- 있었던 일에 대해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약속으로 정하여 실천하고, 상대방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서로 수용하여 화목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

선택 방법

- 회복적 생활교육 기반 갈등 조정 대화모임

소! 확! 행! 생활교육 스토리

A학생은 분명한 색깔을 지녔다. 지적 호기심이 많고 특히 과학 분야에 놀라운 집중력과 탐구심을 보인다. 문제는 모든 면에 너무 적극적이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질문을 하며, 질문 중에는 엉뚱하게 들리는 것들도 많아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잦아 주변 친구들이 불편한 기색을 자주 나타내기도 한다.

정의감과 리더십에 불타는 B학생은 학급 반장이며 친구들의 장점을 칭찬하기보다 잘못된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다. 문제는 여느 학생처럼 B학생 본인도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며 지내고, 친구들의 눈에는 정의감이 있거나, 리더십 또는 책임감 있는 반장으로 여겨지지 않는데 친구들에 대한 지적만 즐겨한다는 점이다.

B학생이 A학생에게 지적하거나 무시하는 언행을 반복하면서, B학생을 시작으로 학급의 다른 친구들이 A학생을 지적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잦아져, A학생은 학급 담임교사인 나를 찾아와 B학생을 학폭으로 신고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일이 벌어진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A학생이 피해자, B학생이 가해자가 되어 대면한다면 어떻게 될까? B학생이 자신의 언행에 대해 깊이 반성할까? B학생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질까? A학생의 피해가 (피해를 입기 전 상황으로) 완전히 회복이 될까? A학생의 상처받은 마음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 A학생에게는 잘못이 없을까? A, B학생의 언행과 갈등상황이 주변 친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갈등 상황을 가해와 피해로 나누고 가해를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배움과 성장으로 이끌어가는 일이다. A학생-교사-B학생이 모여 '갈등 조정을 위한 대화모임'을 열어 A, B학생은 서로의 거울이 되어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반영해주며 경청과 존중을 연습하고 배운다. 있었던 일, 그때 느꼈던 감정, 그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예방할지에 대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약속을 정하고 서로에게 제안도 해 보며,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경험을 한다.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공감은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수용해 주는 일'로 동감(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같은 감정이 됨)과 다르다. 예를 들어 '공감'이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네가 얘기해 주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라는 말이라면, '동감'은 '네 입장에 동의해. 나도 같은 심정이야.'라고 말하는 것이다.

공감과 동감은 대화에 모두 필요한 요소지만, 갈등 조정 대화모임에서는 '공감'이 필요하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대화모임을 열어본다.

공감의 4요소	내 용	예 시
존재로 듣기	선입견을 배제하고 내면의 빛에 초점을 맞추어 무조건적인 존중으로 듣는다.	"내가 듣기로는 ~라고 말한 것 같은데, 맞니?"
침묵 공감	말하는 사람과 침묵으로 머문다.	마음속으로 자신이 듣기에 상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에 집중한다.
이해/의미로 듣기	말하는 사람이 이해 받고 싶어하는 방법으로 듣는다.	(공감) "네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감정 살피기) "~느낌이 난 거니?"
욕구(need)와 연결하여 듣기	말하는 사람에게 생동하는 욕구를 주의 깊게 듣고 반영해준다.	"~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맞니?" "~이 후회가 되니?"

▸ **갈등 조정 대화모임 운영하기**

1) 운영 시간 : 학생 간에 갈등이 발생할 때
2) 운영 방법 및 내용
   ① 진행자 : 담임교사 또는 교과교사
   ② 갈등이 발생한 당사자를 한 명씩 만나 '공감의 4요소'를 활용하여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고, 대화모임에 정중하게 초대함.
   ③ 대화모임에서 교사는 진행자가 되어 중립의 입장에서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학생 한 명씩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A학생의 이야기를 B학생이 잘 듣고 거울처럼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함.
   ④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자기 약속과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시간을 가짐.
   ⑤ 대화모임에서 느낀 점 또는 배운 점을 얘기하고 마무리 함.
   ⑥ 1~2주 후에 다시 만나 자기 약속과 제안받은 내용을 실천하며 느낀 점 또는 배운 점을 얘기 나눔.

교육 후기 & 소감

두 학생 간에 갈등이 있을 때, 교사 주도로 각자 잘못한 것을 짚어 주고, 훈계하고, 벌을 주고, 서로에게 잘못한 부분을 사과하라고 하는 방식의 지도는 학생들의 내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기에 그 순간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만들게 되거나 두 학생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 배움의 공동체인 학교 그리고 학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배움과 성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서로를 공감하고 존중하며 공동체를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생 주도로 배움을 이끌어 낼 것이다.

11. 가족간 갈등 – 가족 대화모임

개인

가족은 서로 격려하는 벗

학생 특성 & 상황

- 가족 특성 :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버지, 가족의 화목을 바라는 어머니, 아버지의 일방적인 훈계가 싫은 대학생 딸, 게임을 좋아하는 아들
- 상황 : 아버지는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기에 지시적인 어조로 훈계를 하거나 감정적인 어조로 말함. 어머니 역시 자녀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편임. 자녀들은 일방적인 부모의 태도에 불만이 많고, 짜증을 내는 편임.

교사 바람

-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화목한 가족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약속으로 정하여 실천하고, 상대방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서로 수용하고 행동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가족이 되는 것.

선택 방법

- 회복적 생활교육 기반 가족 대화모임

소! 확! 행! 생활 교육 스토리

좋은 벗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존귀한 보물이고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든다. 가족이야말로, 태어나 가장 처음 만나는, 서로를 가장 가까이서 격려해줄 수 있는 소중한 벗이다. 'A good speaker is a good listener.'라는 말처럼,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우리는 언뜻 대화(Dialogue)를 나누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독백(Monologue)을 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은데, 이는 경청하지 않고, 자기가 말할 차례만 기다리기 때문이다.

가족 대화모임에 모인 가족들이 처음 보여주는 모습은 다소 얼굴에 굳은 표정이 역력하다. 이번에도 일방적인 얘기를 듣게 되진 않을지 걱정인 모습이다. 그러나 대화가 거듭되고 서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감정이 있었으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럴 수 밖에 없었는지 알게 되는 순간엔 알맞은 위로와 격려를 하지 못한 아쉬움과 미안함이 가득 차오른다.

가족 대화모임은 화목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각자 노력할 부분을 약속의 형태로 말한다.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기다리는 순간이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정말 저렇게 해줄까?'라는 걱정은 희망과 기대로 바뀌고, 자녀들 역시 잔소리에 못 이겨 행동하던 것들을 스스로 약속으로 정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서로 위로·응원·격려하기	가족 대화모임을 마친 후 소감
	•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 평소에 하기 어려운 마음속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 가족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각자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생기고, 상대방에게 바라는 점을 '명령'이 아닌 '제안과 수용'의 형태로 할 수 있어 듣는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았어요.

관련 생활 교육 꿀팁 & 자료 소개

1. 가족 대화모임 신청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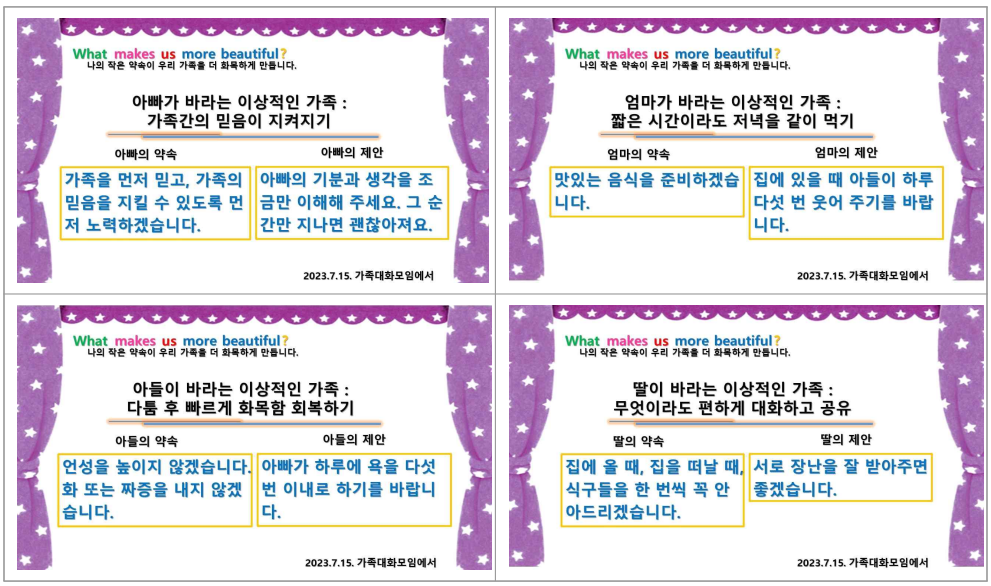
① 대화모임인 만큼 가족 구성원이 최소 3인(부+모+자녀1인)이상 참여
② 대화모임은 총 2회로 진행되며 가정이나 학교에서 실시함.
③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경험을 긍정적으로 나눌 수 있는 대화모임의 기법이나 형식을 익히는 기회

2. 가족 대화모임 운영

1) 감정 묻고 답하기
① 감정 단어를 보고 자신의 '어제·오늘·미래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선택
② 한 사람씩 돌아가며 감정을 표현
③ 기대 효과 : 가족의 일상과 내면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서로 이해함.

2) 내면의 욕구 들여다보기
① 가족 구성원의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알고 싶다면,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라고 자문하고, 어떤 말로 격려를 시작하면 좋을지 생각함.
② 기대 효과 :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해 '내 기준으로 판단 또는 평가'를 하지 않고, '왜 그럴까?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함. 가족 구성원 각자가 서로를 관찰하고 격려해주는 활동을 통해 각자 내면의 욕구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함.

3) 약속과 제안하기
① 가정에서 자녀교육의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에게, 부모와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자녀에게 가족 대화모임에서 화목한 가정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약속과 가족 구성원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을 말함.
② 기대 효과 : 갈등 상황을 배움의 기회로 하여 가족의 화목함을 함께 노력함.



교육 후기 & 소감

가족 대화모임에 참여하여 모든 가족 구성원이 차이를 뛰어넘어 공감하고, 존중하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세 사람이 모이면 '동조현상'을 통해, 어떤 행동을 일으키고 사회를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되는데, 가족 대화모임에서 가족의 성장을 위한 격려로써, 숫자 '3'의 힘을 활용하자. 가족의 성장을 위해 배움을 솔선하여 실천하고 성장하는 어머니, 함께하는 아버지,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 중 격려의 힘을 보태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3인 3색의 특별한 사랑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생명 속에 내재된 위대한 힘을 깨닫고 눈떠 발랄하게 활약할 수 있도록 격려하자.

2023학년도 학생생활지도 꿀팁 집필진

자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		구본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관		유덕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이정화
집필	인천청학초등학교	교사	강은진
	인천첨단초등학교	교사	강혜영
	인천운서초등학교	교사	곽수정
	인천금곡초등학교	교사	김동욱
	인천부평서초등학교	교사	김석민
	인천해송초등학교	교사	신보경
	인천당하초등학교	교사	안창균
	인천청람초등학교	교사	오법근
	인천봉수초등학교	교사	유명선
	인천해원초등학교	교사	윤지현
	인천동춘초등학교	교사	이연희
	인천새봄초등학교	교사	이은영
	인천백운초등학교	교사	이혜영
	인천함박초등학교	교사	임희정
	인천공항초등학교	교사	최수빈
	인천청라중학교	교사	김신해
	인천이음중학교	교사	문영철
	북인천여자중학교	교사	양을길
	선인중학교	교사	유희주
	진산중학교	교사	한정희
	인제고등학교	교사	박자현
	한국주얼리고등학교	교사	이윤진
	선인고등학교	교사	최동석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교사	허태련

2023 학생생활지도 꿀팁

발 행 일 : 2023. 9월
발 행 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전 화 : (032) 420-8483